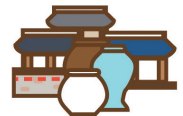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문화재 안내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세벌대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오랑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

혹시 도 장관님, 뜻을 한 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청와대 안에 이 자리에 있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 2018년 5월 29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

- 文대통령 “공공 안내판 쉽게 · 알고 싶은 정보 담겨야” (KBS, 5.29)
- 문대통령 “오랑가구 뜻 설명할 수 있나요?” 공공언어 개선 강조 (연합뉴스, 5.29)
- 어려운 안내판, 직접 찍은 사진으로 PT나선 문통 (세계일보, 5.29)
- 문대통령 “5랑가구 · 불발기 · 굴도리집… 장관님, 무슨 뜻이죠?” (조선일보, 5.30)

● 차례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 5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안내 · 7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 9

문화재 안내판 문안작성 가이드라인 · 10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 17

읽기 쉬운 안내판 · 19

대전광역시 · 20 / 경남 함안 · 32 / 강원 태백 · 46 /

충남 부여 · 58 / 경기 안양 · 68 / 경기 양평 · 78

함께하는 안내판 · 89

경남 고성 · 90 / 전북 고창 · 104 / 전북 부안 · 116 /

경남 사천 · 130 / 경남 산청 · 144 / 서울 송파 · 154

외국인도 읽기 쉬운 안내판 · 165

영어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절차 · 166

영어 안내문안 작성 기본 원칙 · 167

건조물 · 168 / 성곽시설 · 172 / 비석류 · 176 / 향교 및 서원 · 180 / 불교문화재 · 184

부록 · 189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 190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 · 197

문화재 안내판 우수 정비사례 |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개인약수 편 · 198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안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문화재 안내판 문안작성 가이드라인

Q1. 문화재 안내판을 왜 개선하나요?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객에게 문화재의 가치, 규모, 형태 등을 설명하기 위해 공공 언어로 쓰여진 안내문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재 안내문안은 **전문용어와 한자어**, 그리고 **비문(非文)** 등이 섞여 있어,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개선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한 국민들 의견들이랍니다.

“한자가 한글보다 많아서 읽기 어려워요.” 김*혜

“몇 번을 읽어 봐도 잘 모르겠네요.” 노*선

“소로 부연? 원옥? 장주초석? 이게 다 뭔가요?” 심*용

“증축이나 신축이라는 한자어 대신 새로 짓다, 늘려 짓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때요?” 서*진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시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설명이 어렵고 와 닿지 않아요.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더 설명이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남*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김*옥

“너무 뻑뻑해서 끝까지 못 읽겠어요.” 곽*샘

“연도가 틀렸어요.” 아*민 “한자도 틀리고요.” 한*규 “오자도 있네요.” 강*기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서*슬

“보부상과 부보상이 같은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설명을 달든지, 하나로 통일하든지.” 홍*성

“문화재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문법에 맞지 않아요.” 이*호

“녹색 바탕에 흰 글씨,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호

“글자가 지워져서 안 보여요.” 서*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안내판 높이가 낮았으면 좋겠어요.” 김*숙

— 찰칵찰칵! 우리 문화재 안내판을 부탁해 (2018.7.14.~8.5.) —

Q2. 문화재 안내판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문화재청은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 ▲국민 참여를 통한 쉬운 안내문안 집필을 목표로 2018년부터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전국 1,392건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 정비대상 안내판 |



〈서울 침류각〉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등)이 어려운 안내판
- 지정명칭 불일치, 오타자, 내용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 정기조사, 안내판 표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등

|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방향 |

AS-IS (현재)

어렵고 전문용어 중심인 안내판

- 전문가에 의한 안내문안 서술
- 한번 설치되면 개선이 어려운 안내판



TO-BE (개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내문안
-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관리 · 개선되는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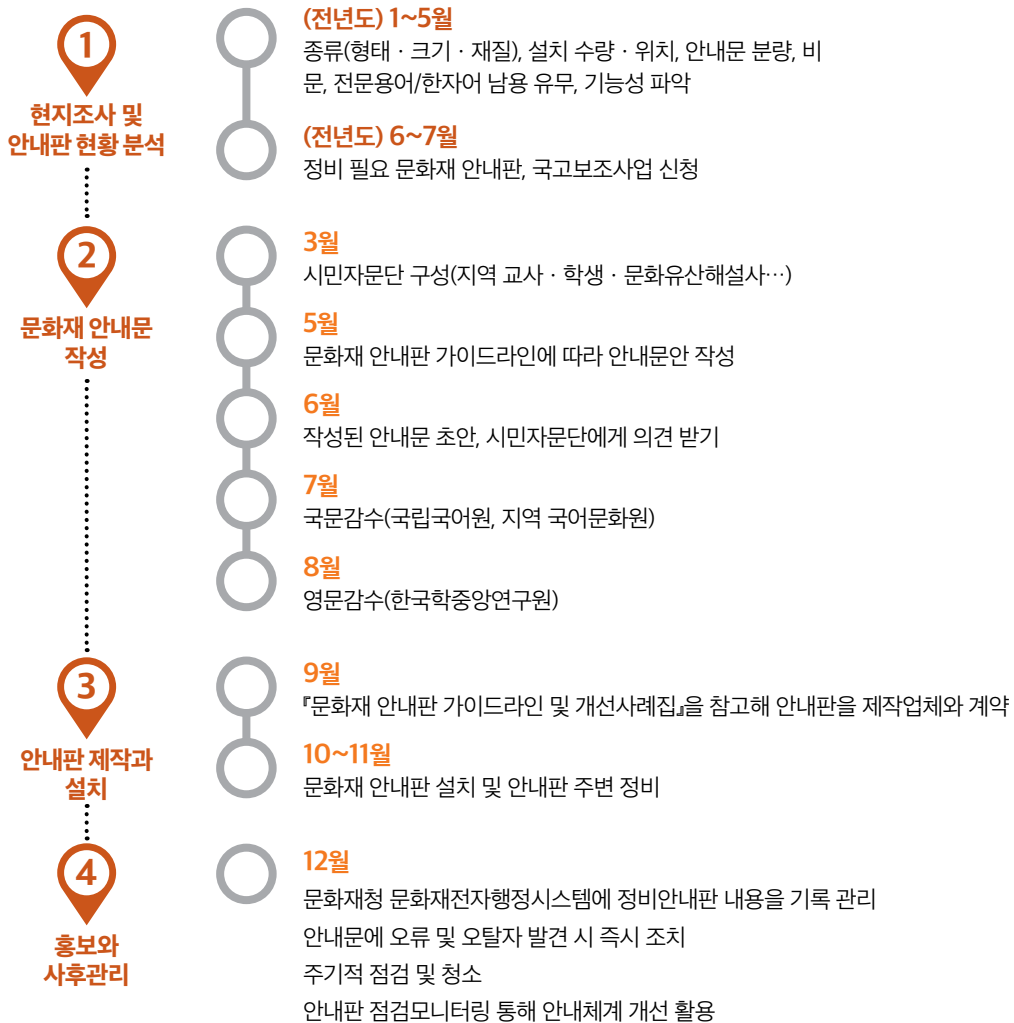
| 안내문안 작성원칙 |

- ① **쉽고 간결한 기술** : 전문용어의 사용은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아 이해하기 쉽게 해설
- ② **맥락 있는 기술** : 해당 문화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지를 설명
- ③ **유기적 설명** : 상호 연관되는 문화재를 묶어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게 설명
- ④ **스토리텔링 활용** : 문화재에 얽힌 전설이나 설화를 활용(단, 공인된 역사 중심으로)
- ⑤ **사진 · 도면 활용** : 사진이나 그림, 도면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 활용
- ⑥ **현재와 연계한 기술** : 문화재가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계하여 설명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사제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2018년) 참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는 안내문안 작성과 검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별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에는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이 안내문안 작성과 검토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영문 안내문안의 최종 감수를 위해 국립국어원, (지역) 국어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내문안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키포인트

1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1.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2. 문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형태나 크기 규모 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4.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하면 풀이하거나 주석을 단다.
5.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넣지 않는다.



•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자연암석을 반원형으로 다듬은 후 돌을새김으로 부처를 새긴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로, 높이는 1.37m이다. 머리의 큼직한 육계(肉髻)는 이례적으로 2단으로 하였고, 소발(素髮)은 둥글며 아담하게 표현되었다. 수

인(手印)은 악마를 항복시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다. 볼룩한 뺨, 크지 않은 코, 작은 입, 어깨까지 늘어진 귀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어깨는 넓지만 가슴은 두텁지 않다. 틀어 앉은 하체는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크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자세와 얼굴, 법의(法衣)의 모양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하지만, 법의의 주름이 사실성이 떨어지고 가슴이 평평하다는 점에서 힘이 빠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 하대의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나빠요?

육계, 소발, 수인, 항마촉지인 등 일반인에게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다.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례적으로', '두텁지 않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 문장이 평이하지 않다. '볼룩한 뺨, 크지 않은 코, 작은 입, 어깨까지 늘어진 귀~', '틀어 앉은 하체는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크게 표현되었다'와 같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고 있으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다.



• 여수 진남관

진남관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휘소로 사용한 진해루가 있던 자리에 삼도수군통제사 겸 수군절도사 이시언이 1599년 건립했다.

진남(鎭南)은 '남쪽왜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건물은 숙종 때 화재로 불에 탄 2년 뒤인 1718년 수군절도사 이제면이 이순신 전사 120년이 되는 해를 기려 정면 15칸, 측면 5칸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수공립보통학교 등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1953년 보수공사중에 발견된 진남관 중건기의 글씨는 이제면이 쓴 것이다.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의 면모가 서려 있는 핵심 유적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방 관아 건물 중에서 가장 크며 위용이 넘친다. 진남관 앞에 있는 돌기둥 2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있을 때 수군들의 밤 훈련 시 불을 밝히던 시설이다. 4개가 있었으나 2개만 남아 있다



학술적인 건축물 설명보다는 진남관의 독특한 특징과 의미, 역할 등 객관적 사실을 충실히 담았다. 문장도 길지 않고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었다.

2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1. 설화나 전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2. 재미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추가한다.



● 부여 구드래 나무

구드래는 부소산 서쪽 기슭 백마강가에 있는 나무터 일대를 말한다. 삼국유사에 백제왕이 왕흥사(王興寺)에 갈 때 사비수(泗沘水) 언덕 바위에 올라 부처님을 향하여 절을 하면 그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져서 자온대(自溫臺)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전한다. 구드래라는 지명도 자온대에서 유래한 듯하다.

왕흥사는 600년(법왕 2년)에 세운 대규모의 절로 구드래 나무 건너 울성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사비수는 백마강을 가리키는데, 부소산 동쪽 천정대 앞 범바위에서 세도면 반조원리에 이르는 금강 일부를 말한다. 백마강 양쪽에는 왕흥사를 비롯하여 호암리 절터, 부소산성, 부여 나성 등 백제 유적이 많이 분포해 있다.



이야기로 시작해 안내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야기 속 낯선 명칭을 아랫단에 친절하게 설명했다.

옥의 티~ 이야기 속 낯선 지명이 읽는 것을 방해한다. 왕흥사, 천정대, 호암리 절터, 부소산성도 '구드래 일원'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유교와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단풍이 아름답고 병충해가 없어 정자나무 또는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는 나무이다.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8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가 26m, 둘레가 10m에 이르는 큰 나무로, 지상 2.5m 부근에서 8개의 큰 가지로 갈라져 부챗살처럼 퍼져 장대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는 나무이다.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나무로 열매를 맺지 않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 나무에 열매가 대단히 많이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이 익어 떨어진 열매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자,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한 노승이 나무 줄기에 부적을 써서 붙였더니, 그 때부터 이 나무는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중 오래 사는 나무는 대개가 암나무인데,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나무로 장수하고 있어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안내문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전설을 자연스럽게 잘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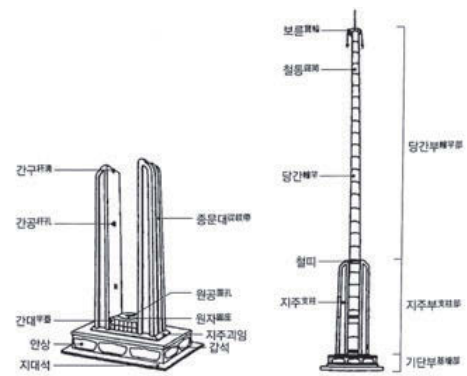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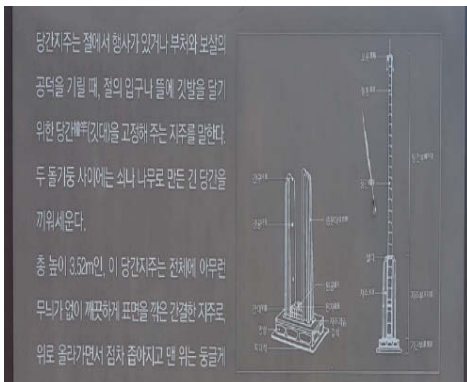
옥의 티~ 문장이 너무 길다. 두세 문장으로 나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나무의 나이와 크기는 매년 바뀌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③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다.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단,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 배열에 어울리도록 한다.



●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왜
좋아요?

지주 사이에 당간을 어떻게 끼워 세웠는 지, 당간지주의 구조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설계도를 넣어 이해를 도왔다.



- 공주 장선리 유적



왜
좋아요?

**왜
좋아요?**
발굴 조사 때 출토된 유물 사진, 유적지의 규모나 크기를 헤아릴 수 있는 항공사진, 여러 개의 토실을 연결하여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단면도 등 구체적인 그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4 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

1. 역사적 · 문화적 가치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를 간략하고 쉽게 적는다.
2. 만들어진 배경과 기능이나 용도를 설명한다.
3. 관련 인물과 명칭의 유래를 설명한다.



●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백제시대 한성기 지방세력의 실체를 드러낸 공주 수촌리 고분군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2003년 농공단지 조성부지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주거지와 무덤이 확인되었다. I 구역은 청동기시대 집자리, 초기철기시대 무덤, 백제시대~조선시대 무덤이 확인된 곳으로 초기 철기인들이 사용하였던 세형동검을 비롯한 위세품과 생활용기가 대거 출토되었다. II 구역은 토광묘에서 횡혈식 석실묘에 이르기까지 백제시대의 다양한 무덤이 확인된 곳으로 무덤 내부에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 환두대도, 중국제 자기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은 무덤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로, 백제시대 지방사회의 최상급 지배세력이었을 것으로 확인된다.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한성백제가 웅진(공주)으로 천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무령왕릉 이후 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유적으로 인정되어 2005년 3월 3일 사적 460호로 지정되었다.



백제 상류층의 삶과 백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정문화재로서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옥의 티~ 토광묘, 횡혈식 석실묘, 환두대도 등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설명이 없다. 주석을 달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보문사 향나무

큰 바위틈에서, 마치 용이 용트림을 하고 있는 듯한 형태의 이 향나무 나이는 약 7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에는 죽은 것 같이 보였으나 3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기묘한 형태와 오래된 나무로서의 생물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이 쉽게 잘 읽힌다.

5 역사적 사실, 문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1.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문화재청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및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2.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은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3. 지역의 학생, 교사,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안내문이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읽히는지 검토받는다.



●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

문화재안내판은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 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	세분류	설치기준	담겨야 할 정보	설치사례
해설안내판	종합 안내판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전체 지도 연표 	경복궁, 용건릉, 화엄사, 계양산성, 고인돌군 등
	권역 안내판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권역 지도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자경전, 용릉, 건릉, 화엄사 각황전 등
	개별 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경복궁 근정문 및 행각, 용릉 개비자나무, 계양산성 집수정, 화엄사 각황전 돌항아리, 개별로 지정된 석탑 등
기능성 안내판		길 찾기(동선유도 · 편의시설 등), 금지 · 주의, 공공(픽토그램 등), 정보알림판, 임시		

●출처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참고

문화재안내판의 종류와 설치사례



영주 소수서원(사적 제55호) 종합안내판



창덕궁 통명전과 양화당 권역안내판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406호) 개별안내판

시민자문단 구성 · 운영 가이드라인

- **기본방향**: 자문 사안별로 적합한 비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구성단위**: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
- **구성인원**: 분야별 자문위원 3~10명 내외
- **운영방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국민들에게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의 시민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함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행
 - 기초 지자체 단독으로 구성 ·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광역에서 통합 · 운영
 -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 · 운영
 - 문안이나 디자인 변경 없이 기존 안내판 단순 교체 등의 경미한 사안이나 시급성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방식 운영 가능
 - 지자체별로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문단이나 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사안별 비상설 자문단 활용으로 회의 시 마다 해당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 운영 가능

구 분	참 여 분 야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해설사, 문인,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감수	국문	국립국어원, 전국의 국어문화원
	영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지역주민 참여방법 및 검토사항**
 - **참여방법**: 안내문안 작성 시 직접 참여하거나 이미 작성된 안내문안에 대한 사전검토 등
 - **검토사항**
 - 안내문안에 지나치게 많은 문화재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지?
 - 문화재가 만들어진 배경, 용도나 유래 등 문화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는지?
 - 그림이나 이미지가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 기타 문화재 안내판 관련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등 의견 제시 등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읽기 쉬운 안내판

함께하는 안내판

외국인도 읽기 쉬운 안내판

일러두기

유형별 문화재



성곽시설(읍성, 산성, 토성, 성터 등), 국방시설(봉수대, 포대 등)



자연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등)



불교문화재(불상, 사찰, 암자, 불탑, 사찰지)



민속문화재, 개인 건조물(종택, 가옥, 누정 등)



향교 및 서원, 유교 관련 유물



비석류, 개인 묘, 고분군 등



근·현대시설



선사시대 유적지·요지 등 발굴터



무형문화재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자문위원



고건축 전문가



역사학자




출판사 대표



공공언어 전문가


읽기 쉬운 안내판

우리 지자체만의 안내판 실태조사 노하우 (대전) ... 20



 옹호동유적 · 비래동고인돌 · 태실


유형별 문화재의 특징 뽑아내기 (경남 함안) ... 32


 함안 성산산성  함안 남문외 고분군

 함안 덕연서원



어려운 자연유산 풀어 설명하라 (강원 태백) ... 46


 태백산 천제단  태백 장성이중교

 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고도(古都)문화재의 가치를 담자 (충남 부여) ... 58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부여 쌍북리 요지



 용정리사지

그림과 도면을 적극 활용하라 (경기 안양) ... 68

 삼막사 사적비

 삼막사 삼층석탑 · 석수동 마애종

안내판 디자인을 통일하라 (경기 양평) ... 78

 정창손 묘역 석물 일괄  지평리 삼층석탑

1. 개요



■■■ 대전광역시의 안내판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시 자체예산으로 외관이 훼손되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안내문안들을 정비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매년 3~5점 문화재 안내판이 개선되었다. 대전시의 이번 안내판 정비 사업은 국비지원에 의한 사업과 시 자체예산에 의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안내판을 교체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건,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5건 등 8건이다.

■■■ 대전시는 **안내판 상태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시민자문단 운영 및 안내문안 작성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었다. 문화재 안내판 관련 예규와 문화재 안내문안 및 디자인에 관한 사례집, 용례집, 가이드라인, 외국어표기법 등을 참고하면서, 객관성 · 가독성 · 문장 난이도 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으로 문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대전 회덕 동춘당(보물 제209호)

대전 소대현 · 호연재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90호)

대전 동춘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용호동유적(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2호)



구성동산성(대전광역시 기념물 제6호)



태실(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6호)

비래동고인돌(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3호)

권이진의 묘역(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3호)

대전광역시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3. 핵심 성공요인

- ➔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노하우 활용
- ➔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구성
- ➔ 역사교사와 함께 한 문안 감수작업으로 안내문안을 보다 쉽게 집필

■■■ 2018년도에 실시한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 또는 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59건, 무형문화재 24건을 제외한 141건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재 안내판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 작업은 문화재 안내판 사업담당자와 관내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되, 산성문화재와 같이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돌봄사업단의 도움을 받았다. 대전광역시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실태조사는 2019년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5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물리적으로 훼손된 안내판을 우선 교체하기로 하였다.

■■■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안내판 정비사업의 핵심절차인 **‘시민자문단’ 또한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문화재 안내판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내판 정비작업을 위한 시민자문단을 나름대로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자문위원들은 안내문안 및 외국어 번역 감수 등에 관한 사항, 안내판 개선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안내판과 디자인,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였다.



■ ■ ■ 매년 실시하는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전시는 연도별 안내판 정비실적과 교체필요 안내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하여 정비된 안내판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내판의 정비 시기, 디자인, 보존상태, 설치필요 여부 등을 기록해둠에 따라 관내 전체 안내판의 관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민원대응이나 후임 담당자의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편리하다.

대전광역시 문화재안내판 관리목록

연도별(정비계획)	문화재명	수량	상태 및 의견
2018	둔산선사유적지(개별)	6	
2018	백운루	1	
2018	취백정	1	
2018	진잠향교 대성전	1	
2019	대전 회덕 동춘당(국가지정)	1	개별1 설치 필요
2019	대전 동춘당 종택(국가지정)	1	개별1
2019	대전 소대현호연재 고택(국가지정)	1	개별1
2019	태실(석함)	1	갈라지고 노후 됨.
2019	용호동 구석기 유적	1	노후
2019	노은동유적	1	심각
2019	구성동유적	1	심각
201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1	오류민원
2020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1	신규
2020	만회집탄옹문집판목	1	옛날 스타일
2020	고흥류씨정려각 및 비	1	옛날 스타일
2020	수운교 도솔천(수운교 석종)	1	함께 써 있는데 분리해야 함
2020	정생동 백자가마터	1	심각
2020	(수운교 도솔천)수운교 석종	1	함께 써 있는데 분리해야 함
2020	수운교 도솔천	1	함께 써 있는데 분리해야 함
2020	갈현성	0	구형, 주소있지만 깨끗, 접근 어려움
2020	견두산성	0	구형, 주소있지만 깨끗, 접근 어려움
2020	계현산성	0	구형, 주소있지만 깨끗, 접근 어려움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일부 발췌

■■■ 또한, 대전시는 안내문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자체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해왔다. 이번 안내판 정비사업의 목표가 '시민들과 함께 읽기 쉬운 안내판 만들기'인데, 대전시의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기준에서는 이미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 기준은 보도자료 쓰는 방법을 참고하여 수립했다. 이를테면, 안내문안에 객관적 사실을 담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한다든가, 문화재 형태나 크기, 구조 등과 같이 관람객의 시선에서 알기 어려운 내용은 설명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 안내판
작성기준**

- ➔ 핵심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 전달
- ➔ 문화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 작성
-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 순서 결정
- ➔ 문화재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
- ➔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
- ➔ 외국어 병기는 영문으로 한정, 로마자 표기법 등 규정 준수
- ➔ 작성 문안은 문화재 안내판 시민자문단 자문에 따라 확정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 자료, 일부 발췌



■■■ 이번 사업에서 대전광역시의 시민자문단은 **각 전문분야별 시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들은 대전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문화재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문화재나 관련 인물과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수정되는 안내문안에는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집필할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안내문안 작성주체 및 시민자문단 구성

구분		소속(이력)	비고(분야)
자문위원	전문가	충남대 연구교수	조선사
		중부대 교수	전통건축
		전 충남대 교수	고고학
	지역주민	대전 대신고 교사	시민(역사교사)
	공무원	대전시 학예연구관	전체
집필진	국문	대전시 학예연구사	
	영문	한국학 중앙연구원	
감수	국문	한남대 국어문화원	
	영문	한국학 중앙연구원	

■ ■ ■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의 다양한 원칙 가운데, 대전시는 안내문안에 검증된 역사적 사실만을 담으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문화재의 기존 문안에서 출발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온 안내판의 기능을 살리되,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거나 최근의 연구경향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우선, 관내 학예연구사가 기존 문안을 수정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초안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문위원들과 유선회의를 진행하여 보완했다. 문화재 안내판 사업 담당자는 이 과정을 통해 수정된 문안을 **보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문장을 간략하게** 다듬었다.



■ ■ ■ 대전시의 안내문안은 역사학 전공자나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작성한 안내문안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한눈에 문화재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문안 작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사교사에 감수작업을 의뢰했다.

■ ■ ■ 많은 한자어를 쉬운 구문으로 풀어쓰다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 읽기 힘들어지거나 어색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러한 문안들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풀어 쓰기보다는 담당자가 각주를 추가하거나 제한적으로 한자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택(宗宅)·이축(移築)·석함(石函) 등의 어려운 한자어가 ‘양반가’, ‘ 옮겨 지은 것이다’, ‘돌로 만든 상자’ 등의 쉬운 한글로 수정되었다. 또한, 재실·지석(誌石)·신위(神位) 등의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는 각주로 설명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대전광역시 ‘읽기 쉬운’ 안내문안 작성 사례

종택(宗宅)	▶	양반가
이축(移築)	▶	옮겨 지은 것이다
석함(石函)	▶	돌로 만든 상자

■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문안 작성

■■■ 시민자문단 회의 중 외국어 안내판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자문위원들은 문화재 안내판에는 전문영어가 많이 쓰이고, 안내문안을 읽는 외국인들이 한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안내문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설명에는 전문용어가 많고, 나라 간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해하기에 더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영문 번역용 원고를 따로 작성하였다. 영문 번역용 원고는 국문 문안보다 더 간략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문용어와 외국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경우, 그 차이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비래동 고인돌 영문 번역용 원고 작성 시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거석기념물(megalith)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문화재청에서 2019년도의 안내판 정비사업 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영어감수를 하도록 한 절차도 대전광역시 영문안 작성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비래동고인돌(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3호)의 영문작성용 한글 원고

국문 문안	영문 번역용 한글 원고
<p>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무덤이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 시작하여 함경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과 일본 규슈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전남 지방에서만 약 2만 기가 넘는 고인돌을 확인하였다.</p> <p>1997년 경부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이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이때 고인돌 3기를 발견하여 발굴·조사하였다. 이 고인돌들은 주검을 묻는 매장부가 땅속에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이 얹혀 있는 남방식 고인돌이다…….</p>	<p>고인돌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무덤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동북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데, 유럽의 돌멘이 거석기념물(megalith)인데 <u>비하여, 이 지역의 고인돌은 무덤이다.</u> 주검을 묻는 시설을 땅속에 두는 것을 남방식, 땅 위에 두는 것을 북방식이라고 부른다. 비래동에서는 남방식 고인돌 3기가 조사되었다…….</p>

4. 추진성과



용호동유적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2호

분류 유적건조물 / 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 / 육상유물산포지 / 선사유물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41-3, 41-5
시대 선사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기

① 용호동 구석기유적

② 지정종목
잘못 표기

② 지정번호: 기념물 제42호

③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③ 주소 표기 불필요



④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전문적 내용
전달

④ 용호동 유적은 4개의 문화층으로 이루어졌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은 지금으로부터 10~4만년 전 사이의 중기 구석기시대와 4~1만년 전 사이의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가늠된다. 각 문화층에 따라 ⑤ 석기의 제작기술과 구성관계는 매우 특징있게 나타난다.

용호동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대전 지역에 이미 10만년 전부터 구석기인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⑤ 문화재
가치표현 부족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기

① 용호동유적 (龍湖洞遺蹟)

② 지정종목
오타 수정

②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2호

③ (주소 삭제)

③ 주소 삭제

④ 문화재의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

④ 용호동 유적은 금강과 용호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자리한 구석기시대 중기-후기에 걸친 유적이다. 해발 40-45m에 해당하는 구릉 경사면에서 ⑤ 4개의 문화층이 발견되었는데, 4(10-7만년 전)-3(7-4만년 전)문화층 4-3문화층(10-4만년전)이 중기, 2(4-1.8만년 전)-1(1.8-1만년 전)문화층 2-1문화층(4-1만년전)이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한다. 1·3문화층에서 석기 제작터가, 1문화층에서는 불뎀 자리가 확인되었다.⑤ 약 4000여점의 편석기가 1-4개의 문화층에서 나왔는데, 대전지역의 중기-후기 구석기시대 역사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준유적이다. 특히 3문화층에서는 우리 나라 중기 구석기 유적에서는 처음으로 *갈린석기와 뿌리가 달린 스펀지찌르개가 나왔다.

⑤ 출토유물을 인용, 설명하여 문화재 가치 부각

대전 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약 10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한남대 박물관에서 1999-2001년에 조사·발굴하였다.

용호동유적 | 龍湖洞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Yongho-dong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2호
Daejeon Monument No. 42

용호동 유적은 금강과 용호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자리한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에 걸친 유적이다. 해발 40-45m에 있는 구릉 경사면에서 문화층 4개가 발견되었다. 4·3문화층 10-4만 년 전이 중기, 2·1문화층 4-1만 년 전이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한다. 1·3문화층에서 석기 제작터가 확인되었고 1문화층에서는 불 뎀 자리가 확인되었다. 편석기 약 4000여 점이 1~4개의 문화층에서 나왔는데, 대전 지역의 중기~후기 구석기시대 역사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준 유적이다. 특히 3문화층에서는 우리 나라 중기 구석기 유적에서는 처음으로 갈린석기*가 나왔고, 뿌리가 달린 스펀지찌르개도 나왔다.

대전 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약 1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한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조사하고 발굴하였다.

*갈린석기: 의도적으로 갈아서 석기 형태를 만든 갈린석기와 달리, 사용 중에 갈린 석기

This archaeological site is located on the hill at the confluence point of Yonghocheon Stream and the Geumgang River. Among the archaeological sites discovered in the Daejeon area, this site is the most ancient. It is evidence that people had already settled here as far back as 100,000 years ago and is considered a type site of the Paleolithic history in the Daejeon area.

This site was discovered in 1999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water purification plant. Right after the discovery and up until 2001, an excavation survey was conducted, revealing two cultural layers dating to 100,000-40,000 years ago and another two levels dating to 40,000-10,000 years ago. A stone tool production site, a hearth made of gravel, and more than 4,000 pieces of Paleolithic stone tools were unearthed from this site.

⑥ *갈린석기: 간석기와 달리 의도적으로 갈아서 석기형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용중에 갈린 석기.

⑥ 각주를 활용해 어려운 단어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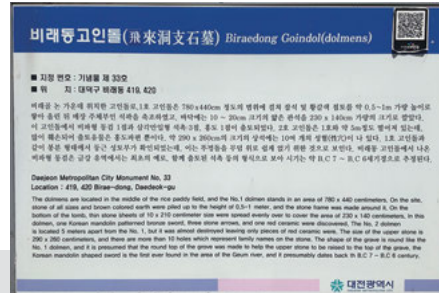
비래동고인돌 (飛來洞支石墓)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3호

분류 유적건조물/무덤/무덤/지석묘

소재지 대전 대덕구 비래동 419번지, 420

시대 선사시대



비래동고인돌(飛來洞支石墓)

지정 번호 : ① 기념물 제33호

② 위치: 대덕구 비래동 419, 420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③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 놓은 탁자식과,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④ 비래동 비래골 마을회관 앞 논에 고인돌 2기가 있고, 맞은편 구릉 정상부에 1기의 고인돌이 있다. 1호 고인돌은 덮개돌의 절반이 마치 입석처럼 세워져 있다. 2호 고인돌은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9m, 너비 2.6m이고 표면에는 알구멍<성혈(性穴):풍년을 기원하거나 자식남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든 구멍> 16개가 불규칙적으로 표현되었다.

① 지정종목 잘못
표기

③ 관광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형태,
구조 설명

② 주소 기입
불필요

④ 문화재 가치
설명 능력,
스토리텔링
기법 없음

비래동고인돌 飛來洞고인돌

① 지정종목
정확히 표기

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3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 삭제

③ 한반도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문화재인
'고인돌'의
가치 설명

③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무덤이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 시작하여 함경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과 일본 규슈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전남 지방에서만 약 2만 기가 넘는 고인돌을 확인하였다.

1997년 경부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이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이때 고인돌 3기를 발견하여 발굴·조사하였다. ④ 이 고인돌들은 주검을 묻는 매장부가 땅속에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이 얹혀 있는 남방식 고인돌이다.

④ 문화재
구조를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

⑤ 출토유물을
인용, 설명하여
문화재 가치
부각

⑤ 1호 무덤에서는 요동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을 비롯하여 돌화살촉과 붉은간토기가 나왔는데,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이른 청동기시대 (기원전 8-9세기)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고인돌에서 비파형동검이 나온 예는 호남지방에서

많이 보이나 비래동 고인돌은 그런 예 중에서 가장 시기가 빠르고 가장 북쪽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중요하다.

⑥ 덮개돌 표면에는 작은 구멍性穴들이 있는데 풍년을 빌거나 아들을 낳기 위해 빌었던 의식의 흔적이다.

⑥ 관람객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
용도 설명

비래동 고인돌 | 飛來洞 高人돌 Dolmens in Birae-dong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무덤이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 시작하여 함경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과 일본 규슈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전남 지방에서만 약 2만 기가 넘는 고인돌을 확인하였다.

1997년 경부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이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이때 고인돌 3기를 발견하여 발굴·조사하였다. 이 고인돌들은 주검을 묻는 매장부가 땅속에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이 얹혀 있는 남방식 고인돌이다.

1호 무덤에서는 요동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을 비롯하여 돌 화살촉과 붉은 간토기가 나왔는데,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이른 청동기시대(기원전 8-9세기)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고인돌에서 비파형동검이 나온 예는 호남지방에서 많이 보이나 비래동 고인돌은 그런 예 중에서 가장 시기가 빠르고 가장 북쪽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중요하다.

덮개돌 표면에는 작은 구멍性穴들이 있는데 풍년을 빌거나 아들을 낳기 위해 빌었던 의식의 흔적이다.

A dolmen is a megalithic monument constructed during the Bronze Age (800-300 BCE). Dolmens are found in parts of Europe, Africa, and Asia. The Korean Peninsula ha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dolmens in the world.

There are three dolmens in the Birae-dong area, which were excavated in 1997 during road construction. These dolmens were built by placing a large capstone atop an underground stone tomb chamber.

Under one of the dolmens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cluding a mandolin-shaped bronze dagger, stone arrowheads, and red burnished pottery were found.

The capstones of these dolmens have small holes, called cupmarks, on the surface which were used in rituals held to ask for a good harvest or to conceive a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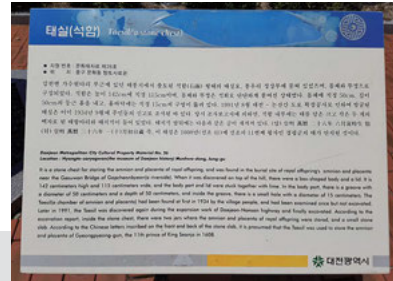
태실(석함)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6호

분류 유적건조물/인물사건/인물기념/탄생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대전역사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태실(석함)

①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26호

② 위치 : 중구 문화동 향토사료관

① 지정종목 잘못
표기

⑤ 관람객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⑤ 태(胎)를 봉안하는
곳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③ 이 태실은 갑천변 가수원다리 부근에 있던 태봉지에서 출
토된 ⑤ 석함(石函) 형태의 태실로, 봉우리 정상부에 묻혀 있
었으며,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었다. 석함은 높이 142cm에
직경 115cm이며, 몸체와 뚜껑은 석회로 단단하게 붙여진 상
태였다.

1991년 8월 대전 - 논산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발굴된
태실은 이미 1934년 9월에 주민들의 신고로 조사된 바 있다.
석함 내부에는 태를 담은 크고 작은 두 개의 백자로 된 태항
아리와 태지석이 들어 있었다. ⑤ 태지석 앞뒤에는 다음과 같
은 글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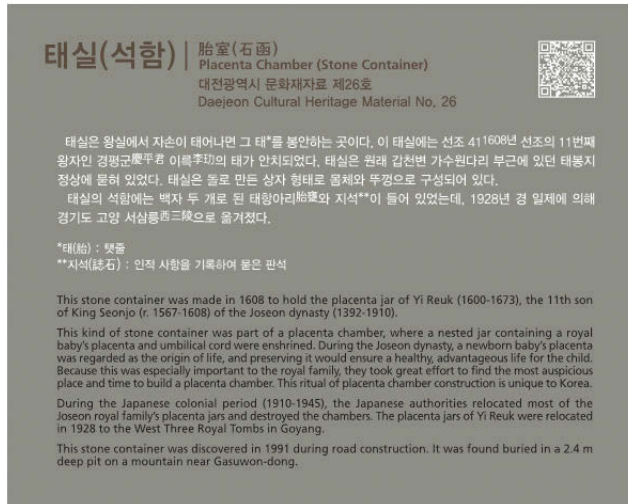
④ (앞) 皇明 萬曆 二十八年 六月寅時生 胎
(뒤) 皇明 萬曆 三十六年 一(十)月初日藏

즉, 이 태실은 1608년(선조 41)에 선조의 11번째 왕자인 경평
군의 태가 안치된 것이다.

② 주소 기입
불필요

③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구조
설명. 누구의
태실인지 등
관람객이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닌 외관
묘사에 치중

④ 관람객이
알기 어려운
정보로 흥미를
떨어뜨림



① 지정종목
정확히 표기

태실(석함) 胎室(石函)

①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6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 삭제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봉안하는 곳이다. ③ 본 태실에는 1608년(선조 41) 선조의 11번째 왕자인 경평군(慶平君) 이록(李祿)의 태가 안치되었다. 태실의 원래 위치는 갑천변 가수원다리 부근에 있던 태봉지의 정상부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④ 태실은 돌로 만든 상자 형태로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관람객이
알고
싶어할만한
정보를 먼저
배치
④ 문화재의
구조를
간결하게
설명

⑤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사실 전달

⑤ 태실의 석함에는 두 개의 백자로 된 태항아리(胎甕)와 지석** (誌石)이 들어 있었는데, 1928년 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졌다.

⑥ *태 : 뱃줄

**지석 :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묻은 판석

⑥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보 제공

1. 개요



■ ■ ■ 경남 함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지 오래되거나 물리적 훼손이 심해 문안을 읽기 어려운 안내판과 오타자 및 내용 오류가 있는 안내판을 우선 정비하였다. 이번에 안내판이 정비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8건, 경상남도지정문화재 6건 등 전체 14건이다. 정비사업은 2019년 3월부터 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와 함께 추진하였다. 연구팀은 우선 함안군 내 지정문화재 66건의 현황 및 연혁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안내문안을 작성했다. 연구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과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안내문안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함안 성산산성 (사적 제67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제319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보물 제71호)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 제159호)

원효암 칠성각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5호)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0호)

함안 무기연당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칠원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1호)

함안 덕연서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



함안 남문의 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226호)

함안 군북지석묘군 (경상남도 기념물 제183호)

함안 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



함안 가야리유적(사적 제554호)



3. 핵심 성공요인

- ➔ 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의 전문성 활용
- ➔ 안내문안 작성을 위해 고문서기록, 구술채록자료, 발굴자료 등 다양한 자료 참고
- ➔ 시민자문단과의 협력으로 안내문안을 좀더 쉽게 집필

■ ■ ■ 경남 함안군은 2019년 3월부터 3개월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와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 정비·작성’용역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과업 내용은 함안군 일대 문화재 안내판 현황조사, 문화재에 얹힌 이야기자원을 활용한 국문/영문 문안 작성, 시민자문단 검토, 국문/영문 문안 감수 등이었다. 함안군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는 **역사학 전공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은 문화재 정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를 집약적으로 안내판에 정리할 수 있었다. 즉, 고문서 기록, 구전설화, 발굴조사결과 등을 수집하여 문화재마다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로부터 안내판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여 1차 문안을 집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성된 안내문안에 어울리는 안내판 디자인도 제안하였다. 1차적으로 안내판 집필작업이 끝나면 시민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수정작업을 하였다. 이후 국문은 울산대 국어문화원에, 영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감수를 거쳐 최종 문안을 완성하였다.



경남 함안군
2019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
정비 · 작성 용역

▷사업기간: 2019. 3. ~ 6. (완료일: 2019. 6. 26.)

▷사업비: 18,335천 원(군비 100%)

▷수행기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내용

- 관내 지정문화재 66개소의 현황 및 연혁 조사
(조사항목) 안내판의 상태 조사(크기, 재질, 설치 수량, 위치, 안내판 교체필요여부 등)
문화재에 얹힌 전설이나 설화 및 공인된 역사 중심으로 조사
- 관내 지정문화재 안내판의 안내문안 정비 및 작성 (국문, 영문)
(영문안내판의 경우, 직역보다는 의역, 발췌번역)
- 시민자문단 검토
- 작성된 안내문안에 어울리는 안내판 제안



■■■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안내판 정비과정을 예로 들면, 우선 산성에 대한 문화재 설명정보를 고문서 기록, 구전설화,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기초로 1차적으로 안내문안을 작성했다.



함안 성산산성 관련 기본정보 수집

(고문서 기록 수집)

*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함주지(咸州誌)』에는 가야고성(加耶古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전설화 수집)

*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용감하게 싸우던 한 장군이 전쟁에 패했음을 원통히 여겨 울면서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부터 장군을 본 사람도 없으며 장군의 행적이나 사후의 흔적 등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함안의 구전설화, 93>

(발굴조사결과 수집)

* 성벽의 상부가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나, 1991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발굴조사에서는 납작하게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 전체 길이 1.4km 성벽은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여져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긴 타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동쪽과 남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조사되었고, 성안에서는 저수시설과 4개 여의 건물터도 확인되었다.

* 발굴조사에서는 주로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신라기와, 토기편, 목제품, 과일씨 등이 출토되었고, 동문터 안쪽에서 출토된 245점의 목간(木簡)은 산성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함안 성산산성 안내문안 작성

성산산성은 함안 성산(139.4m) 정상 부분에 있는 산성이다. 성벽의 윗부분이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1991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납작하게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전체 길이가 1.4km이고,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았는데 그 모양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타원형이다. 동쪽과 남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발견되었고 성의 안쪽에서는 물을 저장하던 시설과 건물터 네 곳 정도가 확인되었다.

성산산성은 『여지도서*』와 『함주지**』에 가야고성(加耶古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산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신라군에 맞서 싸우던 장군이 전쟁에 진 것을 원통해 하며 울면서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장군을 본 사람도 없고 장군의 행적이나 사후의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산산성에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진 아라가야 장군의 슬픈 이야기가 전한다.

성산산성을 발굴할 때 목제품, 과일의 씨와 함께 신라 시대 유물인 신라 기와, 깨진 토기 조각이 나왔다. (후략)

■■■ 이와 같은 안내문안 작성 과정에서 연구팀은 규모 면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산성 문화재의 특징에 따라, 관람객들이 문화재 곳곳을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을 안내판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매장문화재 특성상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사실들이 밝혀진다는 점을 안내문안에 담을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 안내판에는 산성에 얹힌 설화나 전설이 빠져있어서 산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관람객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전했다.



안내문안 작성 및 안내판 제작 관련 연구팀 의견 정리

- * 산성은 복합 문화재 유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여러 번의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실체를 밝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산성에 대한 정보량도 상당히 많다. 안내판으로 산성의 정보를 모두 다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안내판 제작시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인용 안내판’과 발굴내용을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용 안내판’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 * 현 안내판에는 설화나 전설 부분이 빠져 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설화 등을 통해 좀 더 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 산성이라는 유적의 특성상 안내판 위치와 산성입구 주소를 각각 유적 주소로 표기할 필요 있다.
- * 새로운 안내판에는 주변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설치한 안내판의 산성도면 및 사진을 활용할 필요 있다.



- * 성문 및 전체 조감도에 맞게 산성 내 각 위치에 표지석 혹은 표지판이 있는 것이 문화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연구팀의 작업으로 마련된 안내문안은 시민자문단의 검토과정을 통해 보다 읽기 쉬운 문안으로 재탄생했다. 시민자문단은 내용상 이해가 안되거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의견을 연구팀에 전달했다. 시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시행하는 문화재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함안군 시민자문단 구성

- 전문가 2인 (창원대 사학과 교수,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장 등)
- 역사에 관심많은 지역 주민 3인
고교 역사교사, 함안군 문화관광해설사(국어교사 출신), 중학교 3학년생
- 창원대 사학과 강사
- 함안군청 가야사조사연구담당 학예사



전문가 2인



지역주민 3인



창원대
사학과 강사
(용역수행자)



함안군 학예사

■■■ 시민자문단 구성원의 연령과 계층을 다양하게 구성함에 따라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대송리 늪지식물 문안에 외래종 식물이름이 나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중학생 자문위원은 제시한 초안이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방식으로, 건물의 구성 · 크기 · 위치 · 전문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문안 등을 수정할 수 있었다.

■■■ 또한, 사업담당자는 전문가가 작성한 문안이라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역사적 사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함안군 무기연당 문안 초안에는 “이인좌의 난 당시 군사들이 연못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함안군은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 ‘안내문안’ 작성이라는 비교적 전문적인 작업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지자체가 추진하는 문화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었다. 그러나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소 번거로운 편이었다. 또한, 문화재의 지정가치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함안군은 차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문안작성은 전문가에게 맡기되, 그 문안이 관람객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시민자문단을 통해 확인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성산산성 탐방안내

Seongsansanseong Fortress, Haman



1 위치정보

1 서문지 West Gate Site

2 남문지 South Gate Site

3 동문지 East Gate Site

4 두루지 Arduri Ridge

C 관광정보안내 문의처

함안군 가야문화유산 탐방관 010-586-3551

함안군 홈페이지 www.haman.go.kr

성산산성

Seongsansanseong Fortress, Haman

사적 제48호(1963년 1월 9일 지정)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죽림리 가야읍 읍동리
Historic Site No. 48 (Designated on January 9, 1963)



성산산성은 함안 성산(39.4m) 정상 부분에 있는 산성이다. 성벽의 뒷부분이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나, 1991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발굴조사에서는 남쪽하게 다듬은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면적 227,821㎡, 전체 길이가 1.4km로, 성벽은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았는데 그 모양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타원형이다. 동쪽과 남쪽, 서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발견되었고, 성의 안쪽에는 돌을 저장하던 시설과 건물터 네 곳 정도가 확인되었다.

성산산성을 '아라가야'와 '함주'라고 부르거나 '가야고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산에 위치한 성곽에 따르면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신라군에 맞서 싸웠던 장군이 전쟁에 진 것을 함부로 하여 올린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장군을 본 사할도 없고 장군의 행차나 사후의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산산성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진 아라가야 장군의 슬픈 이야기가 전한다.

성산산성을 발굴할 때 목재통, 과일과 씨와 함께 신라 시대 유물인 신라 기와, 깨진 토기 조각이 나왔다. 또한 700년 전의 연못 씨앗도 출토되었는데, 그 씨를 피운 것을 '아라총'이라 한다. 물론 더 안쪽에서는 300여 점의 목간해이 출토되었는데, 이 목간들은 산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1 벽식도사(벽畫) : 영조 33년(1750) 4월 15일(1750)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30여 책으로 만든 전국 읍지.
2 함주지(咸州誌) : 선조 20년(1487)에 정구(鄭球)가 편찬한 함안군 읍지. 가장 오래된 읍지라 하나 없다.

Seongsansanseong is an oval stone fortress encircling the summit of Seongsan Mountain.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mid-6th century by the kingdom of Silla (57 BCE - 935 CE). It measures 1.4 km in perimeter.

Through a series of excavation surveys, gate sites were found in the eastern and southern, western sectors of the fortress, as well as a water storage site and several building sites inside the fortress. Excavated artifacts include roof tiles, pottery shards, and fruit seeds. In particular, a total of 245 wood slips recording various official posts and geographical names of Silla were found from the eastern gate site.

성산산성

Seongsansanseong Fortress, Haman



1 위치정보

1 서문지 West Gate Site

2 남문지 South Gate Site

3 동문지 East Gate Site

4 1호 건물지 Building Site No. 1

5 2호 건물지 Building Site No. 2

6 3호 건물지 Building Site No. 3

7 4호 건물지 Building Site No. 4

8 5호 건물지 Building Site No. 5

사적 제48호(1963년 1월 9일 지정)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죽림리 가야읍 읍동리
Historic Site No. 48 (Designated on January 9, 1963)

성산산성은 함안 성산(39.4m) 정상 부분에 있는 산성이다. 성벽의 뒷부분이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나, 1991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발굴조사에서는 남쪽하게 다듬은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면적 227,821㎡, 전체 길이가 1.4km로, 성벽은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았는데 그 모양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타원형이다. 동쪽과 남쪽, 서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발견되었고, 성의 안쪽에는 돌을 저장하던 시설과 건물터 네 곳 정도가 확인되었다.

성산산성을 '아라가야'와 '함주'라고 부르거나 '가야고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산에 위치한 성곽에 따르면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신라군에 맞서 싸웠던 장군이 전쟁에 진 것을 함부로 하여 올린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장군을 본 사할도 없고 장군의 행차나 사후의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산산성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진 아라가야 장군의 슬픈 이야기가 전한다.

성산산성을 발굴할 때 목재통, 과일과 씨와 함께 신라 시대 유물인 신라 기와, 깨진 토기 조각이 나왔다. 또한 700년 전의 연못 씨앗도 출토되었는데, 그 씨를 피운 것을 '아라총'이라 한다. 물론 더 안쪽에서는 300여 점의 목간해이 출토되었는데, 이 목간들은 산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1 벽식도사(벽畫) : 영조 33년(1750) 4월 15일(1750)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30여 책으로 만든 전국 읍지.
2 함주지(咸州誌) : 선조 20년(1487)에 정구(鄭球)가 편찬한 함안군 읍지. 가장 오래된 읍지라 하나 없다.

Seongsansanseong Fortress, Haman

Seongsansanseong is an oval stone fortress encircling the summit of Seongsan Mountain.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mid-6th century by the kingdom of Silla (57 BCE - 935 CE). It measures 1.4 km in perimeter. Through a series of excavation surveys, gate sites were found in the eastern and southern, western sectors of the fortress, as well as a water storage site and several building sites inside the fortress. Excavated artifacts include roof tiles, pottery shards, and fruit seeds. In particular, a total of 245 wood slips recording various official posts and geographical names of Silla were found from the eastern gate site.

문화재 구역은 붉은 선입니다.

4. 추진성과



함안 성산산성

사적 제67호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성/성곽

소재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시대 삼국시대

함안 성산산성(咸安 城山山城)

사적 제67호

① 주소기입
불필요

①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을 괴산리·가야읍 광정리

② 한자어,
어려운 용어
남용

함안에서 진동으로 가는 도로변의 조남산[139.4m] 정상부를 둘러 쌓은 ② 퇴폐식산성이다. ③ 성벽의 상부가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나, 1991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발굴조사에서는 납작하게 다듬은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 길이 1.4km 성벽은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여져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긴 타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동쪽과 남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조사되었고, 성안에서는 1 개의 우물과 2개여의 건물터가 확인되고 있다.

③ 관람객에게
와닿지 않은
구조와 규모,
형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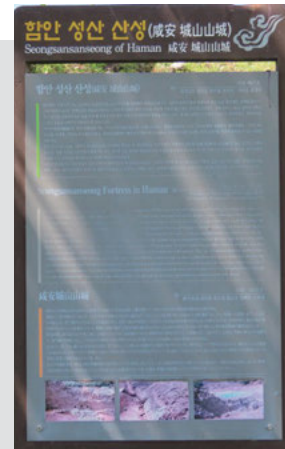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함주지(咸州誌)에는 가야고성(加耶古城)으로 기록되었으나, 발굴조사에서는 주로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신라기와, 토기편, 목제품, 과일씨 등이 출토되었고, 동문터 안쪽에서 출토된 27점의 목간(木簡)은 산성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④ 학술적
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인용

길이 6.5~23.7cm, 너비 1.6~4.4cm의 나무쪽에 먹으로 쓴 목간에서는 신라시대의 지명이나 관등과 함께 피[神]와 소금[鹽]과 같은 물건의 이름도 보인다. ④ 성을 지키던 신라인의 신분 표시로 보는 생각과 다른 곳에서 성산산성으로 반입된 물건들의 꼬리표로 보려는 생각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문자기록이 부족한 우리 고대사의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⑤ 인용출처
명기 누락
어떤 기록
인지 적어
주어야 함.

이상의 발굴결과는 성산산성이 신라시대에 이용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⑤ 그러나 가야의 옛 성으로 전하는 기록도 있고, 안라국[安羅國, 阿羅加耶]에는 백제·신라·왜의 사신들이 모이기도 했던 고당(高堂)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안라국의 중심시설을 신라가 다시 쌓았을 가능성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성산산성

사적 제67호(1963년 1월 21일 지정)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 가야읍 광정리

성산산성

Seongsansanseong Fortress, Haman

사적 제67호(1963년 1월 21일 지정)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 가야읍 광정리
Seongsansanseong Fortress, Haman, 1963



성산산성은 함안 성산(139.4m) 정상 부분에 있는 산성이다. 성벽의 윗부분이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거나, 1991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납작하게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전체 길이가 1.4km이고,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았는데 그 모양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타원형이다. 동쪽과 남쪽, 서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발견되었고, 성의 안쪽에는 물을 저장하던 시설과 건물터 네 곳 정도가 확인되었다. 성산산성은 『여지도서』와 『함주지』에 가야고성(加耶古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산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신라군에 맞서 싸우던 장군이 전쟁에 진 것을 원통해 하며 울면서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장군을 본 사람도 없고 장군의 행적이나 사후의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산산성에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진 아라가야 장군의 슬픈 이야기가 전한다.

성산산성을 발굴할 때 목제품, 과일 씨와 함께 신라 시대의 유물인 신라 기와, 깨진 토기 조각이 나왔다. 또한 70년 전의 연못 바닥도 출토되었는데, 그 배를 떠온 것을 '마리흥반'이라 한다. 흥을 떠 올렸다는 30여 점의 '마리흥반'이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산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1) 여지도서(輿地圖書) : 영조 33년에서 41년(1757~1765)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책으로 만든 전국 읍지.
2) 함주지(咸州誌) : 선조 20년(1587)에 정구(鄭逵)가 편찬한 함안군 읍지. 가장 오래된 읍지라 해마다.

Seongsansanseong is an oval stone fortress encircling the summit of Seongsan Mountain.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mid-6th century by the kingdom of Silla (57 BCE - 935 CE). It measures 1.4 km in perimeter. Through a series of excavation surveys, gate sites were found in the eastern and southern, western sections of the fortress, as well as a water storage site and several building sites inside the fortress. Excavated artifacts include roof tiles, pottery shards, and fruit seeds. In particular, a total of 36 wood slips recording various official posts and geographical names of Silla were found from the eastern gate site.

① 관람객 시선에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규모와 구조 설명

① 성산산성은 함안 조남산(139.4m) 정상 부분에 있는 산성이다. 성벽의 윗부분이 많이 허물어져 흙과 돌을 섞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1991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납작하게 모난 돌들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전체 길이가 1.4km이고, 안쪽의 작은 분지를 감싸면서 높은 곳을 따라 쌓았는데 그 모양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타원형이다. 동쪽과 남쪽의 성벽에서 성문터가 발견되었고 성의 안쪽에서는 물을 저장하던 시설과 건물터 네 곳 정도가 확인되었다.

성산산성은 『여지도서』*와 『함주지』**에 가야고성(加耶古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산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신라군에 맞서 싸우던 장군이 전쟁에 진 것을 원통해 하며 울면서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장군을 본 사람도 없고 장군의 행적이나 사후의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③ 성산산성에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진 아라가야 장군의 슬픈 이야기가 전한다.

③ 설화와 전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④ 관람객 수준에서 이해가능한 수준에서만 발굴성과 기술. 이를 통한 문화재 가치 기술

성산산성을 발굴할 때 ④ 목제품, 과일 씨와 함께 신라 시대 유물인 신라 기와, 깨진 토기 조각이 나왔다. 특히 동문터 안쪽에서는 245점의 목간(木簡)이 출토되었는데, 이 목간들은 산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새롭게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⑤ 각주를 통한 어려운 말 해설

⑤ * 여지도서(輿地圖書): 영조 33년에서 41년(1757~1765)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책으로 만든 전국 읍지.
** 함주지(咸州誌): 선조 20년(1587)에 정구(鄭逵)가 편찬한 함안군 읍지. 가장 오래된 읍지의 하나이다.

↑
② 발굴터 사진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이해도를 높임.

고건축전문가

왜 중요하죠?
각주 및 한자 표기가 잘 돼있어요.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겠어요.

역사학자

왜 중요하죠?
스토리텔링 요소가 있어서 문화재를 이해하기 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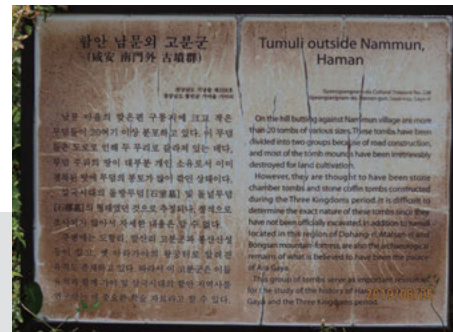
함안 남문외 고분군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

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고분군

소재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7-9번지 외

시대 삼국시대(추정)



함안 남문외 고분군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

①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남문 마을의 맞은 편 구릉지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20여기 이상 분포하고 있다. ③ 이 무덤들은 도로로 인해 두 무리로 갈라져있는 데다, 무덤 주위의 땅이 대부분 개인소유로서 이미 경작된 탓에 무덤의 봉토가 많이 깎인 상태이다.

④ 삼국시대의 돌방무덤(石室墓) 및 돌널무덤(石棺墓)의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식으로 조사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⑤ 주변에는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과 봉산산성 등이 있고 옛 아라가야의 왕궁터로 알려진 유적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군은 이들 유적과 함께 가야 및 삼국시대의 함안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안내판 자체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문안을 읽기 어려움

④ 확인되지 않는 정보 전달

① 주소 기입 불필요

③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 위치 설명

⑤ 문화재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 부족



함안 남문외 고분군

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② 문화재
규모, 가치
설명

② 남문외고분군은 '남문(마을) 밖의 고분군'이라는 의미로, 총 40여기의 흙으로 쌓은 무덤이 모여 있다. 2015년 11호분, 2019년 6호분 발굴조사에서 돌방무덤*과 돌덧널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장신구, 마구, 토기, 갑옷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6세기 아라가야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으로 짐작된다.

③ 구전되는
이야기와
문서 기록에
적힌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여
쉽게 설명

③ 1587년에 지은 『함주지』라는 책에는 우곡리牛谷里 동쪽과 서쪽 언덕에 오래된 무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쪽이 말이산고분군, 서쪽이 남문외고분군을 가리킨다. 『함주지』의 또 다른 글에는 현재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한 하리下里에 동말이山東末伊山, 남문외고분군이 위치한 우곡리에 서말이山西末伊山이 있었다고 한다. '말이산=(우두)머리의 산'이라는 의미로 볼 때 남문외고분군은 조선시대까지 말이산고분군과 함께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 돌방무덤[석실묘(石室墓)]: 깎돌로 널을 안치하는 널방을 만들고 외부로 통하는 널길을 만든 뒤 흙으로 씌운 무덤

** 돌덧널무덤[석곽묘(石槨墓)]: 깎돌이나 판돌을 잇대어 널을 만들어서 쓴 무덤

↑

⑤ 사진과
지도를 활용해
문화재 위치와
구조를 명확히
설명

④ 주석을
활용해 어려운
용어 해설



함안 덕연서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

분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소재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966-1번지

시대 조선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덕연서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

② 주소 기입
불필요

②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③ 1591년[선조24]에 칠원의 사림이 이 곳에서 태어난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1495~1554]을 모시기 위해 동림서원(桐林書院)을 지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다. 그 후 1660년[현종1]에 다시 남고서원[南臯書院]을 지었으며, 1676년에 덕연이라는 ④ 사액(賜額)을 받았다. 대원군 때 헐렸으나 1911년에 덕연서당을 세웠고 1964년에 존덕사(尊德祠)를 지어 다시 주세붕의 향사(享祀)를 받들면서 덕연서원을 복원하였다. 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가운데 3칸은 마루이고 양측 1칸을 방으로 하였다. 강당 뒤에 존덕사가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덕연별사(德淵別祠)에는 이 지방의 선현들인 배세적(裴世績), 주박(周博), 배석지(裴錫祉), 황협(黃挾), 주맹헌(周孟獻) 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③ 서원의 역사에
대해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달

⑤ 관람객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재 구조,
규모, 형태 설명

④ 어려운
용어를
해설없이 사용



함안 덕연서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② '서원'에
대한
문화재를
관람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② 서원은 조선 시대 중기 이후 설립되었다. 유학을 가르치던 사설교육기관이자 유학자들이 중심이 된 마을 자치 운영기구이기도 했다.

③ 덕연서원은 유림들이 주세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인조 19년¹⁶⁴¹에 세워졌고, 숙종2년¹⁶⁴¹에 왕으로부터 '덕연'이라는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1678년에 덕연별사를 따로 지어 청백리배세적과 주박, 배석지, 황협, 주맹헌 등의 선대 유학자를 모셨다. 홍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964년에 존덕사를 지어 주세붕을 받들면서 서원이 복원되었다.

③ 설명 대상
문화재가 다른
서원문화재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지어 설명

④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사'를
설명하여
관람객
입장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문화재 가치
공감할 수
있게 함.

④ 덕원서원의 건물은 교육 공간인 강당, 주세붕의 위패를 모신 존덕사, 지역 선대 유학자의 위패를 모신 덕연별사 등이 있다. 지금도 매년 음력 3월 첫 번째 정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⑤ *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조선 시대의 학자, 문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조선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편찬한 전국지리지.

*** 정일(丁日): 천간의 '정(丁)'자가 들어있는 날.

⑤ 각주 활용

1. 개요



■■■ 강원도 태백시에서 이번 사업으로 안내판을 정비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6건, 강원도 지정문화재 1건 등 전체 7건이다.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경우, 자연유산의 특성상 기존 안내판에는 전문적인 학술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동·식물, 지질, 자연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문용어·외래어·한자어 등은 중등 교육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어려운 문화재 명칭은 어원이나 관람객 또는 지역 주민에게 익숙한 말로 풀어 설명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태백 장성이중교(등록문화재 제111호)

태백경찰서 망루(등록문화재 제167호)

구 태백등기소(등록문화재 제166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검룡소(명승 제73호)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재(강원도문화재자료 제126호)



태백산 천제단(국가민속문화재 제228호)

강원 태백시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3. 핵심 성공요인

- 쉬운 용어, 간결한 문장이 안내문안 작성 제1원칙
- 최근 발표된 학술자료집을 활용해 안내판에 관련 연구경향 업데이트
- 역사학, 지질학, 지역사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 태백시는 이번 사업에서 문화재 안내판에 대상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안내문안에 담되,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원칙인 ‘쉬운 용어, 간결한 문장’을 태백시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 이번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중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자연유산은 동·식물, 지질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안내판에 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인 ‘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천연기념물 제417호)은 문화재 명칭부터 설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연대기 표기나 지질층에 대한 용어는 일반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 안내판에는 고생대 퇴층 구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이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해당 분야 전공자들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이 나열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명칭 가운데 ‘구문소’라는 이름은 ‘구멍’에서 유래했다고 설명을 하는 등 최대한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했다. (55쪽 참조)

■ ■ ■ ‘읽기쉬운 안내판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만,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고, 발굴성
과나 새로운 연구결과를 담은 문안을 집필하려고도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학술자료집을
참고하여, 대상 문화재에 대해 최근의 연구경향이 반영된 문안을 작성했다.



■ ■ ■ 이처럼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읽기 쉬운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 역사전공, 지질전공, 지역사
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구성했다. 시민자문단은 새로운 연구경향 등이 반영된 안내문안의 내
용을 감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시민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디지털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주로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미 작성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태백산 천제단의 문안 중 장군단의 ‘장군’이 누구를 칭하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문화재청 자료를 기준으로 문안을 작성하는 한편, 2020년 예산을 신청한 태백산 천제단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조사된 내용을 문안에 담기로 하였다. 또한, “태백경찰서 망루 설치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망루의 설치목적에 기반을 둔 보편적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문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태백의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같은 경우는 불교문화 전파의 경로와 시기를 추정하는 주요한 자료이므로 내용 삽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태백시는 이처럼 자연유산의 형태, 규모, 역사, 가치 등을 관람객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최신 연구경향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쉬운 언어로 풀이쓰도록 노력했다. 적어도 중등교육 수준 이상의 관람객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삼엽충’ 혹은 ‘퇴적구조’ 같은 용어 등을 사용하여 안내문안이 보다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퇴고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물이나 지질, 지리,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파고 들어야 할 자연유산 안내문안에 대해, 관람객들이 문화재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했다.



태백산 천제단

국가민속문화재 제228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제사유적 / 제사터

소재지 강원 태백시 태백산로 4834-31, 혈동 산87-2 (소도동)

시대 미상

태백산 천제단(太白山 天祭壇)

①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

① 지정종목 오류

② 문화재
가치 설명
부족. 3기로
이루어진
천제단이
어떤 측면에서
민속신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지 기술
부족

② 천제단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설치한 제단이다. 만들어진 시기나 유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 서적에 “신라에서는 태백산을 삼산오악 중의 하나인 북악이라고 하고 제사를 받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태백산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 정상부에 위치한 천제단은 천왕단을 중심으로 북쪽에 장군단, 남쪽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하단(下壇)의 3기(基)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을 쌓아 신역(神域)을 이루고 있다. ③ 이 3기로 이루어진 천제단은 고대 민속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③ 문화재 가치
설명에 대한
근거 부족

④ 문화재
형태, 규모,
구조 설명을
관람객이 알기
어렵게 기술

천왕단(天王壇)

천왕단은 ④ 둘레 27.5m, 높이 24m, 좌우 폭 7.36m, 앞뒤 폭 8.26m의 타원형 계단을 자연석으로 쌓았다. 돌로 만든 단이 아홉 단이라 하여 9단탑이라고도 불린다. 매년 개천절에는 이 곳에서 제사를 받드는데, 중앙에 태극기와 칠성기를 꽂고 주변에는 13⑤천기(天旗)와 28⑤숙기(宿旗)를 세우며 9종류의 제물을 갖춘다. 이 주변의 계곡 일대에는 치성을 드리는 기도처로 사용된 크고 작은 ⑤적석탑과 ⑤석단(石壇)들이 있으며, 함부로 짐승을 잡거나 나무를 꺾는 일을 금하고 있다.

⑤ 한자어 및
어려운 용어
사용

태백산 천제단 (太白山 天祭壇)

① 지정종목 정확히 표기 → ① 국가민속문화재 제228호

③ 축조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관람객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료 중 하나인 '삼국사기' 인용.

② 태백산 천제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제단이다. 천제단은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단을 중심으로 한 줄로 놓여 있다. 천왕단의 북쪽에 장군단이 있고, 천왕단의 남쪽에 하단이 있다.

③ 제단을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태백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으로 섬겨져 제천의식의 장소가 되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 부족국가 시대부터 이곳에서 천제를 지냈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지금은 개천절에 나라의 태평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또 해마다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의 성화에 불을 붙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천왕단 (天王壇)

천왕단은 3기의 천제단 중 ⑤ 가장 규모가 크고 의식의 중심이 되는 제단이다. ⑤ 2m 남짓한 높이로 자연석을 쌓아 남쪽으로 ⑤ 원형 단을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자연석을 쌓아 만든 ⑤ 사각 제단이 있고, 이 위에 작은 비석이 올려져 있다.

이 비석은 대중교가 천왕단을 단군을 모신 장소로 성역화하며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비석에 적힌 '한배감'은 대중교에서 단군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② '천제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안 시작. 관람객이 문화재에 대해 좀더 이해하기 쉬움.

④ 문화재의 현재적 의미 설명

⑤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화재 구조 설명



태백산 천제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제단이다. 천제단은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단을 중심으로 한 줄로 놓여 있다. 천왕단의 북쪽에 장군단이 있고, 천왕단의 남쪽에 하단이 있다.

제단을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태백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으로 섬겨져 제천의식의 장소가 되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 부족국가 시대부터 이곳에서 천제를 지냈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개천절에 나라의 태평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또 해마다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의 성화에 불을 붙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장군단 | 將軍壇 Janggundang Altar

장군단은 천제단에서 북쪽으로 300m가량 떨어져 있는 제단이다. 태백산에서 가장 높은 장군봉에 놓여 있으며 천왕단보다 약간이 작다. 2m 남짓한 높이로 자연석을 쌓아 남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졌다. 내부에는 자연석을 쌓아 만든 사각 제단이 있고, 이 위에 장군대위 비석이 세워져 있다. 2002년에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Janggundang was used to offer a ritual to a general, however, it is unknown who the general is. This altar is 300 m to the north of Cheongdang. It is surrounded by a 3 m high wall, made of uncut stones, in a rectangular shape. In the south of the wall is an entrance altar. Three natural stones are erected like pillars on top of the rectangular al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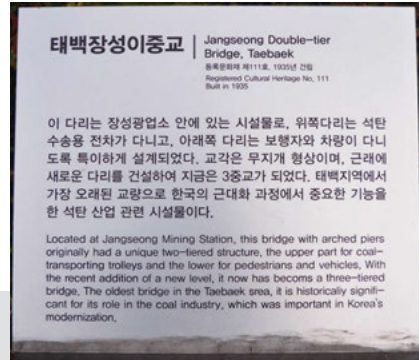
태백 장성이중교

등록문화재 제111호

분류 등록문화재 / 기타 / 공공용시설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내

시대 일제강점기



태백 장성이중교 (太白 長省二重橋)

등록문화재 제111호

① 1935년 건립

이 다리는 장성광업소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위쪽 다리는 석탄 수송용 전차가 다니고, 아래쪽 다리는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도록 설계된 ② 특이한 구조의 교량이다. 교각이 ② 무지개 형상의 구조이며, 근래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어 지금은 3중교가 되었다. ③ 태백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량으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석탄산업 관련 시설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② 문화재 형태, 구조 설명 부족

전체적으로 문화재 형태, 구조, 가치 설명 부족

① 문화재 건조시기
기재방식이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음

③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라는 점 외에 문화재 가치 설명이 부족. 일제강점기 교각 시설이라면 민족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재인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근대화과정에서 중요한 석탄산업 시설물이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마무리함.

태백 장성이중교

太白 長省二重橋

Jangseong Double-tier Bridge, Taebaek

국가등록문화재 제111호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111



태백 장성이중교는 1935년에 만들어진 다리로,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산업 관련 시설물이다. 일제강점기에 자원 수탈의 아픈 역사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태백 장성이중교는 초기에 2중교의 형태로 설계되었다. 위쪽은 석탄을 운반하는 기관차와 광차가 다니고, 아래쪽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도록 건설하였다. 다리를 받치는 기둥은 무지개 모양을 하여 돋보인다. 최근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여 지금은 3중교가 되었다.

This arch bridge was constructed in 1935 to transport coal obtained from a nearby mining site. It is the oldest bridge in the Taebaek area.

The bridge has a double-tier structure with the upper tier used by mining cars to transport coal and the lower tier used by pedestrians and vehicles. In the 2000s, a new bridge named Geumcheongyo was built right next to the double-tier bridge.



태백 장성이중교 (太白 長省二重橋)

① 지정종목 명칭
수정에 대비하여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
문화재'로 표기

① 국가등록문화재 제111호

④ 문화재
가치를
기존안내판보다
명확히 설명

③ 태백 장성이중교는 1935년에 만들어진 다리로,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산업 관련 시설물이다. ④ 일제강점기에 자원 수탈의 아픈 역사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⑤ 문화재
구조를
설명하면서
용도까지 설명.

태백 장성이중교는 ⑤ 초기에 2중교의 형태로 설계되었다. 위쪽은 석탄을 운반하는 기관차와 광차가 다니고, 아래쪽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도록 건설하였다. 다리를 받치는 기둥은 무지개 모양을 하여 돋보인다. 최근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여 지금은 3중교가 되었다.



② 사진 인용
- 근대문화재
특징에 따라
과거 문화재
모습과 용도를
알 수 있는 사진
인용

③ 문화재
건립연대를
명확히
기재하고,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임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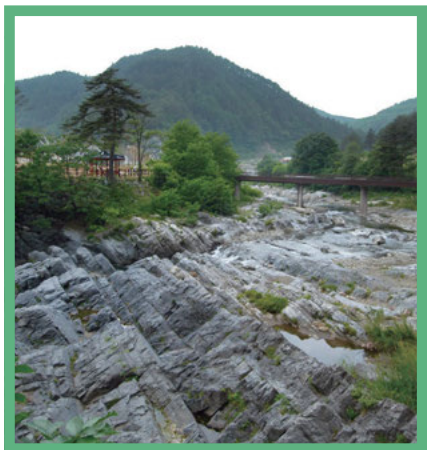
고건축전문가



역사학자



사진 인용을
통해 문화재의
시기별 모습과 용도
등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요.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천연기념물 제417호

분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고생물

소재지 강원 태백시 동점동 산10-1번지

시대 원시시대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 (太白 求門沼 前期古生代地層 및 河蝕地形)

천연기념물 제417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 ①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③ 전문용어를
해설없이 남용

이 지역은 약 ② 4억 9천만 내지 4억 4천만년 전에 퇴적된
③ 하부고생대 오르도비스기 퇴적암층[조선누층군 막골층, 직운
산층, 두위봉층]이다. 구문소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하
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구멍이 뚫려 만들어진 연못으로, 주변의
기암 절벽들과 함께 ③ 침식지형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곳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롯한 옛 문헌에 천천(穿川)으로 표기되
어 있고, 낙동강의 발원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 ③ 석회암층[막골층]에는 건열구조, 연흔구조[물
결자국], 스트로마톨라이트[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돔상의 퇴
적구조], 새눈구조, 생교란구조, 증발광물[소금이나 석고]의 흔
적 등 이 퇴적암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지시하는 매우 다양한
퇴적구조가 잘 관찰된다. 구문소 상류에 분포하는 직운산층은
석회암이 아닌 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층 안에서 삼엽충,
완족류, 두족류, 필석류 등 고생대의 화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구문소의 지형과 지질학적 특성은 주위의 ④ 빼어난 경관과 함
께 ③ 하부고생대의 퇴적환경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하고 있다.

② 관람객이 알기
어려운 연대기 설명

전체적으로
문화재
구조, 규모,
형태, 가치
등에 대해서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됨.

④ ‘빼어난 경관’
‘중요한 단서’ 등
문화재 가치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기술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太白 求門沼 前期古生代 地層 및 河蝕地形)

천연기념물 제417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② 구문소는 강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며 큰 돌문을 만들고 그 아래 깊은 물웅덩이가 생겼다는 뜻의 '구문소'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구문'은 옛말로 구멍이나 굴을 뜻하고 '소'는 한자로 물웅덩이를 뜻한다. 강이 산을 뚫고 흐른다고 해서 '뚜루내'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여지도』에는 구멍 뚫린 하천이라는 뜻의 '천천(穿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구문소' 명칭 유래한 기록 인용. 공신력있는 고전지리지 인용, 지역적으로 구전되는 명칭의 유래, 지역주민에게 익숙한 이름 등을 예로 들어 관람객 입장에서 '구문소'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함.

③ 전설/설화, 민간신앙 인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구문소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이다. 황지천과 철암천의 두 물길이 원래 지하에 있던 동굴과 만나 점차 동굴을 넓혔고, 지상에도 동굴 모양의 지형을 만들었다. ③ 지상에 만들어진 동굴을 보고 옛사람들은 양쪽의 물길을 지키던 두 마리의 용이 싸우다가 한 마리가 땅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 산에 구멍이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⑤ 어려운 말은 최대한 한글로 풀어서 설명. 중등과학 수준의 용어 사용을 사용하여 어려운 용어 사용 최대한 제한함.

구문소의 독특한 지형을 보면 ④ 5억 년 전 한반도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⑤ 석회암층에 나타난 다양한 퇴적 구조와 삼엽충 등 옛 생물의 화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질 과학 체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④ 문화재 가치를 근거를 들어 설명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太白 求門沼 前期古生代 地層 및 河蝕地形

Early Paleozoic Deposits and Topography of Stream Erosion of Gumunso, Taebaek

천연기념물 제417호
Natural Monument No. 417

구문소는 강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며 큰 돌문을 만들고 그 아래 깊은 물웅덩이가 생겼다는 뜻의 '구문소'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구문'은 옛말로 구멍이나 굴을 뜻하고 '소'는 한자로 물웅덩이를 뜻한다. 강이 산을 뚫고 흐른다고 해서 '뚜루내'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여지도』에는 구멍 뚫린 하천이라는 뜻의 '천천(穿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문소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이다. 황지천과 철암천의 두 물길이 원래 지하에 있던 동굴과 만나 점차 동굴을 넓혔고, 지상에도 동굴 모양의 지형을 만들었다. 지상에 만들어진 동굴을 보고 옛사람들은 양쪽의 물길을 지키던 두 마리의 용이 싸우다가 한 마리가 땅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 산에 구멍이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구문소의 독특한 지형을 보면 5억 년 전 한반도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석회암층에 나타난 다양한 퇴적 구조와 삼엽충 등 옛 생물의 화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질 과학 체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Gumunso Pond was made by water erosion near the confluence of Hwangjicheon and Cheorancheon Streams. Flowing over limestone strata, the current of Hwangjicheon has caused erosion creating a large hole above in the mountain and a deep pond underneath on the riverbed linked to an underground cave. This is the only case in Korea where a stream made a hole in a mountain and flows through it.

In the name, "gumun" means a hole or a cave, and "so" means a pond.

According to legend, two dragons that protected each stream, Hwangjicheon and Cheorancheon, engaged in a fight. During the fight, one dragon surged from underground, making a hole in the mountain. In the surrounding area, various sediment structures and fossils of trilobites and other living organisms made in the Paleozoic period were discovered.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

소재지 강원 태백시 황지동 467-10번지

시대 신라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 (太白 本寂寺址 三層石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② 석탑 구조에
대해 전문용어를
남용하거나
관람객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재
규모, 구조 설명

전체적으로
문화재
형태, 규모,
가치, 구조
설명 없음.
스토리텔링
없음

본적사지는 일명 번적사지蕃寂寺址로도 불리는데, 이 곳 주변에는 많은 절터들이 있다. 절터 주변에는 2층 기단 3층 석탑의 기와 조각 등이 흩어져 있다. ② 기단부로 발견된 탑재는 지대석地臺石: 기초부터 까는 받침돌, 아래층 기단, 위층 기단의 부재탑의 각 부분에 쓰인 재료이다. 아래층 기단과 위층 기단 면석面石:탑 기단의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에 막아댄 넓은 돌에는 모서리기둥과 버팀기둥이 표현되어 있고, 갑석甲石: 뚜껑처럼 덮은 돌에는 2단의 곱받침이 있다. 탑 몸체 부에는 지붕돌 2개와 몸돌 2개가 발견되었다. 지붕돌 밑면의 받침은 4단이고, 위에는 2단의 받침이 있다. 몸돌에는 모서리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가장 작은 지붕돌에 찰주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층석탑임을 알 수 있다. 탑 위의 장식물인 상륜부相輪部: 탑의 맨 위에 놓인 장식는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석탑의 체감 비율을 고려하여 지대석에서부터 3층 지붕돌까지의 높이를 추정해 보면 약 2.97m로 예상된다. 이 탑은 양식으로 보아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③ 태백산 일대의 불교유적들과 함께 불교문화의 전파 경로와 시기를 추정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③ 문화재 가치
설명 부족

태백 본적사지 | 太白 本寂寺址 三層石塔材 삼층석탑재 Remains of a Three-story Stone Pagoda at Bonjeoksa Temple Site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Gangwon-do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 126



본적사지 삼층석탑재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어진 삼층석탑의 흔적이다. 받침돌, 지붕돌, 몸돌 등이 남아있으나 탑 위의 장식물인 상륜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탑재들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석탑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 석탑은 약 2.97m 높이의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본적사지는 '본적사'라는 절이 있던 터를 뜻하며 '번적사지'라고도 불린다. 이곳 태백시 절골이라는 지명은 주변에 많은 절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본적사는 고려 말에 달공 스님이 세웠다고 하는데 삼층석탑재가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이 유물은 태백산 일대의 불교 유적들과 함께 불교 문화가 퍼져 나가는 경로와 시기를 추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수습된 석탑재는 태백석탄박물관에서 보존하다가 2012년 현재 위치에 복원하였다.

This pagoda was reconstructed using the remains of a three-story pagoda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between the end of the Silla kingdom (668-935) and the early Goryeo dynasty (918-1392). The base tier and the body and roof stones were found, but not the decorative top. The original pagoda is estimated to be 3 m tall based on the sizes of the remains and other stone pagodas built in the same period. The present pagoda was re-assembled in 2012 when a historical park was constructed at Bonjeoksa Temple Site.

Bonjeoksa Temple is presumed to have been founded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valley where the temple site is located was named "Jeolgol," meaning "temple valley," because there were many temples around this area.

① 문화재
명칭 수정

①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太白 本寂寺址 三層石塔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6호

② 본적사지 삼층석탑재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만들어진 삼층석탑의 흔적이다. 받침돌, 지붕돌, 몸돌 등이 남아있으나 탑 위의 장식물인 상륜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탑재들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석탑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 석탑은 약 2.97m 높이의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② 문화재
구조,
규모 설명
단순화.
관람객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만
기술

③ 문화재
명칭 유래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③ 본적사지는 '본적사'라는 절이 있던 터를 뜻하며 '번적사지'라고도 불린다. 이곳 태백시 절골이라는 지명은 주변에 많은 절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본적사는 고려 말에 달공 스님이 세웠다고 하는데 삼층석탑재가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이 유물은 태백산 일대의 불교 유적들과 함께 불교 문화가 퍼져 나가는 경로와 시기를 추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④ 수습된 석탑재는 태백석탄박물관에서 보존하다가 2012년 현재 위치에 복원하였다.

④ 문화재가
현재 위치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관람객에게
문화재의
연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



역사학자



설명이
간략하고 쉬워서
관람객이 문화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됩니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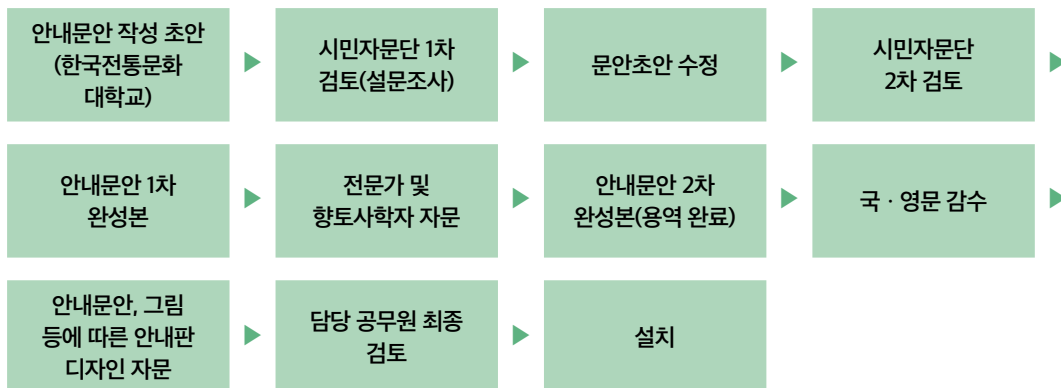
■■■ 백제 시대 고도(古都)였던 충남 부여에는 옛 수도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은 고도의 생성, 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 문화유산 등을 말한다. 이곳의 문화재 안내판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고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자연물, 건조물, 유적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집약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 부여군은 안내판 정비사업의 주제를 ‘고도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12건, 충청남도지정문화재 31건, 백제역사지구 3건 등 모두 46건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였다.

■■■ ‘고도문화재’라는 비교적 어려운 개념을 안내문안에 담으면서도, 관람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자문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민자문단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시민자문단 운영 과정에서 이를 참가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고도문화재의 가치에 젊은 세대들도 공감하는 내용을 안내문안에 담을 수 있었다.

충남 부여군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부여군 안내문안 작성 과정



2. 사업대상 문화재



부여 청마산성(사적 제34호)
부여 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 증산성(사적 제156호)
홍산객사(시도유형문화재 제97호)
석성동헌(시도유형문화재 제124호)
홍산동헌(시도유형문화재 제141호)
은산당산성(시도기념물 제153호)
창렬사(시도기념물 제22호)
천정대(시도기념물 제49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보물 제184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
부여 홍산상천리마애불입상(시도유형문화재 제140호)
현내리 부도(시도유형문화재 제22호)
금성산 석불좌상(시도유형문화재 제23호)
무량사 김시습 부도(시도유형문화재 제25호)
호암사지(시도기념물 제32호)
임강사지(시도기념물 제34호)
용정리사지(시도기념물 제48호)
부여 지선리 고분군(시도기념물 제87호)
부여 보광사지(시도기념물 제98호)



흥학당(시도유형문화재 제125호)
부여 신동엽 가옥 터(등록문화재 제339호)



홍산 만덕교비(시도기념물 제3호)
전득우묘(시도기념물 제25호)
부여 산직리 지석묘(시도기념물 제40호)
부여 태양리 백제석실고분(시도기념물 제45호)



부여 쌍북리북요지(시도기념물 제41호)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부여 중정리 백제건물지(시도기념물 제54호)
부여 용정리 소룡골백제건물지(시도기념물 제86호)
부여 구아리 백제유적(시도기념물 제88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사적 제373호)



김시습 초상(보물 제1497호)
부산 각서석(시도유형문화재 제47호)
부여향교(시도기념물 제125호)
석성향교(시도기념물 제126호)
임천향교(시도기념물 제127호)
홍산향교(시도기념물 제128호)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20호)
부여 수신리 반송(시도기념물 제158호)
부여 저동리쌀바위(문화재자료 제371호)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등록문화재 제364호)

3. 핵심 성공요인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함께 현지조사 실시
- ➔ 지역의 중학교, 문화관광해설사, 대학교와 협의하여 시민자문단 구성
- ➔ 지역 향토사학자와 함께 고도문화재의 가치를 담되 '쉬운 안내문안' 작성을 위해 노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일관된 안내문안 작성

■■■ 부여군은 고도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었고, 문화재안내판도 꾸준히 설치하였다. 그러나 부여군의 문화재 안내판은 문안 작성자와 설치 시기가 너무 달라 통일성이 없었다. 문화재청이 배포한 많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사업을 총괄할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안내문안 작성기준도 일관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안내문안 집필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용어가 남용되어 어렵고 딱딱한 문장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내외 관람객 모두 이해하기 쉽고, 통일된 디자인의 관람객 친화형 문화재 안내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부여군은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상으로 43건을 신청하였다. 사업대상이 너무 많았기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담당자를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담당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안내문안 집필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여군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함께 안내문안 작성용역을 수행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우선 현지조사를 통해 기존 문화재 안내판 및 안내문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안내문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고고학유적지가 많은 부여군 문화재의 특성상 도면, 그림, 도형 등을 초안 작성과정에서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부여군은 지역 내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안내문안 작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작성된 안내문안의 통일성도 기대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과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만들어가는 고도(古都) 문화재 안내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작성한 초안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쉬운 용어, 간결한 문장, 그림·도형·사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중학교,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중심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안내 문안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작성된 안내문안 초안을 시민자문단에게 보여주고, 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정된 안내문안에 대해서도 시민자문단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여 1차 완성본을 작성하였다. 특히, 부여군은 시민자문단 외에도 **지역 내 향토사학자와 고도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부여군 향토사학자 단체인 '백제사적연구회'는 1차 완성된 안내문안에 대해 내용적으로 맞는지를 검토하였고, 보완의견을 제시하였다.

알기 쉬운 고도(古都) 문화재 안내판을 위한 군청의 적극적으로 노력

■■■ 담당 공무원 역시 문화재 안내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시민자문단, 국어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별도의 전문가 등 다수의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안내문안과 디자인을 다듬었다.** 특히, 문화재 안내문안에 들어갈 **도형·그림·사진 등의 안내판 디자인과 설치위치**는 **지문을 거쳐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정하였다.** 더 많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안내문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에 없었던 향토사학자 단체에도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문비용을 줄 수 없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주기도 하였으며, 부여군수의 이름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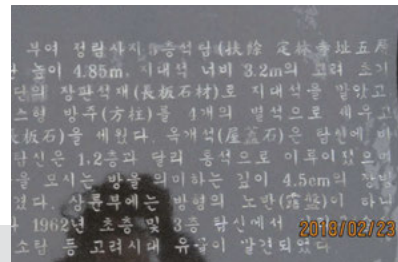
부여 장하리 3층석탑

보물 제184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

소재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번지

시대 고려시대



①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① 부여 장하리 3층석탑 (扶餘 長蝦里 三層石塔)

보물 제184호

② 주소 기입
불필요

② 소재지 :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

④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어렵게 설명함.

③ 이 석탑은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의 양식을 본따 높이 4.85m, 지대석 너비 3.2m의 고려 초기 작품이다. 기단은 3단의 장판석재(長板石材)로 지대석을 깔았고, 초층탑신은 엔타시스형 방주(方柱)를 4개의 별석으로 세우고 그 사이에 장판석(長板石)을 세웠다. 옥개석(屋蓋石)은 탑신에 비하여 광활하다. ④ 3층탑신은 1,2층과 달리 통석으로 이루어졌으며 탑신 북쪽면에 불상을 모시는 방울 의미하는 깊이 4.5cm의 장방형 감형(龕形)을 새겼다. 상륜부에는 방형의 노반(露盤)이 하나 놓여 있다. 1931년과 1962년 초층 및 3층 탑신에서 사리구(舍利具), 상아불상, 목제소탑 등 고려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③ 석탑 구조에
대해 전문용어를
남용하거나
관람객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재 규모,
구조 설명

전체적으로
문화재 형태,
규모, 가치,
구조 설명 없음.
스토리텔링 없음



석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조형물로, 실제 유골이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모셨다고 여겨진다. 장하리 삼층석탑은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원래 이곳에 한산사寒山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탑만 남아 있다.

석탑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영향을 받은 백제계 석탑임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옛 영토였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이와 같은 석탑이 많이 남아 있는데, 후백제 또는 고려 시대에 지방 호족들이 후원하여 세운 것으로 보인다.

1931년과 1962년에 탑을 해체·수리하면서, 탑 안에 모셔져 있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1931년에는 1층 몸돌에서 불상, 목탑, 다라니경 조각 등이, 1962년에는 2층 몸돌에서 사리를 담은 은병과 금동병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A pagoda is a symbolic monument used to enshrine relics or remains of the Buddha. In many cases, pagodas do not contain the actual remains, but are still regarded as a sacred place enshrining the Buddha.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place in which this pagoda is located was once occupied by a Buddhist temple named Hansan in the Goryeo period, but only the pagoda remains today.

The pagoda has characteristic features of pagodas from the Baekje period (18 BCE-660 CE), such as short tiers, suspended body stones, and thin, flat roof eaves.

When the pagoda was dismantled for repairs in 1931 and 1962, va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inside the pagoda. In 1931, a miniature Buddha statue made of ivory, a gilt-wooden miniature stupa, and pieces of Dharani sutra were found inside the first-story body stones. In 1962, a silver bottle and gilt-bronze bottle for containing the remains of the Buddha were found inside the second-story body stones. These artifacts are currently housed in the Buyeo National Museum.



석탑 용어 설명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2층 몸돌에서 나온 사리용기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기

①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扶餘 長蝦里 三層石塔

보물 제184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 삭제)

③ 석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조형물로, 실제 유골이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모셨다고 여겨진다. 장하리 삼층석탑은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원래 이곳에 한산사寒山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탑만 남아 있다.

③ 석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추가

④ 문화재의
형태와 구조,
규모 등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과
용어를
최소화하고,
가치와 유래
등을 설명

④ 석탑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영향을 받은 백제계 석탑임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옛 영토였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이와 같은 석탑이 많이 남아있는데, 후백제 또는 고려 시대에 지방 호족들이 후원하여 세운 것으로 보인다.

⑤ 1931년과 1962년에 탑을 해체·수리하면서, 탑 안에 모셔져 있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1931년에는 1층 몸돌에서 불상, 목탑, 다라니경 조각 등이, 1962년에는 2층 몸돌에서 사리를 담은 은병과 금동병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⑤ 사진을
활용하여,
발굴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그림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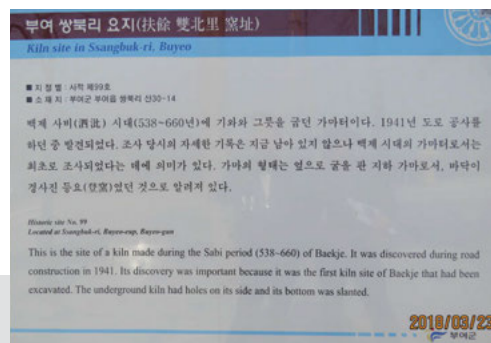
부여 쌍북리 요지

사적 제99호

분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요업 / 토기가마

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번지

시대 백제



부여 쌍북리 요지(扶餘 雙北里 窯址)

지정별 : 사적 제 99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 ① 소재지 :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전체적으로 해당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알기 쉽지 않고, 스토리텔링 등이 없어 문화재에 관람객이 대한 흥미를 가지기가 어려움

백제 사비(泗比) 시대 (538~660년)에 기와와 그릇을 굽던 가마터이다. 1941년 도로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었다. 조사 당시의 자세한 기록은 지금 남아 있지 않으나 백제 시대의 가마터로서는 최초로 조사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② 가마의 형태는 옆으로 굴을 판 지하 가마로서, 바닥이 경사진 등요(登窯)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등요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사적 제99호
Historic Site No. 99

쌍북리 요지[※]는 기와와 토기를 굽던 백제 사비기의 가마터로, 금성산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일제 강점기인 1941년 부여 시가지 계획도로 공사 중 가마가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가 끝난 후 가마 천장은 큰 돌을 세워 받치고 벽은 시멘트로 보강하였다. 2015년에 다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조사된 1호 가마터를 포함해 모두 3기의 가마터를 확인하였다. 1호 가마터 안에서는 기와와 토기 조각들이 나왔다. 이 유적은 백제 사비기인 7세기에 운영된 가마터로 사비도성 안에서 기와와 토기를 생산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is a site of kilns used for the production of earthenware and roof tiles in the Baekje (18 BCE-660 CE) capital during the 4th and 7th centuries. Originally founded in Hansong (today's Seoul area), Baekje moved its capital to Uigin (today's Gyeongju area) in 475 and again to Salsu (today's Buyeo area) in 538.

In 1941,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part of a kiln was found at the foot of Geumseong Mountain during road construction. After a brief excavation survey conducted at that time, the kiln was preserved by using a big rock for support and reinforcing the wall with cement mortar. Through another excavation survey conducted in 2015, two more kilns were found at this site. Despite only a small number of kilns having been found, the site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kiln site found inside the Baekje capital.

双北里窯跡は錦城山の北斜面に造られた。瓦と土器を共に焼いた百濟西訖湖の窯跡である。
日帝強占期の1941年、扶余市街地計画道路工事の際に窯が発見され、簡単な調査が行われた。その後、窯の天井は大きい石で支えられており、壁側はセメントで補強され保存された。2015年に再発掘され、既に調査された1号窯跡を含め、計3基の窯跡が確認されたのである。1号窯跡では瓦片と土器片が出た。
百濟西訖湖である7世紀代に営まれた窯跡で、都城内で瓦が生産される様相を見せる点に意義がある。



가마 용어 설명

부여 쌍북리 요지
발굴조사 후 모습

부여 쌍북리
요지 1호 가마터

부여 쌍북리 요지 扶餘 雙北里 窯址

사적 제99호

① 주소 삭제 → ① (주소 삭제)

② 쌍북리 요지窯址는 기와와 토기를 굽던 백제 사비기의 가마터로, 금성산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③ 일제 강점기인 1941년 부여 시가지 계획도로 공사 중 가마가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가 끝난 후 가마 천장은 큰 돌을 세워 받치고 벽은 시멘트로 보강하였다. 2015년에 다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조사된 1호 가마터를 포함해 모두 3기의 가마터를 확인하였다. 1호 가마터 안에서는 기와와 토기 조각들이 나왔다. ④ 이 유적은 백제 사비기인 7세기에 운영된 가마터로 사비도성 안에서 기와와 토기를 생산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③ 쌍북리
요지의
발굴조사 등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그림을 추가

⑤ 사진, 도면
활용하여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② 쌍북리
요지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설명

④ 문화재의
가치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



용정리사지

충청남도 기념물 제48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사찰

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5외 2필

시대 백제



용정리사지(龍井里寺地)

지정별 : 충청남도 기념물 제48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 ① 소재지 :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5외

이곳은 유래가 전해지지 않은 백제시대의 절터로 금당과 탑 자리가 남아 있다. ② 1979년에는 발을 일구다가 주춧돌, 지대석, 연꽃무늬 기와, 수막새 등이 나왔다. 1992년 발굴조사에서 흙을 다져 쌓는 판축기법으로 탑의 기초를 마련하고 목탑을 세웠던 것이 드러났다. 금당지는 잘 다듬은 석재를 써서 기초를 마련하고 2차에 걸쳐 다시 지었다. ③ 이른 시기에 속하는 연꽃무늬 수막새 기와조각과 백제 기와조각이 많이 나오는데 사비시대 초기에 세워진 절로 짐작된다.

② 어려운 건축용어와 건축기법 등이 나열되어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해당문화재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그림, 사진 등이 없어서 문화재에 관람객이 대한 흥미를 가지기가 어려움

③ 문화재의 가치가 잘 나타나지 않음



충청남도 기념물 제48호
Chungcheongnam-do Monument No. 48

용정리사지는 청마산의 서쪽 기슭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한 백제 시대의 절터이다. 1979년에 밭을 일구다가 건물의 주춧돌*과 백제 사비기의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되어 유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992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은 목탑과 금당金堂**이 남북으로 길게 놓인 전형적인 백제 시대 절터의 모습을 보여 준다. 금당 터에서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물 터가 확인되어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절터는 백제 사비도성의 동쪽 바깥에 자리하고 있다. 금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래층 금당 건물 터에서 백제 사비기 초로 추정되는 기와가 나와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긴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
**부처를 모신 절의 중심 건물

This is the former site of a temple tha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6th-7th centuries, when Saji (today's Bugeo area) was the capital of the Baekje kingdom (18 BCE-660 CE). As there is no evidence of the temple's name or origin, the site was named after the area it is located in.

Pillar base stones and roof tile shards were first discovered here in 1979 by farmers plowing the field. An excavation conducted in 1992 confirmed two layers of a foundation, meaning that two constructions were built here; one after the other.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and other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bottom layer date to the period around when Baekje moved its capital to Saji in 538. The layout of the site is typical of Buddhist temples built in Baekje, with a wooden pagoda located in front of the main hall.



용정리사지 금당 위층 건물터



용정리사지에서 나온 기와 조각

용정리사지 龍井里寺址

충청남도 기념물 제48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용정리사지는 청마산의 서쪽 기슭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한 백제 시대의 절터이다. ② 1979년에 밭을 일구다가 건물의 주춧돌*과 백제 사비기의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되어 유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992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③ 발굴 과정에서 나온 문화재 가치 부각

③ 유적은 목탑과 금당金堂**이 남북으로 길게 놓인 전형적인 백제 시대 절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금당 터에서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물 터가 확인되어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절터는 백제 사비도성의 동쪽 바깥에 자리하고 있다. 금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래층 금당 건물 터에서 백자 사비기 초로 추정되는 기와가 나와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긴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⑤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추가

⑤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

** 부처를 모신 절의 중심 건물



⑥ 발굴터 및 발굴유물 사진을 활용해 관람객 이해도 높임.



② 수막새 등 어려운 용어가 기와 조각 등의 쉬운 용어로 대체되었고, 관련 사진을 추가



④ 문화재 가치 설명

1. 개요



■ ■ ■ 경기도 안양시가 2018년 실시한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결과, 석수동 마애종 등의 훼손이 심각하고, 오타자·어려운 용어 등이 많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내문안 내용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안내판을 정비한 문화재는 삼막사 경내 문화재를 비롯해 경기도유형문화재 5건이다. **안양시 정비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림과 도면을 적절히 사용했다는 점이다.** 석탑, 비석, 석불 등 불교문화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문화재에 대한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 유형별 문화재의 일반적 특징을 그림과 도면을 통해 설명하고, 각 문화재의 특수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2. 사업대상 문화재



삼막사 남녀근석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호)



삼막사 삼층석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2호)

석수동 마애종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2호)

삼막사 마애삼존불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4호)



삼막사 사적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5호)

경기 안양시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3. 핵심 성공요인

- ➔ 꼼꼼한 전수조사로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선정
- ➔ 그림과 도면을 적절히 활용해 유형별 문화재의 보편적 특징 설명
- ➔ 문화재를 관람하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 ■ ■ 경기도 안양시는 2018년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를 위해, 담당자가 **관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그 결과 삼막사 사적비, 삼막사 마애삼존불, 석수동 마애종 등은 훼손이 심각하고, 어려운 용어나 오탈자 등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3호인 삼막사 남녀근석은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재이므로 정비대상에 선정**하였다.

2018 경기도 안양시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결과 및 정비대상 선정

문화재명	종목 및 지정 번호	시기	의미 및 특징
삼막사 사적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조선후기 (1707)	- 숙종 33년(1707)에 건립 - 건립연대, 장소 등이 적혀 있고, 그 외에 판독 어려움
삼막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고려	- 고려시대 김윤후의 대몽항쟁 승리 기념을 위해 건립되었다고 전함
삼막사 마애삼존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4호	조선후기 (1763)	- 자연암벽에 감실을 만들고 삼존불을 조각함 - 불상 아래 명문이 있어 조성연대 파악 가능
삼막사 남녀근석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3호	알 수 없음	- 남녀근석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음
석수동 마애종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고려초	- 자연암벽에 스님이 종을 치는 장면을 묘사한 국내 유일의 마애종

■ ■ ■ 이번 안양시 정비사업에서 두드러진 점은 **문화재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그림과 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관람객이 문화재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사전정보나 학습과정 없이 안내판을 통해 정비대상 문화재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데, 이처럼 **그림이나 도면을 활용한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정비대상 문화재인 석탑, 비석, 석불 등에 대해 일반적 구조를 관람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문화유산산책’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양서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안내문안에 포함될 그림과 도면을 수정하여, 안내판에 정확하고도 가독성있는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 정기회의를 활용한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정기 회의를 활용**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문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분들이다. 해설사들에게 정기회의 때에 집필중인 문안 초안을 나눠드리고, 의견을 구했다. 또한 이분들이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초고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취합된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문장을 다듬거나 오탈자를 쉽게 써달라고 한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면, 마애삼존불이라는 단어에서 '마애'라는 의미도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하면 해설사들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다.



고건축전문가



안양시 안내판은 그림이나 사진의 활용이 돋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가 쉽게 구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의 안내판마다 그림이나 사진 등이 삽입되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향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공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4. 추진성과



삼막사 사적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안양구 삼막로478

시대 조선시대



삼막사 사적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① 주소기재 불필요 → ① 안양시 안양구 삼막로478(석수동)

이 비의 비갓은 팔작지붕형이고 ② 지대석(地臺石)은 땅에 묻혀 있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나 ③ “조선국경기(朝鮮國京記) 관악(冠岳) 산맥갑묘행룡 삼성산하(山脈甲卯行龍三聖山下) 사명삼막좌유향로봉(寺名三幕左有香爐峰)”과 건립연대(建立年代)를 밝히는 “강희(康熙) 46년 정해(丁亥)”란 명문(銘文)이 있다. 비석의 내용은 사찰의 위치가 경기관악산맥 삼성산 아래에 있고, 사찰의 이름은 삼막사이며 왼쪽으로 향로봉이 있으며, 조선 숙종(肅宗) 33년(1707)에 건립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②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문자 사용

③ 관람객에게 어려운 정보 제공

삼막사 사적비 (三幕寺 事蹟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삼막사 창건과 그 이후 연혁을 기록한 비석이다. ② 사적비(事蹟碑)는 사찰이나 서원, 사당, 성곽 등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을 말하며, 기적비(紀蹟碑)라고도 한다.

② ‘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제고

③ 관람객 입장에서 비석에서 보이거나 읽을 수 있는 글자 중심으로 해설

③ 비석 앞면에는 삼막사의 역사가, 뒷면에는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는 ‘관악산맥 삼성산 아래 있는 절로, 이름이 삼막사다. 절 왼편에 향로봉(香爐峰)이 있다. 숙종 33년(1707)에 이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사적비에는 신라 원효대사(元曉大師, 7세기)가 터를 잡고 떠집을 지어 수도하는 곳으로 창건한 후 통일신라 말기에 도선국사(道詵國師, 9세기)가 고쳐 지어 관음사(觀音寺)라고 불렀고, 고려 말기에는 지공선사(指空禪師)와 나옹선사(懶翁禪師) 등이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비문이 상당히 마멸되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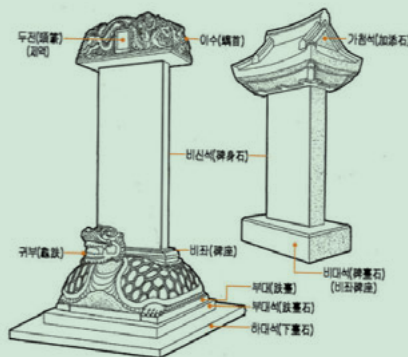
고건축전문가
그림을 활용하여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요.

④ 비석은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받침돌(臺石)에 비문을 새긴 몸돌(碑身)을 세우고, 그 위에 한옥의 팔작지붕 모양을 한 지붕돌(蓋石)을 올렸다. 거북모양 받침돌(龜趺)이나 용을 새긴 지붕돌(螭首)을 갖춘 것들에 비하면 장식하지 않은 소박한 비석이다. 이 사적비는 삼막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

④ 문화재 구조를 간결하게 설명

⑤ 비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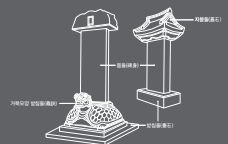
⑤ <비석의 구조>



삼막사 사적비 | 三幕寺 事蹟碑
Monument of the Construction of Sammaksa Temple

삼막사 창건과 그 이후 연혁을 기록한 비석이다. 사적비(事蹟碑)는 사찰이나 서원, 사당, 성곽 등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을 말하며, 기적비(紀蹟碑)라고도 한다. 비석 앞면에는 삼막사의 역사가, 뒷면에는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는 ‘관악산맥 삼성산 아래 있는 절로, 이름이 삼막사다. 절 왼편에 향로봉(香爐峰)이 있다. 숙종 33년(1707)에 이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사적비에는 신라 원효대사(元曉大師, 7세기)가 터를 잡고 떠집을 지어 수도하는 곳으로 창건한 후 통일신라 말기에 도선국사(道詵國師, 9세기)가 고쳐 지어 관음사(觀音寺)라고 불렀고, 고려 말기에는 지공선사(指空禪師)와 나옹선사(懶翁禪師) 등이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비문이 상당히 마멸되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비석은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받침돌(臺石)에 비문을 새긴 몸돌(碑身)을 세우고, 그 위에 한옥의 팔작지붕 모양의 지붕돌(蓋石)을 올렸다. 거북모양 받침돌(龜趺)이나 용을 새긴 지붕돌(螭首)을 갖춘 것들에 비하면 장식하지 않은 소박한 비석이다. 이 사적비는 삼막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

This granite monument, erected in 1707, records the history of Sammaksa Temple. The inscription carved on this monument is illegible as it has been severely worn down. It is known that the inscription includes the brief history of the temple as follows: "Sammaksa Temple was founded by Monk Wansu (827-881) in the 7th century on the site where he had built a shantled hut to practice meditation. During the 9th century, State Preceptor Chosun (827-899) rebuilt the temple and called it Gwanseumsa. In the late 14th century, an eminent Korean monk named Dhyangak (1365-1465), Kori Jijong and his disciple Nang (1320-1376) stayed at this temple." The back side of the monument is carved with the names of people who offered donations to the temple. This is the only extant record about the founding of this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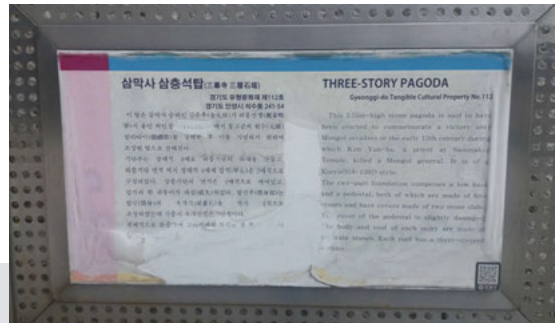
삼막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분류 유적건조물/ 종교신앙/ 불교/ 탑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478

시대 고려시대



삼막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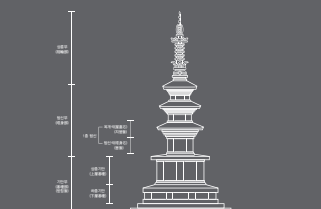
① 주소기재 불필요 → 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

이 탑은 삼막사 승려인 김윤후(金允候)가 러몽전쟁(麗蒙戰爭)시 용인 처인성 전투(1232)에서 몽고군의 원수(元帥)인 살리타이(撒禮塔)를 살해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탑으로 전해진다. ② 기단부는 장대석 4매로 하층기단의 하대를 만들고, 하층기단 면석 역시 장대석 4매에 갑석(甲石)은 2매석으로 구성되었다. 상층기단의 면석은 4매석으로 짜여있고, 갑석의 한 귀퉁이가 파실(破失)되었다. ③ 탑신부(塔身部)는 ③ 탑신(塔身)과 ③ 옥개석(屋蓋石)을 각기 1석으로 조성하였는데 각층의 옥개받침은 3단씩이다. 전체적으로 둔중하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높이는 2.55m이다.

③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남용

②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형태, 구조 설명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여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곳이 있음





석수동 마애종 (石水洞 磨崖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분류 유물/일반조각/암벽조각/암각화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32번지

시대 고려시대



석수동 마애종(石水洞 磨崖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① 주소기재 불필요 → 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32

③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남용

이 마애종은 달아놓은 종을 스님이 치고 있는 장면을 거대한 바위에 묘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마애종이다. ② 사각형의 ③ 결구(結構) 형식에 쇠사슬로 연결된 종은 ③ 음통(音筒)을 갖춘 비교적 정교한 종뉴(鐘鈕) 아래에 약간 벌어진 형태의 종신이 연결되어 있다. 종신의 표면에는 ③ 상대(上帶)와 붙어 있는 ③ 유곽(乳廓), 종복(鐘腹)에 있는 연화문(蓮華紋) 당좌(幢座), 뚜렷하지 못한 문양을 새긴 ③ 하대(下帶)가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공간의 균형감이 있어 보이며, 전체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종을 표현하였다. 이 마애종은 조각 수법이나 ③ 종뉴·종신의 표현 등에서 신라말(新羅末)이나 고려(高麗) 초기(初期)의 작품으로 생각되며 마애종의 유일한 예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②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형태, 구조 설명

석수동 마애종(石水洞 磨崖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① 주조작제

① (주조작제)

승려가 당목(撞木)종 치는 나무 도구를 들고 종 치는 장면을 그린,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마애종이다. ② 마애(磨崖)란 바위벽에 문자 또는 그림을 새기거나 파낸 것을 말한다.

② '마애'에 대한 내용 해설하여 낯선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제고

③ 문화재 구조 설명 단순화

③ 종 윗면에는 목을 구부려 종을 잡고 있는 용(龍) 한 마리가 쇠사슬에 엮여 종 걸이에 걸리게 했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종에만 있는 음통(音筒)을 세웠다. 종 몸통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에는 종 치는 곳인 당좌(撞座)를 연꽃 문양으로 표현했고, 그 위쪽에는 두 개의 네모를 구획하여 그 안에 각각 아홉 개의 연꽃을 돈을새김했다. 전체적으로 실제 종과 종 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것처럼 사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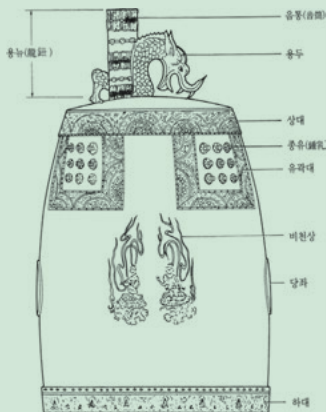
④ 관람객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 가치 부각

④ 생김새와 장식 등으로 보아 고려 시대 초기의 것으로 보이며, 종 모양, 종 걸이의 구조와 장식, 종 거는 방법, 당목의 생김새 등 당시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학계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양사지 등 불교 문화유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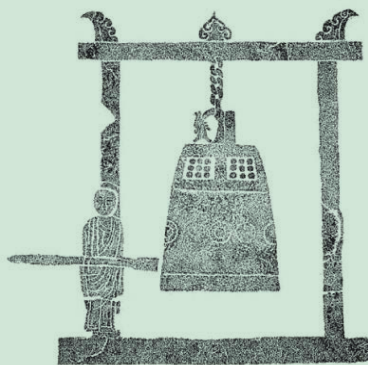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문화재 형태, 규모, 구조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하되, 너무 복잡하지 않게 쉽게 기술

⑤

〈범종의 부분 명칭〉



〈석수동 마애종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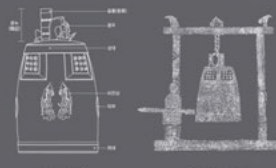


⑤ 범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활용

석수동 마애종 | 石水洞 磨崖鐘
Rock-carved Bell in Seoksu-dong

승려가 당목(撞木)종 치는 나무 도구를 들고 종 치는 장면을 그린,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마애종이다. 마애(磨崖)란 바위벽에 문자 또는 그림을 새기거나 파낸 것을 말한다. 종 윗면에는 목을 구부려 종을 잡고 있는 용(龍) 한 마리가 쇠사슬에 엮여 종 걸이에 걸리게 했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종에만 있는 음통(音筒)을 세웠다. 종 몸통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에는 종 치는 곳인 당좌(撞座)를 연꽃 문양으로 표현했고, 그 위쪽에는 두 개의 네모를 구획하여 그 안에 각각 아홉 개의 연꽃을 돈을새김했다. 전체적으로 실제 종과 종 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것처럼 사실적이다.

종은 종의 몸통과 종 치는 나무 도구를 들고 종 치는 장면을 그린,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마애종이다. 마애(磨崖)란 바위벽에 문자 또는 그림을 새기거나 파낸 것을 말한다. 종 윗면에는 목을 구부려 종을 잡고 있는 용(龍) 한 마리가 쇠사슬에 엮여 종 걸이에 걸리게 했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종에만 있는 음통(音筒)을 세웠다. 종 몸통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에는 종 치는 곳인 당좌(撞座)를 연꽃 문양으로 표현했고, 그 위쪽에는 두 개의 네모를 구획하여 그 안에 각각 아홉 개의 연꽃을 돈을새김했다. 전체적으로 실제 종과 종 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것처럼 사실적이다.



1. 개요



■ ■ ■ 경기도 양평군 안내판 정비사업의 특징은 '통일된 디자인'에 있다. 이번 정비 사업에 앞서, 2018년 안내판 실태조사를 통해, 안내판 훼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재를 선별하였다. 훼손도가 심한 안내판은 안내문안의 글자 식별이 어렵거나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안내판을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이 실태조사에서 일부 안내문안이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많아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비되는 안내판에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써서 내용 이해가 쉽도록 문안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지정문화재 4건, 등록문화재 1건 등 5건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였다. 이때, **통일된 디자인을 통해 '양평군 문화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문화재마다 안내판이 설치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안내판 디자인은 서로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5개 안내판은 공공디자인 지침과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다.

2. 사업대상 문화재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1호)

지평리 삼층석탑(양평지평리삼층석탑 제180호)



양평 지평양조장(등록문화재 제594호)



양근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호)



정창손 묘역 석물 일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5호)

경기 양평군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3. 핵심 성공요인

- ➔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한 안내판 정비
- ➔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직종의 시민들로 시민자문단 구성
- ➔ 경기도 문화재총람, 양평군지, 인터넷 백과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 활용

■■■ 2018년 관내 문화재 안내판 조사를 통해 안내문안 내용과 디자인, 설치위치 등을 조사하였다. 이 실태 조사에서 훼손된 안내판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내판마다 설치시기가 서로 달라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정비사업에 재정비할 안내판을 5개 선정하고, 디자인 면에서 통일성 있는 안내판 정비를 하고자 하였다.



■■■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조화시키고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2년부터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사업에서 양평군은 이러한 공공디자인지침을 준수하여 '양평군 문화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양평군 시민자문단은 공무원·학예사·역사학자 외에도 **역사교사·문화해설사·관내 역사동아리 회장** 등 관내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자문단은 새로 작성한 안내문안의 사실 오류, 반드시 들어갈 내용, 문장의 어색함 등을 검토하였고, 안내판 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려 시민자문단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문장을 다듬었다.

■■■ 시민자문단은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자문단의 참석 부담감을 줄이고** 충분히 문안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들은 7~10일 정도를 검토하여 자문을 하였다. 시민자문단 구성 시 전문가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섭외가 어렵고, 자문비가 부담되어 관내 **학예연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시민자문단의 자문 내용에도 한자어·전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의 지침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자문 내용 반영 여부를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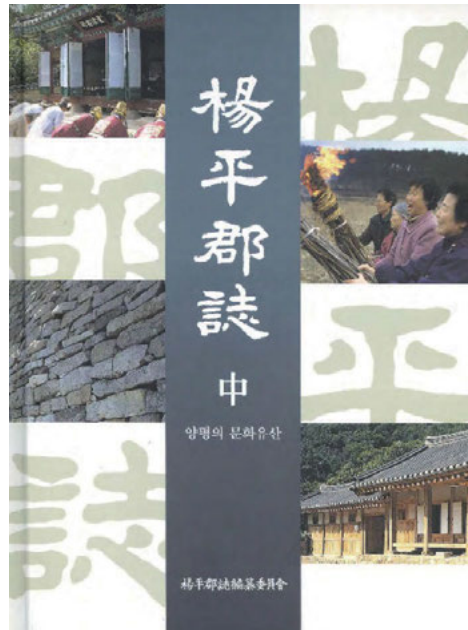
■■■ 시민자문단 운영결과,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단순 오타 확인에서부터 사실관계 및 새로운 정보 제공까지 자문의 수준이 차이가 났다. 특히, 지평리 삼층석탑의 경우 시민자문단을 통해 인근 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래의 위치와 옮겨지게 된 계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문단을 통해 인근 주민의 구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문안에는 '지역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 기회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자문단을 통해 확인했다. (87쪽 참조)



문안작성에서 특별히 유의했던 점

■■■ 안내문안은 문화재 업무 담당자(학예연구사, 역사전공)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때 작성을 맡은 담당자는 기존 문화재 안내판 문안, '경기도 문화재 총람'(2018), 양평군지 등 문화재 관련 책자와 인터넷 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최대한 한글로 풀어 쓰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궁금할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작성하였다. 안내 문안을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쉽게 작성하였다. 특히, 안내판 정비 대상 문화재가 시대적으로 다양하고 유형도 서로 달라, 이에 대해 포괄적인 자문가를 섭외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 학예연구사와 협력하여, 학예사들의 전공에 따라 자문을 요청했다.





경기도 양평군지



경기도 문화재총람



정창손 묘역 석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5호

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기타

소재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37-1번지

시대 조선시대

④ 문화재
외관이 심하게
훼손됨



정창손 묘역 석물일괄 (鄭昌孫 墓域 石物一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5호

① 어려운
용어, 한자
남용

정창손(鄭昌孫, 1402~1487)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중(孝仲), 호는 동산(東山)이다. 세종 8년(1426)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고 1447년 문과 증시(文科重試)에 등제(登第)한 후 1448년 ①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으로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수사관(修史官)을 겸직하면서 고려사, 세종실록, 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조선조 오대조 다섯 명의 임금에 섬기며 세 번의 ① 영상(領相)에 올라 삼위 수상(三爲首相)과 삼훈(三勳) 공신(三勳功臣)에 오른 역사 속의 큰 인물이다. 중종 9년(1514) 청백리(淸白吏)에 뽑혔고 성종 묘정(成宗廟庭)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정창손의 묘역은 정창손이 세상을 떠난 후 연산군 10년(1504) 폐비 윤씨 사건에 연루되어 신도비와 석물이 함께 파손되었다. 중종 원년(1506)에 원래대로 되어 다시 장례를 치르면서 석물도 다시 세웠으며 인조 원년(1623)에 신도비를 세움으로써 묘역이 완

②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형태, 구조
설명

성되었다. ② 정창손의 신도비는 조선 초기의 양식이 원부형이며,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비문은 원래 1488년 서거정이 지었으나 깨어져 부서졌고 인조 1년(1623) 개장(改葬) 때 외손 이원익(李元翼)이 재건하고 한준겸(韓俊謙)의 추찬(追瓚)과 심열(沈悅)이 글을 써 복원되었다. ③ 비의 크기는 높이 186.5cm, 폭 73cm 두께 24.5cm이다.

③ 전체적으로
정창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에 대해
사실적 기술에
치중하면서 문화재
자체인 석물에 대한
설명 부족



정창손 묘역 석물 (鄭昌孫 墓域 石物)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5호

① '묘역'에
대한 문화재
기본설명
으로 관람객
이해도 제고

① 묘역은 무덤의 경계를 정한 곳이고, 석물은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 ② 정창손의 묘는 연산군 때 무덤이 파헤쳐지는 형벌에 처하면서 묘지와 석물이 훼손되었다. 이후 중종 때 죄가 풀려 묘를 새로 꾸몄다. 1970년 서울 방이동에 있던 묘를 옮겨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이때 따로 묻혀 있던 부인 청주 정씨와 합장하였다. 묘와 석물은 현대에 다시 만든 것인데, 옛 석물 일부는 옮겨 왔다.

③ 문화재
구조, 형태에
대한 설명을
관람객의
눈에 보이는
요소
중심으로
쉽게 설명.
사진을
활용해 더
쉽게 설명

③ 누구의 무덤인지 표시하는 무덤 앞의 묘표는 총 2기가 있다. 위가 둥근 형태의 비석은 정창손의 묘표이고, 연꽃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머릿돌을 가진 비석은 부인의 것이다. 15~16세기에 만들어진 묘표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문인석은 2쌍이 있는데 돌 표면이 닳은 정도 등으로 볼 때, 아랫단에 있는 문인석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인물의 업적과 생애를 기록한 신도비는 묘역 아래 입구에 있다. 원래의 신도비는 성종 19년1488에 서거정이 글을 지어 세웠으나 연산군 때 파손되었다. 그 후 외손 이원익이 앞장서서 인조 1년1623에 다시 만들었다.

정창손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세종 때 「고려사」, 「세종실록」 등 주요 국가 책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 도움을 주어 공신이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영의정을 지냈다. 정창손이 죽은 이후,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시체를 베는 형벌에 처해졌다. 중종 1년1506에 억울함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②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화재의
연혁에
대한 설명
간결하게
마무리

④ 정창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문화재
자체에 대한
설명 뒤로
배치하면서
문화재
안내판 기능을
강화시켰음.



지평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

소재지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107(지평로)

시대 고려시대



정비 이전



임시 조치

지평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
② 문화재 외관
심하게 훼손

전체적으로
문화재 형태,
규모, 가치,
구조 등에 대한
설명요소가
부족한 안내문

이 탑은 지평리(砥平里) 야산에 있었다고 전하나 원 위치는 확인할 수 없고 1945년 현 위치로 옮겨져 2001년도에 복원한 것이다.

① 2층 탑신석(塔身石)과 3층 탑신석은 복원때 새 석재로 보강하였으며 1층 탑신석 면에는 사면불(四面佛)의 형상으로 각 면마다 좌불이 부조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1층 탑신석에 부조상(浮彫象)을 배치한 것과 옥개석(屋蓋石)이 단정하고 날렵하게 표현된 점 등에서 건립년대는 고려초기(高麗初期)로 추정된다. 탑의 높이는 2.69m이다.

①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형태,
구조 설명

지평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① '석탑'에
대한 문화재
기본설명
으로 관람객
이해도 제고

① 석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축조물*로, 실제 사리가 없는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부처를 모신 곳으로 여겨진다.

②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은 고려 전기에 세운 탑으로 1층 탑
신석** 네 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동서남북 각 방
향에 조각된 불상을 사방불四方佛이라 하고, 탑 중앙에 모셔
진 부처를 합쳐 오방불五方佛이 된다. 부처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통일신라 때 유행하였다.

사방불이 표현된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석탑인 ② 양양 진전
사지 삼층석탑과 비교하면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은 새겨진
부처의 부피감이 적고 손가락 표현이 형식적이다. 또한 옥개
받침지붕 받침이 통일신라의 석탑과 달리 4단인 점으로 미루
어 통일신라 전통을 계승한 고려 시대 초기의 석탑으로 보인
다. 탑에 사방불을 조각한 석탑은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뿐이다.

③ 지역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은 인근
탑사니골 길가에 있었다고 한다. 1936년 큰 비가 내려 탑이
무너져 탑 부재*** 일부를 지평초등학교 옮겨 왔다. 이후 나머
지 부재도 발견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2001년 본래의 모
습으로 복원하였다.

④

* 축조물築造物 : 쌓아서 만든 구조물

** 탑신석塔身石 : 석탑의 몸체를 이루는 돌

*** 부재部材 :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

② 문화재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간결하게
처리하되,
다른 석탑과
비교되는
문화재의
특수성,
전형성
부각.
탑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 추가

④ 각주를
활용해서
어려운 용어
해설

③ 지역
주민에게
전해지는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인용,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이야기로
관람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킴



양평 지평양조장

등록문화재 제594호

분류 등록문화재/ 기타/ 산업시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51-2

시대 일제강점기

관리자 개인소유

양평 지평양조장 楊平 砥平釀造場

등록문화재 제594호

① 문화재
연혁을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

① 양조장은 술을 만드는 공장이다. ② 일제강점기에 설립하여 해방 이후 운영자가 바뀐 후 현재 3대에 걸쳐 이어가고 있다.

② '양조장'에
대한 문화재
기본설명으로
관람객 이해도
제고

③ 문화재
가치를
설명하면서
실제 사용된
용도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통해
구조 설명

③ 1925년 무렵에 세워진 양조장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이다. 한옥 건물에 일본의 건축 기술이 더해졌고, 당시 술 생산 공장의 기능적 특성을 건축적으로 잘 보여 준다. 환기를 위해 높은 창을 두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천장에 왕겨버의 겉껍질을 채웠다. 양조장 안쪽에 있는 우물은 술을 만드는 물로 사용하였다.

④ 지평양조장은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지휘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51년 2월 양평 지평리 일대에서 유엔군은 중공군과 4일간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지평리 전투로 당시 지평리 일대는 폐허가 되었다. 지평양조장은 당시 유엔군 지휘소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건물이 남아 있다.

④ 가능한
가까운 시기의
역사인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통해,
관람객에
이해도를 높임

함께하는 안내판

우리 지역 전문가, 지역학예사와 협업하기 (경남 고성) ... 90



동외동 패총



고성 석마리 석마



고성 농요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시민자문단 운영 노하우 (전북 고창) ... 104



선운사 만세루

·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고창 분청사기 요지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문화재돌봄사업단과 협업하기 (전북 부안) ... 116



부안 내소사 동종

·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고흥건 신도비

·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유형별 전문분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경남 사천) ... 130



사천향교



사천 늑도유적



사천 성황당산성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

문화재 현장과 가까운 지역주민을 시민자문단으로 (경남 산청) ... 144



산청 율곡사 대웅전



산청향교



산청 김후 묘

전문가와 시민자문단의 찰떡 하모니 (서울 송파) ... 154



서울 몽촌토성



서울 방이동 고분군

·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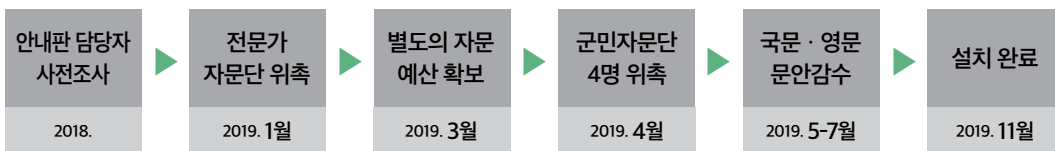
1. 개요



■■■ 경남 고성군은 국가지정문화재 4건, 경상남도지정문화재 24건 등 28건 문화재에 대해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로 안내판이 노후되거나 안내판이 없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노후된 안내판은 인쇄된 부분의 안내 문안이 벗겨지거나 변색되어 글씨가 보이지 않았고, 글씨가 잘 보이더라도 관람객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안내판의 설치 시기도 서로 달라 디자인 면에서도 통일성이 없었고 다른 양식, 색상, 폰트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문화재와 안내판이 너무 근접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이렇게 선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안내판에 지역의 설화/전설 등을 담아 문화재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학예사와 협업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지역 문화재정보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지자체 학예사들은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자료집, 최근 연구경향을 수집하는 한편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안작성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군민들이 문화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또는 몰랐던 사실 등을 정리하여 비교적 균형적인 시선에서 안내문안에 담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남 고성군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2. 사업대상 문화재



운흥사 괘불탱 및 궤(보물 제1317호)
고성 법천사지 승탑군(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농요(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등록문화재 제258호)
고성 석마리 석마(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고성 소산정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3호)
고성 육영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8호)
고성 최필간 고택(경상도 문화재자료 제178호)
고성 봉동리 배씨고가(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6호)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2호)
고성 학림리 최씨종가(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22호)
고성 소천정(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고성 이암 · 이교 유허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9호)
고성 허원필 묘(경상남도 기념물 제271호)
학림리 지석묘(경상남도 기념물 제37호)



고성 갈천서원(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호)
고성 위계서원(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호)
고성 호암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9호)
고성 도산서원(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호)
고성 청광리 창효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35호)
고성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9호)



고성 거류산성(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0호)
고성 소을비포진성(경상남도 기념물 제139호)
고성 천왕점 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221호)
고성 곡산 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236호)



고성 장산숲(경상남도 기념물 제86호)



동외동 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3. 핵심 성공요인

- ➔ 지자체 학예사들과의 협업 계획 수립
-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에게 1차 문화재 기본정보 감수
- ➔ 문화관광해설사 등 ‘군민자문단’을 통해 보다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문장 만들기

■ ■ ■ 고성군이 안내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문화재는 선사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걸쳐 있었다. 또한, 유형 면에서 서원에서부터 국방유적, 분묘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문화재들의 안내문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재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인 지자체 학예사들과 우선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 ■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담당자 1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담당자가 관련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사업 추진 효율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안내판 정비사업은 정비대상 문화재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 ■ 물리적으로 노후된 안내판을 찾아내는 일은 전문성이 없어도 담당자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새로운 연구사실을 담아야 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사전조사를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역사학이나 문화재 관련 지식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안내판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문화재 및 해당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학예사들과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시대에 걸쳐있는 고성군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동외동 패총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초기철기시대 조개더미 유적



학동마을 옛 담장
(등록문화재 제258호)
*조선 이후. 일반 시설물



운흥사 괘불탱 및 궤
(보물 제1317호)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 ■ ■ 고성군은 현황분석을 위해 기존의 안내문안과 관련 조사보고서, 여러 자료집 등을 참고했는데, 이때 지자체 학예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역의 학예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달리 안내문안에 담을 정보에 대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기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학예사들은 오랜 시간 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문화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은 무엇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비교적 균형되게 정리할 수 있다.

■ ■ ■ **지역 학예사들은 기존 문안에서 우선 수정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수정작업을 하고, 각주 등을 추가해 기존 문안에 있던 어려운 용어들을 해설하였다.** 그렇지만 지자체 학예사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내판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안내문안들을 모두 작성하기는 어려웠다. 지자체 학예사들에 의해 완성된 초안은 일차적으로 문화재 관련 분야별로 위촉된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이때 위촉된 전문가 자문단은 건축, 가야사, 고문서, 고생물학, 고고학, 토목, 성곽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다.



■ ■ ■ 고성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자문단 검토 이후, 2차로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예술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민자문단의 도움**을 받았다. 군민자문단은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정보를 안내문안에 담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 디자인과 주변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에 대해 컨설팅하는 역할을 했다. 군민자문단 운영을 위해서는 이메일을 주로 사용했다. 서면으로 작성중인 안내문안 초안을 군민자문위원들에게 발송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다.

■ ■ ■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안내판에 나타내지 못했던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안내판을 읽는 재미를 보다 더 담아 낼 수 있었다. 군민자문단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이처럼 안내문안의 깊이가 일반관광객들의 시각에 맞추어졌다는 점이다.

■■■ 고성군 안내판 정비사업 담당자는 처음 맡았던 문화재 담당업무가 안내판 정비사업이었다고 한다. 관련 전공자도 아니었고, 고성군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매우 난감해했지만, 고성군 안내판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와 계획을 갖고 진행했다.

■■■ 특히,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들은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담당자는 ‘문화재 안내판이 문화재의 얼굴이자 지자체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과정에서 반드시 정확한 고증을 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안의 초안 작성부터 수많은 검토과정, 대학영어 수준 이상의 영문번역 검토, 안내판 제작 발주직전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문안수정 등 이번 사업과정에서 거쳤던 모든 과정들이 비(非)전공자인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담당자는 회고한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업무는, 고성군의 사례처럼 20개 이상 정비대상 문화재가 많았던 경우 문안 검토만으로도 지자체 문화재담당자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충분하다. 그렇기에 반드시 지자체의 학예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지자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이 없거나 타 부서 소속이어서 협조가 어려울 경우, 용역으로 발주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문화재안내판 문안작성을 해본 이력이 있는 연구기관 혹은 업체에 의뢰하도록 고성군 담당자는 조언한다.





고성 동외동 패총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분류 유적건조물 / 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 /

육상유물산포지 / 선사유물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시대 선사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동외동 패총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② 주소지
기입 불필요

②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일원

③ 문장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③ 패총(貝塚)이란 수렵, 어로, 채집에 의지하여 살아온 옛 사람들이 조개 등의 패류(貝類)를 먹고 버린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등이 함께 쌓여 이루어진 유적으로 “조개 더미”라고도 부른다.

고성읍 동외리 당산안에 있는 이 패총은 고성만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개 더미 중의 하나이다. 이 유적은 ③ 우리나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바뀌는 기원 전후 무렵에 이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조개 등을 잡아먹고 버리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동외동 조개더미에 대한 조사는 1969년과 1970년에 동외동 245번지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 여러 종류의 토기와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발견되었다.

또 1974년에는 천도교 고성교회당을 신축하면서 ④ 그 부지에 대한 정지 작업 도 중 유적이 발견되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또 다른 조개더미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곧 제3차 동외동 패총 발굴이다.

이때도 역시 여러 종류의 토기와 ⑤ 토기조각 및 동물 뼈로 만든 화살촉, 중국 한(漢)나라의 거울 조각, 철기류, 불에 ④ 탄 쌀, 사람의 뼈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나라의 거울 조각은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방과의 문화 교류를 전해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고성 동외동패총은 남한시대 문화의 발전을 규명할 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를

⑤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곳이다.

④ 정지작업 등
어려운 용어
사용

⑤ 오타와
띄어쓰기 오류

① 고성 동외동 패총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② (주소삭제)

③ 패총(貝塚)은 수렵, 어로, 채집에 의지하여 살아온 옛 사람들이 조개 등의 패류(貝類)를 먹고 버린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등이 함께 쌓여 이루어진 유적이다. '조개더미'라고도 부른다. 고성읍 동외리 당산 안에 있는 이 패총은 고성만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바뀌는 기원 전후 무렵에 이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조개껍데기 등을 버리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④ 추정한다.

이 동외동 조개더미에 대한 조사는 1969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동외동 245번지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여러 종류의 토기와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발견되었다. 또 1974년에는 천도교 고성교회당을 새로 지으면서 그 부지를 정비하던 중 유적이 발견되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또 다른 조개더미가 발견되었다.

이 때도 역시 여러 종류의 토기와 ⑥ 토기 조각 및 동물 뼈로 만든 화살촉, 중국 한(漢)나라의 거울 조각, 철기류, 불에 ④ 탄 쌀, 사람의 뼈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나라의 거울 조각은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방과의 문화 교류를 전해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⑤ 또한 1995년의 조사에서는 정상부에는 당시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 및 제사유구가 발견되었고 그중 구릉정상 중앙의 평탄면의 제사유구에서 4세기대의 유물인 세무늬청동기가 발견되었다.

유구 및 유물의 발견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동외동패총은 신석기시대부터 가야시대초기까지 고성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업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발견된 유물, 당시의 해안선이 패총의 동쪽 인근까지 위치했던 점 등을 통하여 고성 동외동패총은 신석기부터 문화의 발전을 규명할 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를 ⑥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곳이다.

고성 동외동 패총

Gosong Dongodong Shell Mound, Gosong | 高城洞外洞貝塚



패총(貝塚)은 조개 수렵, 어로, 채집에 의지하여 살아온 옛 사람들이 조개 등의 패류(貝類)를 먹고 버린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등이 함께 쌓여 이루어진 유적으로 '조개더미'라고도 부른다. 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 패총은 고성만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바뀌는 기원 전후 무렵에 이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조개껍데기 등을 버리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고성 동외동 패총에 대한 조사는 1969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동외동 245번지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여러 종류의 토기와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발견되었고, 1974년에는 천도교 고성교회당을 새로 지으면서 조개더미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때 역시 여러 종류의 토기와 토기 조각 및 동물 뼈로 만든 화살촉, 중국 한(漢)나라의 거울 조각, 철기류, 불에 탄 쌀, 사람의 뼈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나라의 거울 조각은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방과의 문화 교류를 전해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또한 199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상부에는 당시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 및 제사 유구가 발견되었고, 구릉 정상에는 4세기 대의 청동기 제 유물인 세무늬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물 등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가야 시대 초기까지 고성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성 동외동 패총은 고성 지역 문화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류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Shell mounds are made of clam, oyster, and other shellfish shells and waste disposed of by prehistoric people. Sometimes, dwelling sites and artifacts including earthenware and stone tools are found near shell mounds. These remains are important resources to understand the prehistoric period, includ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culture and lives of people. Gosong Dongodong Shell Mound was discovered along the bay shore in Gosong-e. It is presumed to date back to around the 1st century BC. Excavation surveys conducted in this site between 1969 and 1970 remained dwelling and ritual sites along with various types of earthenware, earthenware made of animal bones, iron tools, burnt rice grains, and human bones. The discovery of a fragment of a mirror from Han China (206 BCE-220 CE) indicates that the people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d exchanges with Han China.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기

② 주소삭제

③ 복잡한 문장을 짧고 단순하게 수정

④ 국어 문화원 의견을 반영하여 국어용법을 더 좋은 용법으로 개선

⑥ 오타와 띄어쓰기 수정

⑤ 최신 발굴성과 반영



고성 석마리 석마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분류 유물 / 기타종교조각 / 민간신앙조각 / 석조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시대 미상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마암면 석마(馬岩面 石馬)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② 주소 기입
불필요

②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608

돌로 만든 이 한 쌍의 말[石馬]은 마을의 수호신을 받드는 당산(堂山)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마신”, “마장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길이는 각각 1.5m, 2.1m이고, 높이는 45cm, 50cm로 암수 한 쌍인 듯 보이나 구분되지는 않는다. 얼굴 부분이나 형상으로만 보면 말 보다는 양(羊)과 닮은 부분이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자 백발노인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한 쌍의 돌말을 만들고 큰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후 다시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자 이 돌말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③ 동제 등
어려운 용어
사용

마을에서는 돌말 앞에서 ③ 동제를 지내고 있다. 음력 정월 보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지내는데 그 날 밤에 돌말 앞에 ④ 풍 한 말을 바치고 다음날 다시 걸어 들

④ 풍(풍),
걸어 들이는
(거뒤풀이는)
등 오타

이는 형태로, 다른 동제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또한 말의 영혼에게 보내는 축문을 읽는데, 신마(神馬)가 나타나 모든 재앙을 물리친다는 “마단영축문(馬壇靈祝文)”을 읽으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점도 특색이 있다.

⑤ 복잡하고
긴 문장

⑤ 이 석마를 상고시대에 만들었다고 전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말을 숭배하는 것은 유목 민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전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제사의 일부로 섬기는 예는 더러 있으나, 이처럼 동제의 주신으로 섬기는 예는 매우 보기 드문 예다.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예술 작품으로서 중요한 민속자료이다.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기

① 고성 석마리 석마 固城 石馬里 石馬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② 주 소 삭 제

② (주 소 삭 제)

③ 석마는 돌로 만들어 세워 놓은 말이다. 마암면 석마는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을 지켜 주는 신이 있다고 여기는 마을 근처의 산인 당산(堂山)에 있다. 마을에서는 “마신”, “마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길이는 각각 1.5m, 2.1m이고, 높이는 45cm, 50cm로 압수 한 쌍인 듯 보이나 구분되지는 않는다. 얼굴과 형상으로만 보면 말보다는 양(羊)과 닮았다. 마을에서는 석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한 백발노인이 돌로 한 쌍의 말을 만들고 큰 제사를 지내라고 일러 주었다. 백발노인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석마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더니 호랑이가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석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석마 앞에서 ④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인 동제(洞祭)를 지내고 있다. 동제 때 말을 섬기는 의식을 하는 곳이 더러 있으나 이 마을과 같이 말을 동제의 주체가 되는 신인 주신(主神)으로 섬기는 곳은 드물다. 동제를 지낼 때 석마 앞에 ⑤ 콩 한 말을 바치고 다음 날 다시 거두어들인다.

⑤ 오 타 수정

⑥ 또 신령스러운 말인 신마(神馬)가 나타나 모든 재앙을 물리친다는 “마단영축문(馬壇靈祝文)”이라는 축문을 읽기도 한다.

③ 문화재에
관한
기본설명
추가



공공언어
전문가



석마가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잘 드러나 내용 구성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쉬운 어휘로 작성되어 있어요.

④ 어려운
용어(동제)를
풀어서 설명

⑥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하면서, 긴
문장을 짧고
단순하게 수정

고성 석마리 석마 固城 石馬里 石馬 Stone Horses in Seongna-ri, Goseong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Gyeongangnam-do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 1

석마는 돌로 만들어 세워 놓은 말이다. 고성 석마리 석마는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을 지켜 주는 신이 있다고 여기는 마을 근처의 산인 당산(堂山)에 있다. 마을에서는 “마신”, “마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길이는 각각 1.5m, 2.1m이고, 높이는 45cm, 50cm로 압수 한 쌍인 듯 보이나 구분되지는 않는다. 얼굴과 형상으로만 보면 말보다는 양(羊)과 닮았다. 마을에서는 석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한 백발노인이 돌로 한 쌍의 말을 만들고 큰 제사를 지내라고 일러 주었다. 백발노인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석마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더니 호랑이가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석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았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석마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인 동제(洞祭)를 지내고 있다. 동제 때 말을 섬기는 의식을 하는 곳이 더러 있으나 이 마을과 같이 말을 동제의 주체가 되는 신인 주신(主神)으로 섬기는 곳은 드물다. 동제를 지낼 때 석마 앞에 콩 한 말을 바치고 다음 날 다시 거두어들인다. 또 신령스러운 말인 신마(神馬)가 나타나 모든 재앙을 물리친다는 “마단영축문(馬壇靈祝文)”이라는 축문을 읽기도 한다.

This pair of granite horses are regarded as the guardians of Seongna-ri village. It is unknown when they were made. According to a local legend, this village was frequently attacked by tigers from a nearby mountain. One day, a grey-haired elder came and advised the villagers to make a pair of stone horse statues and conduct a ritual. They followed his advice and performed a ritual of the stone horses. Following this, the tigers did not reappear. The villagers thereafter regarded these horses as village guardians and called them "horse gods" or "horse generals". Rituals for the wellbeing of the village are still conducted in front of the statues on the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year. The names of the surrounding area, Seongna-ri and Maam-myeon, meaning "a village of stone horses" and "a township of horse rocks," respectively, also come from these statues. The statues measure 1.5 m and 2.1 m in length and 45 cm and 50 cm in height, respectively.



고성 농요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분류 무형문화재 / 전통 공연 · 예술 / 음악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45

시대 미상

고성 농요 (固城 農謠)

① 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

① 문화재 지정
명칭 오류

② 불필요한
주소 기입

②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③ 전문용어
사용

고성 농요는 하지 무렵부터 시작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루며, 등지라고도 한다.

등지란 모내기 소리를 뜻하는 경남지방의 사투리이다. ③ 고성지방 농민들은 힘든 일을 할 때 땀방울과 고달픔을 농요를 부르면서 씻어왔고 농요를 통하여 단결심을 강조하여 일의 능률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경상감사가 고성 들판을 지나다가 모내기하는 농민들의 등지 소리에 도취되어 행렬을 멈추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마을에서 밤을 새웠다고도 한다.

고성농요는 모판에서 ③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기등지,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등지, 보리타작하며 부르는 도리깨질소리, 김 맬 때 부르는 상사소리 및 방아타령 등으로 이밖에 부녀자들이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삼삼기소리, 물레질하며 부르는 물레타령 등이 있다.

고성농요를 마당놀이로 공연할 때는 모찌기소리, 모내기소리, 도리깨질소리, 삼삼기소리, 논매기소리, 물레질소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고성농요의 노랫말에는 이 고장 농민들의 생활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풍긴다. 고성농요는 투박하고 역센 경상도 특유의 음악성을 간직한 경상도 노래이지만, 지리적인 영향으로 음악적인 면에서는 전라도의 ③ 계면조 선율구조로 되어 있다

고성 농요 固城 農謠

① 변경된
문화재 지정
명칭 반영

①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②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추가

② 농요는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고성 지방에서는 농요를 ‘등지’라고 하기도 한다. 등지란 모내기 소리를 뜻하는 경남 지역어이다. 조선 후기에 경상감사가 고성 들판을 지나다가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부르는 등지소리에 도취되어 행렬을 멈추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마을에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성 농요는 하지 무렵부터 시작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룬다. ③ 농민들은 힘든 농사일의 고달픔을 농요를 부르면서 달랬고, 농요를 함께 부르면서 일의 능률을 올렸다.

노랫말에는 이 고장 농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풍긴다. 투박하고 억센 경상도 특유의 음악성을 간직한 경상도 노래지만, 지리적인 영향으로 ④ 음악적인 면에서는 슬프고 애타는 느낌을 주는 음조인 전라도의 계면조 선율구조로 되어 있다.

모판에서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기 등지’,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 등지’, 보리타작하며 부르는 ‘도리깨질 소리’, 김

③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략하게 수정

④ 음조에 대한
설명 추가하고,
기본적 정서를
추가함



매 때 부르는 ‘상사 소리’ 및 ‘방아타령’ 등이 있으며, 부녀자들이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삼 삼기 소리’, 물레질하며 부르는 ‘물레타령’ 등이 있다.

고성 농요를 마당놀이로 공연할 때는 모찌기 소리, 모내기 소리, 도리깨질 소리, 삼 삼기 소리, 논매기 소리, 물레질 소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언어
전문가



농요의 가사
내용, 가락, 종류 등이
균형있게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농요는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고성 지방에서는 농요를 ‘등지’라고 하기도 한다. 등지란 모내기 소리를 뜻하는 경남 지역어이다. 조선 후기에 경상감사가 고성 들판을 지나다가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부르는 등지소리에 도취되어 행렬을 멈추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마을에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성 농요는 하지 무렵부터 시작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룬다. 농민들은 힘든 농사일의 고달픔을 농요를 부르면서 달랬고, 농요를 함께 부르면서 일의 능률을 올렸다.

노랫말에는 이 고장 농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풍긴다. 투박하고 억센 경상도 특유의 음악성을 간직한 경상도 노래지만, 지리적인 영향으로 음악적인 면에서는 슬프고 애타는 느낌을 주는 음조인 전라도의 계면조 선율구조로 되어 있다.

모판에서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기 등지’,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 등지’, 보리타작하며 부르는 ‘도리깨질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상사 소리’ 및 ‘방아타령’ 등이 있으며, 부녀자들이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삼 삼기 소리’, 물레질하며 부르는 ‘물레타령’ 등이 있다.

고성 농요를 마당놀이로 공연할 때는 모찌기 소리, 모내기 소리, 도리깨질 소리, 삼 삼기 소리, 논매기 소리, 물레질 소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Farmers' songs, called nongyo in Korean, are call-and-response style songs sung in rhythm to the farming motions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to withstand the exhaustion of laborious farming work, and to wish for an abundant harvest. The farmers' Song of Goseong mainly focuses on farming activities that begin around the summer solstice. The song has sections about rice seedling picking, rice seedling transplanting, threshing, weeding, milling, hemp spinning, and yarn spinning. The lyrics embody the rustic and tough sentiments of local farmers while the melodies display the influence of sorrowful Jeolla region songs, probably due to the area's geographic proximity to Jeolla-do Province. According to a local legend, a governor of Gyeongsang-do Province was passing through a field in Goseong. He was so fascinated by the sound of the farmers' song that he stopped his procession to spend hours listening to this music.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록문화재 제258호

분류 등록문화재 / 기타 / 기타 시설물

소재지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917-1

시대 조선시대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록문화재 제258호

① 너무 긴 문장

① 서기 1680년 무렵 전주최씨 선조의 꿈에 학이 동지에 알을 품은 모습의 꿈을 꾸고 날이 밝아 찾아 가보니 과연 산수가 수려하고 학이 알을 품은 형국이라 자손 대대로 번성할 길지로 믿고 ②입향조(入鄕組), 최형태(崔亨泰)와 후손 주민의 의지로 개척하여 마을 이름을 학동(學洞)으로 개동한 유서깊은 마을로서, 개척할 때 마을과 주변 골짜기에 널린 자연석을 활용하여 담장(강담, 토담), 주택②기단, 돈대, 논, 밭, 하천, 독을 모두 이 지역에서 생겨난 돌과 흙으로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방법으로 조성하였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목적으로 비교적 높이 쌓았고 사람 키 높이에 가난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거리를 내어주던 구휼구멍도 볼 수 있다. 학동마을 옛 담장의 특색은 토담의 ②윗 마감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②점판암개석(蓋石)으로 한 것이다. 이른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학동마을 옛 담장만의 특징이다.

②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 해설없이 사용

③ 문화재 지정사유를 안내문안에 인용하였으나, 문화재 가치가 잘 드러난 인용은 아님.

③ 이처럼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옛 담장은 문화재청에서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주변의 대숲과 잘 어우러져 수백년을 거슬러 고성(古城)으로 끌어 들이는 듯한 마을의 긴 돌담길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국가등록문화재 제258호

① 마을 담의
재료와 축조
방식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화재적
특징도 함께
설명

고성 학동 마을 옛 담장은 ① 마을과 주변에 있는 자연석인 점관암개석(蓋石)과 흙으로 쌓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학동 마을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고성으로 끌어 들이는 듯한 마을의 긴 돌담길은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주변의 대숲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교적 높게 쌓았다.

② 담장에는 사람 키 높이 정도에 난 구멍이 있는데, 이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거리를 내어주던 구휼 구멍이다.

한편, 이 마을은 1680년 무렵 최형태(崔亨泰)가 후손과 함께 개척했다. 전주 최씨 선조가 꿈에서 본 장소를 찾아가 보니 지형이 마치 학이 알을 품은 모습과 같았다. 자손 대대로 번

②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
추가

③ 지도를
통해 담장의
전체 구조를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게 함.



국가등록문화재 제258호

고성 학동 마을 옛 담장은 마을과 주변에 있는 자연석인 점관암개석(蓋石)과 흙으로 쌓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학동 마을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고성으로 끌어 들이는 듯한 마을의 긴 돌담길은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주변의 대숲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교적 높게 쌓았다. 담장에는 사람 키 높이 정도에 난 구멍이 있는데, 이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거리를 내어주던 구휼 구멍이다.

한편, 이 마을은 1680년 무렵 최형태(崔亨泰)가 후손과 함께 개척했다. 전주 최씨 선조가 꿈에서 본 장소를 찾아가 보니 지형이 마치 학이 알을 품은 모습과 같았다. 자손 대대로 번성할 길한 곳이라 여기고 이름을 학동(鶴洞)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성할 길한 곳이라 여기고 이름을 학동(學洞)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Old Walls of Hakdong Village, Goseong

The old walls of Hakdong Village were presumably built around 1680 when Choe Hyeong-tae of the Jeonju Choe Clan settled in this area and established the village. The walls form winding alleys between the various properties of the village.

The high walls were built with clay and 2-3 cm-thick flat stones from the nearby Sutaesan Mountain. The stone foundations of the houses in this village were made in a similar way to create a harmonious landscape. Some of the wealthy families of the village created holes in the old walls surrounding their properties to pass food to needy people.

The village was named Hakdong, meaning "crane village," because the topography of this village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Korean feng shui principles as a crane sitting on eggs.

1. 개요



■■■ 고창군은 이번 사업의 목표를 '관람객을 위한 안내판 만들기'로 잡았다. 안내문안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고창군과 해당 문화재의 관련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문안을 집필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안내문안을 읽은 관람객들에게 해당 문화재와 고창군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고창군 사업 담당자는 문화재 관련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고창군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안내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내판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고창군은 국가지정문화재 5건, 전라북도지정문화재 7건 등 모두 12건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재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전문지식을 담으면서도 읽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고창군 안내판 사업담당자는 **자문위원 5명을 각각 찾아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받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현장을 찾아, 해당 문화재를 **관람하던 시민들에게** 작성중이던 초안에 대한 **'현장 평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그림과 도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들은 각주를 달아 해설하는 등 읽기 쉬운 안내문안이 나올 수 있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전라북도기념물 제117호)

고창 교촌리 멸구슬나무(천연기념물 제503호)

나한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0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천연기념물 제354호)

무송리 석불좌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7호)



운선암 마애여래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2호)

선운사 만세루(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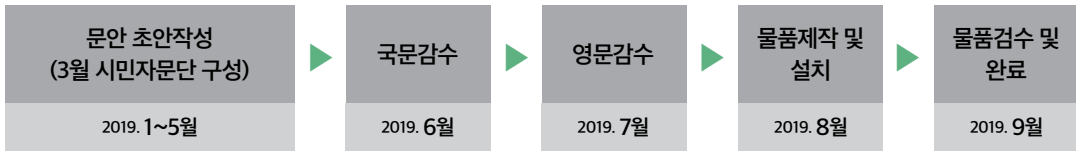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보물 제120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사적 제250호)



흥동장학당(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40호)



3. 핵심 성공요인

-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운영
- 지자체 담당자가 자문위원 한 명 한 명 찾아 안내문안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
-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현장에서 젊은 연령층 관람객들에게 초안에 대해 '현장평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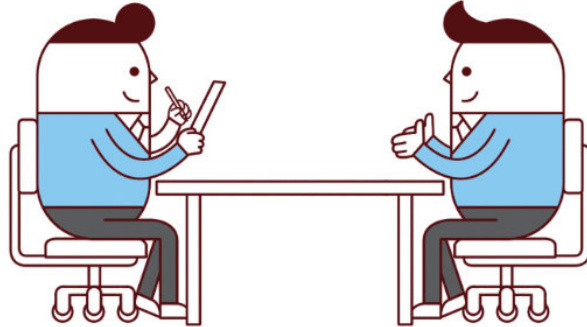
■ ■ ■ 고창군 사업의 특징은 시민자문단 운영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시민자문단 별칭이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시민자문단'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개별 자문위원 간에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쳤다**. 고창군 시민자문단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화재 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인, 향토 전문가 1인, 안내문안 집필 자문이 가능한 출판사 대표 2인 등 총 5인이다.

■ ■ ■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2018)에 따르면, 안내문안은 알기 쉽게 쓰

면서도 문화재 기본정보를 담아야 한다. 시민자문위원들에게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자문을 요청하였는데, 공무원 2인과 향토 전문가 1인은 안내문안에 담을 문화재 기본정보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출판인 출신 자문위원들은 문화재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제시한 전문적인 정보들에 대해, 관람객들을 위한 표현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꼭 필요하긴 한데,
좀 틀어 설명해야겠네요.



상원사 대웅전 관련 시민자문단 의견

생명이 하등동물에게만 존재하기 위하여 생식한 동물은 이차양생으로
 진화하여서 자연의 강에 생식하였는데, ~~이차양생 동물~~
 이차양생이라 되므로 부영생 생식하여 치마조는 강에 내어넣
 겠지마는 겁이다. 동계하는 부계 양분이 보양은 그저
 단행은 부려라 동인지 음모 ~~동계하는~~ (성) 구름 단행은
 겁이 없다.

■■■ 안내문안을 읽는 관람객들은 해설대상 문화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문화재를 방문할 때 **흥미를 끌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와 재밌는 이야기를 문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 안내문안은 문화재 일반 정의 → 용어 설명 → 연혁(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관람객이 꼭 알고 가야 할 해당 문화재 특징과 가치 → 설화·전설·민담 등의 순서로 기술해보고자 했다. 이렇게 쓰여진 문안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현장에서 그 의견을 살펴보고자 했다. 고창군 **사업담당자는** **시민자문단 외에도 안내관 정비 현장에 찾아가**, 해당 문화재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직접 집필 중인 안내문안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역사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문장이해도는 성인보다 높지 않은 고등학생 관람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시민자문단 의견이 반영된 수정문안에 현장 관람 시민 의견 수렴과정

문화재 안내판 문구 의견

나이 : 17 성별 : 남

정비 문구를 기존 문구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문화재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정비 문구가 약간 길어서 내용을 보기도 귀찮고 소리 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바를 위해서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에 있는 예를 작별 때 한 명가도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귀찮아하는 거니까 대충입니다.

4. 추진성과



선운사 만세루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불전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시대 고려시대



선운사 만세루 (禪雲寺 萬歲樓)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① 불필요한 주소 기입 → ①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만세루는 불법을 배우는 승려들의 강의실이다. ② 백제 위덕 왕24년(577)에 검단 선사가 선운사를 짓고 남은 목재를 사용하여 지었다는 설도 있고 또 고려시대의 건물이라는 말도 있다.

③ 형태, 규모, 가치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게 표현 → 그러나 ③ 지금의 건물은 19세기 말에 보수된 것이다. 이 건물은 비대한 자연목을 껍질만 벗기고 다듬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여 소박함과 함께 넉넉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외관 불량, QR코드 불량

② 스토리텔링 이라기 보다는 불분명한 사실 전달

선운사 만세루 (禪雲寺 萬歲樓)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① 주소 삭제 → ① 주소 삭제



만세루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 선사가 선운사를 짓고 남은 목재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전과 마주 보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설법(불교의 가르침을 풀어 밝힘)을 하는 강당이다. 최근에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선운산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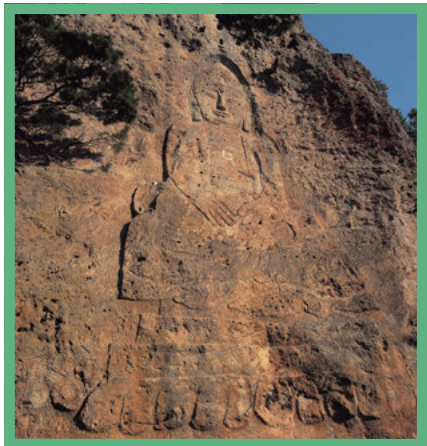
선운사 만세루는 안팎으로 정제된 법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건물이다. ② 만세루의 루(樓)는 누각(樓閣,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을 뜻하지만 일반적인 누각의 모습이 아니라 넓은 평면에 비해 높이가 낮은 형태의 누각이다. ③ 또한 보기에는 단순한 구조에 장엄한 외관이지만 내부 공간을 보면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가지각색으로 휘어 있다. 부재를 다듬지 않은 채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둥 위아래를 다른 것으로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이러한 부재 사용 방법은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하나같이 온전한 것이라고는 없는 것들이 모여 이렇게도 멋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만세루의 멋 중 하나이다.

② 누각 개념 설명

③ 형태, 규모, 구조 설명. 높이가 낮은/평면이 넓은 등의 표현으로 수치 표현 배제

④ 문화재 가치 공감할 수 있도록 기술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00호

분류 유물/ 불교조각/ 석조/ 불상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시대 고려시대 추정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보물 제1200호

② 주소지
불필요

②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고려시대에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애불상 중의 하나로 미륵불로 추정된다. ③ 지상 3.3m의 높이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불상의 15.6m, 폭이 8.48m가 되며, 연꽃무늬를 새긴 계단모양의 받침돌까지 갖추었다. 머리 위의 구멍은 동불암이라는 누각의 기둥을 세웠던 곳이다.

③ 지상, 폭, 넓이 등 형태에 대한 묘사내용이 너무 많음

④ 비결록, 감실 등의 어려운 용어 사용

④ 명치 끝에는 검단선사가 쓴 ④ 비결록을 넣었다는 ④ 감실이 있다. 조선 말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이서구가 감실을 열자 갑자기 풍우와 뇌성이 일어 그대로 닫았는데, 책 첫머리에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 본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전한다. ⑤ 이 비결록은 19세기 말 동학의 접주 손화중이 가져갔다고 한다.

⑤ 전설의 의미 등 바로 이해하기 어려움

① 문화재
명칭
명확하게
기재

①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00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삭제)

③ 마애불에
대한 설명
추가

③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은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으로, 신체 높이가 약 15.7m, 무릎 너비는 약 8.5m이며 연꽃무늬를 새긴 받침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④ 마애불의 양식으로 보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성 시기는 신라 말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새겼다는 전설도 있다.

④ 문화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추가

마애불 머리 위에는 네모난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 목재가 박혀 있는 것도 있다. 이것들은 마애불의 장엄함을 위해 설치한 ⑤ 단집법당의 부처를 모신 자리 위에 만들어 다는 집모형이 있었던 흔적이다.

⑧ 문화재와
관련된
전설에 대한
그림(상상화)
추가

가슴 아래 새겨진 복장불상(佛像)을 만들 때, 그 가슴에 금·은·칠보(七寶)와 같은 보화(寶貨)나 서책(書冊) 따위를 넣음에는 ⑥ 비밀스러운 기록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내용은 복장 안에 보관된 비기가 알려지는 날 조선은 망한다는 것이다. 18세기 말 전라



고건축전문가



역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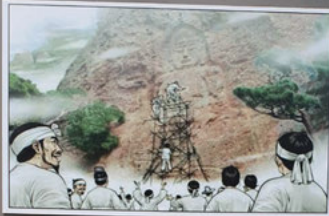
그림을
활용하여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요. 전설을
통해 문화재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⑤ 어려운
단어는 주석
넣음

⑥ 비결록을
비밀스러운
기록으로
풀어서 설명

⑦ 전설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
추가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高敞 禪雲寺 東佛庵址 磨崖如來坐像
Rock-carved Seated Buddha at Dongbunam Hermitage Site of Seonunsa Temple, Gochang
보물 제1200호
Treasure No. 1200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은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으로, 신체 높이가 약 15.7m, 무릎 너비는 약 8.5m이며 연꽃무늬를 새긴 받침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마애불의 양식으로 보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성 시기는 신라 말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새겼다는 전설도 있다.

마애불 머리 위에는 네모난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 목재가 박혀 있는 것도 있다. 이것들은 마애불의 장엄함을 위해 설치한 단집법당의 부처를 모신 자리 위에 만들어 다는 집모형이 있었던 흔적이다.

가슴 아래 새겨진 복장(佛藏)을 만들 때, 그 가슴에 금·은·칠보(七寶)와 같은 보화(寶貨)나 서책(書冊) 따위를 넣음에는 비밀스러운 기록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내용은 복장 안에 보관된 비기가 알려지는 날 조선은 망한다는 것이다. 18세기 말 전라감사 이서구가 그 기록을 꺼내 보려다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져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 본다'라는 대목만 보고 도로 넣었다고 한다. 100여 년 후 동학농민혁명이 율트던 1892년에 동학 접주 손화중이 그 기록을 무사히 꺼내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농민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This rock-carved Buddha is said to have been made by Buddhist monk Geomdan, the founder of Seonunsa Temple, on the request of King Wideok (r. 554-598) of the Baekje kingdom. However, the sculptural features of this Buddha are more representative of rock-carved Buddhas made during later periods.

This Buddha is sitting on a pedestal carved with a lotus petal design. The carving measures 15.5 m in height and 8.5 m in width between the knees. There was once a wooden canopy above the Buddha's head, built as a protective structure for the Buddha. Holes remain where the wooden canopy was once installed. The square carving at the center of the Buddha's chest is believed to be a chamber for enshrining sacred objects. An old local legend says the chamber once contained a mythical divination about the country's for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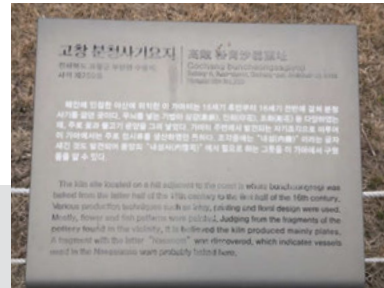
감사 이서구가 그 기록을 꺼내 보려다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져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 본다'라는 대목만 보고 도로 넣었다고 한다. ⑦ 100여 년 후 동학농민혁명이 율트던 1892년에 동학 접주 손화중이 그 기록을 무사히 꺼내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농민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고창 분청사기 요지

사적 제250호

분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요업 / 도자기가마
소재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번지
시대 시대미상



고창 분청사기 요지

① 주소지 불필요 → ①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사적 제250호

해안에 인접한 야산에 위치한 이 가마터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분청사기를 굽던 곳이다. 무늬를 넣은 기법이 ④ 상감, 인화, 조화 등 다양하였는데, 주로 꽃과 물고기 문양을 그려 넣었다. ② 가마터 주변에서 발견되는 자기 조각으로 미루어 이 가마에서는 주로 접시류를 생산하였던 듯하다. ③ 조각중에는 “④내섬”이라는 글자 새긴 것도 발견되어 중앙의 “내섬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릇을 이 가마에서 구웠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떤 조각인지 설명이 부족함

④ 어려운 용어를 해설없이 사용

③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설명 부족

고창 분청사기 요지

사적 제250호

① 주조 삭제

① (주조삭제)

② 분청사기
요지에 대한
기본 설명
추가

② 분청사기는 조선 시대에 만든 자기(瓷器)의 하나이다. 회색 또는 회흑색의 도자기를 만드는 흙 위에 백토(白土)로 분을 발라 다시 구워 낸 것으로, 회청색 또는 회황색을 띤다. '요지'는 분청사기를 구웠던 가마터를 말한다.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인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까지 왕실과 관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5세기 후반부터는 왕실과 관아에서 경기 광주 일대의 백자를 주로 사용하면서 분청사기의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었다.

고창 분청사기 요지는 발굴 조사를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2015년 1차 발굴 조사에서 가마 3기(1~3호)가 확인됐고, 2016년 추가 발굴 조사에서 2기(4~5호)의 가마·1기의 온돌시설·6곳의 폐기물 퇴적구 등이 확인되었다. ③ 발굴된 가마터의 상태가 온전하여 우리나라 분청사기 제작의 과정을 이해 하는 데에 중요한 유적이다.

④ 출토물에
대한 설명과
그림 추가

④ 출토품들은 생활용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 활동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토품 중에 내섬(內贍)*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릇이 다수 확인됐는데, 이로써 이곳에서 관청용 분청사기도 제작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은 다양한 기법과 장식 등의 변천, 공납용과 민수용 자기의 차이점, ⑤ 분청사기가 점차 백자화 되어 가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⑤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설명

⑥ * 내섬(內贍): 조선 시대에 2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술과 안주를 주는 등의 일을 맡은 관청을 '내섬시(內贍寺)'라 한다. '내섬'은 '내섬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문화재
가치에 대한
설명 추가

⑥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추가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천연기념물 제503호

분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생물과학기념물 / 대표성

소재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내 (교촌리, 고창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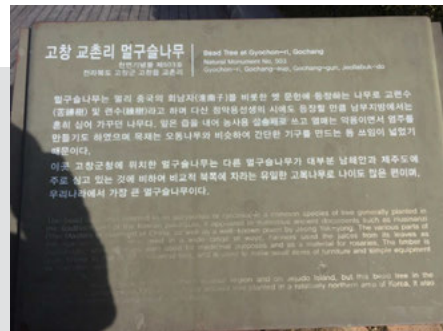
시대 시대미상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천연기념물 제503호

① 주소지
불필요

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③ 문장 주어가
불명확함

멀구슬나무는 멀리 중국의 ② 회남자(淮南子)를 비롯한 옛 문헌에 등장하는 나무로 ② 고련수(苦練樹) 및 ②련수(練樹)라고 하며 다산 정약용선생의 시에도 등장할 만큼 남부지방에서는 흔히 심어 가꾸던 나무다. ③ 잎은 즙을 내어 농사용 살충제로 쓰고 열매는 약용이면서 염주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목재는 오동나무와 비슷하여 간단한 기구를 만드는 등 쓰임이 넓었기 때문이다.

이곳 고창군청에 위치한 멀구슬나무는 다른 멀구슬나무가 대부분 남해안과 제주도에 주로 심고 있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북쪽에 자라는 ④ 유일한 고목나무로 나이도 많은 편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멀구슬나무이다.

② 회남자, 고련수,련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④ 생태적 가치만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 등 지정가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고창 교촌리 멸구슬나무

천연기념물 503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삭제)

② 멸구슬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추가

② 멸구슬나무는 따뜻한 아열대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추위를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역인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고창 교촌리 멸구슬나무는 비교적 ③ 북쪽에서 자생하는 유일한 고목이다. 수령은 200여 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약 14m · 둘레 4.1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멸구슬나무여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다산 정약용이 1803년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 쓴 시 <전가만춘(田家晩春)>.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관련이 깊은 나무이다.

③ 문화재에
대한 생태적 ·
학술적 · 문화적
가치 제시

④ 문장
주어를
명확하게
수정

④ 멸구슬나무는 예로부터 잎은 즙을 내어 농사용 살충제로, 열매는 약과 염주로, 목재는 간단한 가구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씨에서 추출한 오일은 삼푸 · 비누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⑤ 멸구슬나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나무의 열매가 염주로 쓰여서 '목구슬나무'로 부르던 말이 변형됐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가 말뚝(멸)과 닮아서 제주 방언인 '머구슬낭'이 '멸구슬나무'로 변형됐다는 설도 있다. 멸구슬나무는 고통을 연마하는 나무라 하여 고련수(苦楝樹) 또는 연수(楝樹)라고도 부른다.

⑤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하고,
기존
이야기를
보완



⑥ 사진
자료 추가

출판사대표
의견
이미지를
통해 식물에
대한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1. 개요



■■■ 부안군은 이번 사업에서 전북 서부 문화재 돌봄사업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10건, 전라북도지정문화재 8건 등 모두 18건의 문화재에 대해 안내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문화재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일상관리, 경미수리 등을 수행하며, 문화재 안내관의 상태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내관 정비사업에서 문화재 돌봄사업단과 협업을 하는 경우, 돌봄사업단의 사전지식을 활용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사적 제103호)
고흥군 신도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1호)

부안 내소사 동종(보물 제277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
내소사 삼층석탑(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24호)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내소사 일원(전라북도 기념물 제78호)
내소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8호)
부안 실상사지(전라북도 기념물 제77호)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55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제123호)

부안 중계리 팽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제124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70호)



부안 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보물 제900호)



부안 죽막동 유적(사적 제541호)
사산리 와요지(전라북도 기념물 제40호)



위도관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부안 실상사지(전라북도 기념물 제77호)



3. 핵심 성공요인

- 전북 서부 문화재 돌봄사업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전문성있는 협업
-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고 대중들이 쉽게 참고하는 자료를 인용
- 문화관광해설사 등 '군민자문단'을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문장 만들기



■■■ 부안군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대상은 18건으로, 1명의 담당자가 이처럼 많은 문화재에 대해 안내문안을 작성하고, 안내판 교체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부안군은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전북 서부 문화재 돌봄사업단(전북대)이 용역을 수행하였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문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재의 일상관리와 경미한 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북 서부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부안군 정비대상 문화재를 찾다니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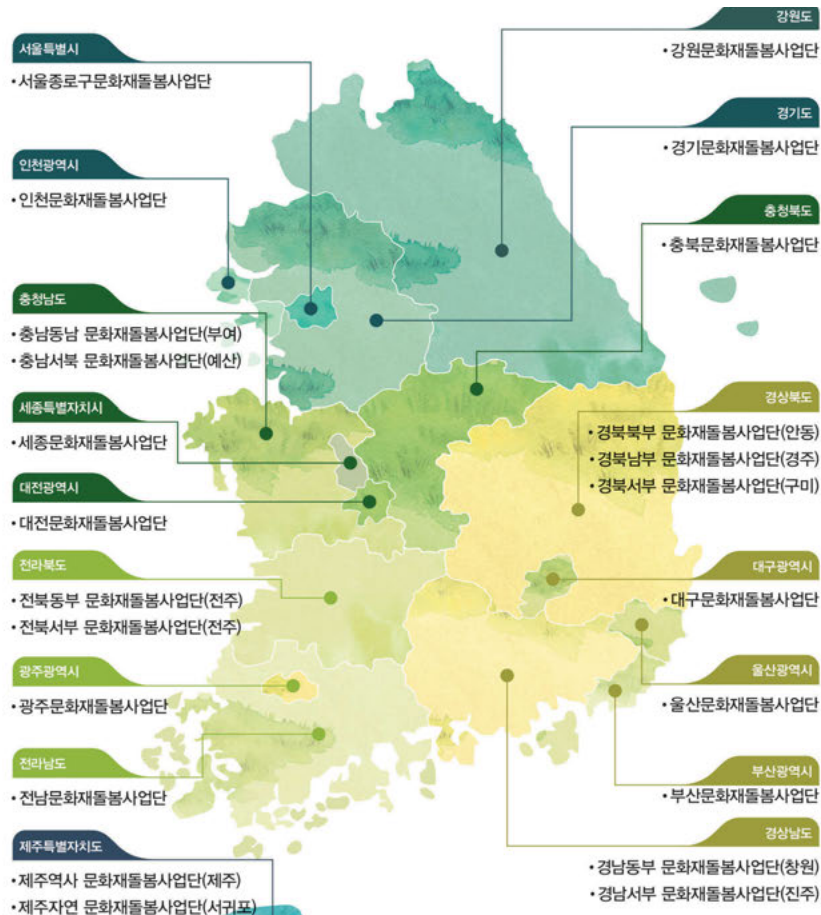
별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문안을 작성하였다. 돌봄사업단은 직접 문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그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안내판의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그 주변지역의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료와 지식도 풍부하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과 돌봄사업의 연계는 안내판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재 돌봄사업이란?

문화재청은 전국의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문화재 7,600여 건(2019년)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매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0년 5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전국의 23개 단체가 7,587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돌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 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200여 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90여 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모니터링 실습교육을 시행하여 상시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부안군의 사례와 같이,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돌봄사업단과 협업하여 효율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매년 지역의 돌봄사업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소재한 전문인력인 만큼, 지역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높은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재 안내판의 상태나 안내문안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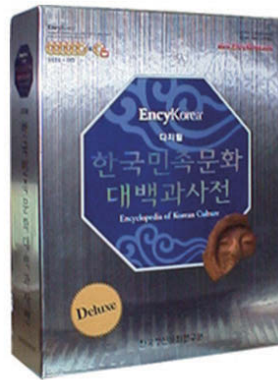


전국 문화재돌봄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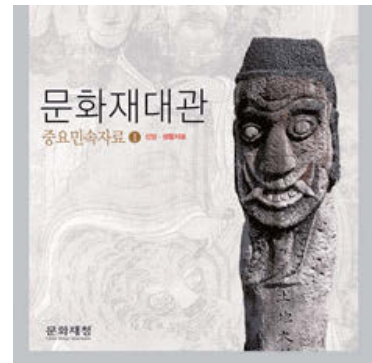
■ ■ ■ 부안군의 문화재 안내문안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화재대관 등의 기초자료 외에도 네이버, 두산백과, 대한민국구석구석, 문화콘텐츠닷컴 등의 인터넷 자료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립전주박물관 전시패널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지는 않지만, 문화재의 가치와 의의 등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화재대관



전문가 자문과정을 통해 문화재 기본정보를 내실 있게 담을 수 있는 안내판 작성

■■■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로 비교적 대중적인 문안을 작성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기본정보를 집약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문화재를 처음 찾는 관람객에게까지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부안군의 문안 정비는 ① 지식묘·관아 등의 일반적인 정의 추가, ② 문화재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설명 추가, ③ 어려운 용어 설명 추가, ④ 크기에 대한 과도한 내용 삭제, ⑤ 문화재청 기준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과 소재지 삭제 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문안의 글자수는 주로 300~500자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전문가 자문의견서

■■■ 전북대학교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초안 작성 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은 온라인으로 초고 발송 후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안내문안의 신뢰도를 높을 수 있었다.

자문의견서 1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1. 1개소 안내판 문안 내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2. 부안 팽괘나무 군락의 문안 중에서 ‘이 건물에는 ~알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로 되어 있어서 ‘이 건물에는 ~ 건물이다.’로 간결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의 문안 중에서 ‘조선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원종공신’이라는 문장과 뒤의 ‘정유재란 때 의병장으로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오른~’을 비교해 보면, 뒤는 선무원종공신이라고 써 있는데 반해 앞은 원종공신으로라고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은 정국원종공신인데 이렇게 표현하던지, 아니면 뒤의 선무를 삭제하던지 해서 통일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4. 작성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많습니다. ‘출토 되었는데~했다.’, ‘격포진이 있었는데~활용되기도 했다.’, ‘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격포진이 있었으며~활용되기도 했다.’와 같이 끝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문의견서 2

우선은 현재 작성된 문안은 문화재청 안내판 작성 기준에 맞춰 완성도 있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채석강, 적벽강의 명승 지정 이유가 화강암과 편마암의 기저층 층계구조의 가치 때문인데, 이 부분을 보완하여 서술하였으면 합니다.

상록이라는 식물분류학의 용어를 우리식으로 풀다면 늘 푸른 큰 잎이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선에서는 학술적 용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기초 자료 조사
(출처: 부안군 안내판 정비사업 학술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扶安 來蘇寺 大雄寶殿)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불전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63.01.21
소재지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석포리)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내소사
관리자(관리단체)	내소사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해구대(海丘臺)가 세운 절로 원래 이름은 소재사였다고 한다.

이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신 불연으로 조선 인조 11년(1633) 창건대사가 절을 고쳐 세운 것이라 전한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파른 장식구조가 기둥 윗부분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인데, 밖으로 뻗어 나온 부재들의 호계전 모습은 우리 옛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쪽 안에 달린 문살은 꽃무늬로 조각하여 당시의 뛰어난 조각 솜씨를 엿볼 수 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벽체 윗부분에 있는 부처를 연로 불로써 모양으로 장식하였고 보머리에는 양이 붙고기를 붙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 건물의 형상을 더해 준다. 천장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짜맞추어 지붕 윗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물천장으로 꾸몄다. 불상 위쪽 벽에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 가장 큰 '백의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공예로 가치가 높은 문살 조각과 특색있는 장식 등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 양식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건물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창건된 사찰건물. 불전. 보물.

내용

보물 제291호. 경면 3칸, 측면 3칸의 팔각지붕 건물. 막돌허튼총알기로 된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 [圓柱] 을 세웠으며 기둥의 밑부분은 그랭이수법을 썼음이 뚜렷하다. 1633년 (인조 11) 창건대사가 절을 고칠 때 지은 것이라 전한다.

공포의 짜임은 외3출목(外三出目)과 내5출목(內五出目)으로서 기둥 위에는 들른 주간(柱間)에도 공간포(空間枋)를 놓은 다포계 양식이다. 주두(柱頭: 대꺾받침)는 굽면이 사면(斜面)으로 굽고 급받침이 없으며 소청차(小桴車)나 대청차 모두 고두형(顛頭形)으로 조각되었다.

초계공(初階工)에서 3계공까지의 살미첨차(山彌 첨차) 굽은 양서(仰舌)로 되어 있고, 4계공은 수서(垂舌)로 되어 있다. 내부의 공포(龕龕)는 살미첨차가 모두 편형(板形)으로 되어 그 끝에 연꽃모양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가구(架樑)는 대들보 앞면에서는 평주(平柱)에 걸고 뒷면에서는 내고주(內高柱)에 걸었으며 그 위에 등자기둥을 세워 종보(宗樑)를 받치게 하였는데 종보부터는 우물천장을 가설하여 천장 속을 가리고 있다.

또한, 양측면의 평주에서는 총랑(肱樑: 대들보의 직각방향으로 얹힌 짧은 대들보)을 내려 대들보 위에 걸었는데, 보머리에는 용이 목어(木魚)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불단 뒤에는 후불벽(後佛壁)이 있으며, 그 좌우의 벽기둥은 대들보에 고정되어 있다.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불단 위에는 담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건물의 경면 3칸은 모두 정교하게 조각한 소슬빛꽃살창호를 달았고, 측면에는 협문(夾門)을 각각 한짝씩 달았으며 나머지는 벽으로 처리하였다.

네이버·답사여행의 길잡이 1 - 전북

두산백과

답사여행의 길잡이 1 - 전북
내소사 대웅보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扶安 來蘇寺 大雄寶殿]

[요약] 전북 부안군 진서면(鎭西面) 내소사에 있는 조선 중기의 불당.

증록 보물 제291호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지정증록 보물
지정번호 보물 제291호
지정일 1963년 01월 21일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93지도
시대 조선
종류/분류 불당
크기 경면 3칸, 측면 3칸



내소사 대웅보전

조선 인조 11년(1633)에 건립된 것으로 전하는 이 건물은 다포계 양식에 팔각지붕으로 된 불전이다. 전면 3칸은 개방되어 꽃살무늬를 조각한 문짝을 달았는데 이들은 모두 정교한 공예품들이다.

공포는 내5출목, 외3출목으로 복잡하게 결구되었으며 외부로 빠져나온 각 계공의 쇠서는 겹쳐져 매우 장식적이나 심각한 모양으로 되었다. 내부는 계공의 뒤뿌리를 일일이 연봉으로 새겨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단청도 매우 장엄한 금단청으로 채색하였다.

후면 아래의 귀한대와 내부 총랑머리는 용머리를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 해주고 있다.

구조 양식 등에서 조선 중기 이후의 다포건의 일반적인 수법을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전내 후불벽 뒷 벽에는 '백의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좌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91호로 지정되었다.

경면 3칸, 측면 3칸, 단층 팔각지붕의 다포(多步)집이다. 속대 위에 자연석의 초석을 배치하고 기둥을 세웠고 기둥은 두리기둥 가운데 우주(隅柱)는 배흘림이고 나머지 평기둥(平柱)들은 직선으로 곧다. 전면 중앙간에는 4분합문(四分合門)을, 좌우간에는 분합문(分合門)을 달았는데, 이 문짝들은 초화문(草花文)을 두각하여 공예적으로 정교한 장식을 새긴 문짝들이다. 처마 밑에 받친 공포(栱)는 외부로 많이 뻗은 외삼출목(外三出目)으로 길게 뻗어나온 쇠서들이 겹겹이 중첩되어 한층 더 한국적인 색채를 풍겨주고 있다.

내부는 내오출목(內五出目)인데 이 살미첨차는 아래 위를 연속하여 첨차(簷差)마다 연봉형을 새겨 운궁(雲宮)이라고 하는 장식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대들보는 앞뒤기둥 위의 공포에 걸렸고, 그 위로 등자형의 대공을 세워 마룻보를 받쳐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또 총랑(肱樑)은 대들보에서 측면의 가운데 기둥에 걸쳐 각각 두 개씩 배치하였다. 불단 뒤에는 후불벽이 있으나 불단 위에 담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 좌우의 벽기둥은 대들보에 고정시켰으며,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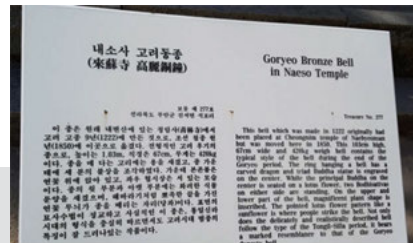
부안 내소사 동종

보물 제 277호

분류 유물 / 불교공예 / 의식법구 / 의식법구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시대 고려시대



내소사 고려동종(來蘇寺 고려동종)

보물 제 277호

① 불필요한 주소기입 → ①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② 관람객이 알 수 없는 크기묘사

이 종은 원래 내변산에 있는 청림사(靑林寺)에서 고려 고종 9년(1222)에 만든 것으로, 조선 철종 원년(1850)에 이곳으로 옮겼다. ② 전형적인 고려 후기의 종으로, 높이는 1.03m, 직경은 67cm, 무게는 420kg이다. 종을 ③ 매 다는 고리에는 용을 새겼고, 종 가운데에 세 분의 불상을 조각하였다. 가운데 본존불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좌우 협시상은 서 있는 모습이다. ④ 종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는 화려한 식물 문양을 새겼으며, 해바라기처럼 뽕족한 끝을 가진 연꽃 무늬가 종을 때리는 자리(당좌)이다. 표면의 묘사수법이 정교하고 사실적인 이 종은, 통일신라 시대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이 잘 드러나있는 작품이다.

③ 띄어쓰기 오류

④ 너무 길고 복잡한 외관묘사

부안 내소사 동종 扶安 來蘇寺 銅鐘

보물 제277호

① 주소 삭제 → ① (주소 삭제)

② 동종은 절에서 시각을 알리거나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한다.

② 종의
쓰임새와
기능 등
설명추가

내소사 동종은 고려 고종 9년(1222)에 만든 것인데, 원래 내변산의 청림사(靑林寺)에 있던 것을 조선 철종 원년(1850)에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종을 매다는 고리에는 용무늬를 새겼고, 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화려한 식물 문양으로 조각하였다. 종을 때리는 자리(당좌)에는 연꽃무늬를 새겼고, 종의 가운데 부분에는 세분의 부처님을 조각하였다. 가운데 본존불*은 연꽃 위에 앉은 모습이며, 좌우 협시불**은 서 있는 모습이다. ③ 새겨진 장식과 문양은 표현이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고려 후기의 걸작품으로 손꼽힌다.

③ 동종의
가치 설명
추가

④

*본존불(本尊佛): 으뜸가는 부처불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불'을 이르는 말

**협시불(脇侍佛): 불상에서 본존불을 옆에서 모시는 불상

④ 불교용어를
각주로 설명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보물 제 291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불전

소재지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석포리)

시대 조선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내소사 대웅보전(來蘇寺 大雄寶殿)

보물 제291호

② 불필요한
주소기입

②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이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③ 우측에 보현
보살님 좌측에 문수보살님을 모신 내소사 본전이다. 조선후
기에 건립하였으며, 철못을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지었다.
천장의 화려한 장식과, 연꽃과 국화꽃을 가득 수놓아 화사한
꽃반을 생각나게 한 문살이 인상적이다. ④ 그러나 이 문살
은 법당 안에서 보면 단정한 마름모꼴 살 그림자만 비출 뿐
이다. 이 대웅전은 화려하지만 시끄럽지 않은, 그리고 장중
함보다는 다정함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다. 불상 뒤 벽에 그
린 관음보살상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③ 별도의 설명
없이 보현보살 ·
문수보살 · 보현
등 어려운 용어
사용

④ 주관적
감상과도 같은
의견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기

①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扶安 來蘇寺 大雄寶殿

보물 제291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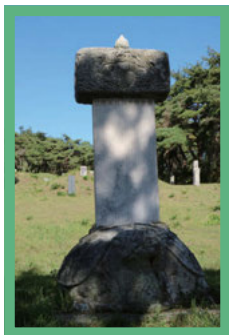
③ 대웅보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추가

③ 대웅보전은 절의 중심 건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다. ④ 전설에 의하면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호랑이가 변한 대호선사가 지었다고 한다. 현재의 절은 인조 11년₁₆₃₃에 청민대사가 절을 고치면서 지은 것이다. ⑤ 이 대웅보전은 쇠못을 쓰지 않고 목재로만 지었는데, 천장의 화려한 장식과 꽃무늬로 조각한 앞쪽 문살은 당시 목수들의 뛰어난 조각 솜씨를 엿볼 수 있다. ⑥ 내소사의 단청은 관세음보살이 오색찬란한 색의 모습을 하고 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상 뒤쪽 벽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 가장 큰 '백의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④ 문화재
유래에 관한
전설 추가

⑤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설명 추가

⑥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 추가



고흥건 신도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1호

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시대 조선시대



고흥건 신도비 (高弘建 神道碑)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1호

① 불필요한
주소 기입

①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② 거북과 용머리를 새긴 이 비는 조선 현종 9년(1668)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란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여 무덤 앞이나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우는 비다. 고흥건은, 임진왜란때 공을 세워 공신록에 이름이 오른 고흥의 아들로, 조선 선조 13년(1580)에 출생하였으며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때 왕을 호위한 공으로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다.

② 사실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

고흥건 신도비 高弘建 神道碑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1호

① 주소 삭제 → ① (주소 삭제)

② 신도비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가장
위로 배치

② 신도비란 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여 무덤 근처에 세우는 비를 말한다. 고흥건 신도비는 조선 현종 9년¹⁶⁶⁸에 고흥건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고흥건은 조선 선조 13년¹⁵⁸⁰에 태어났으며 이괄의 난¹⁶²⁴과 병자호란¹⁶³⁶ 때 인조를 호위한 공으로 호성원종공신에 올랐다.

비는 아래에 거북 받침들을 두고, 그 위에 비 몸을 세운 뒤 머릿돌을 얹었다. 거북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살짝 쳐들게 하여 힘찬 기상을 표현하였고, 구름과 용을 새긴 머릿돌은 꼭대기에 꽃봉오리 모양의 머리 장식을 조각했다. ③ 용두귀부*의 절묘한 솜씨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대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④ *용두귀부龍頭龜趺: 용을 새긴 비석 머리와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



출판사대표



설명이
간략하고
단순하며, 적확해요.

③ 문화재의
의의 및
가치에 대한
설명 추가

④ 각주를
통해 어려운
용어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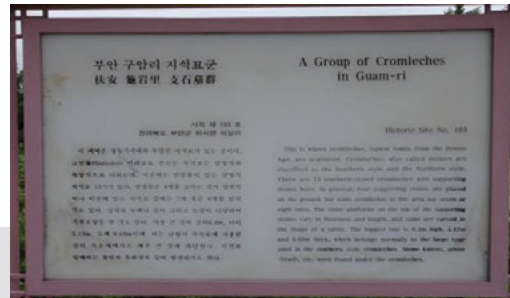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사적 제103호

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지석묘

소재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07번지

시대 청동시대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扶安 龜岩里 支石墓群

사적 제 103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①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③ 전문용어
사용으로
추가설명이
필요

②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의 무덤인 지석묘가 있는 곳이다. 고인돌(Goindol)이라고 부르는 ③ 지석묘는 남방식과 북방식으로 나뉘는데, 이곳에는 받침돌이 있는 남방식 지석묘 13기가 있다. 받침돌은 4개를 고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곳에 있는 지석묘 중에는 7개 혹은 8개를 받친 것도 있다. 상석의 두께나 길이 그리고 모양이 다양하며 거북모양을 한 것도 있다. ④ 가장 큰 것이 길이 6.4m, 너비 5.12m, 두께 0.69m인데, 이는 남방식 지석묘에 사용된 상석 가운데에서도 매우 큰 것에 해당한다. 지석묘 밑에서는 돌칼과 돌화살촉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② 일반적인
정의 추가

④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관설명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扶安 龜岩里 支石墓群

사적 제103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② 지석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추가

② 지석묘란 주로 청동기 시대에 돌로 만든 무덤을 말하는데

③ 탁자식(북방식)과 바둑판식(남방식)으로 구분한다. 부안 구암리에는 받침돌이 있는 남방식 지석묘 13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10기만 남아 있다.

③ 고인돌
양식에 대한
설명 추가

④ 수치와
형태 등
외관묘사를
최소화

④ 덧개돌의 길이가 6.4m에 이르는 커다란 지석묘가 있으며, 거북 모양을 한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석묘의 받침돌은 4개지만 ⑤ 이곳에 있는 지석묘는 7개 혹은 8개도 있어 다른 지역 지석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⑤ 문화재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

1. 개요



■■■ 사천시에서 안내관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23건 등 모두 27건이다. 이번 사업에서 사천시는 지역의 문화재 안내관에 ‘위우면서 관람객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사천시는 **도 소속 문화재 전문가와 학교 선생님, 학생**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했다. **시민자문단을 운영할 때에는 정비대상 문화재를 유형별 전문분과로 나누어 운영**했다. 전문분과별 문화재는 약 10건 내외로, **분과별 시민자문단**은 안내관 정비대상 문화재에 대해 **팀별로 집중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자문노트’를 만들어 공유**했다. 이와 같은 자문노트는 안내문안 집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사천 흥사리 매항비(보물 제614호)
 덕곡리 지석묘군(경상남도 기념물 제49호)
 세종대왕태실지(경상남도 기념물 제30호)
 신벽동 지석묘(경상남도 기념물 제39호)
 사천 조명군총(경상남도 기념물 제80호)
 사천 구산사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35호)
 단종태실지(경상남도 기념물 제31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474호)



경백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34호)
 사천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곤양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1호)
 사천 구계서원(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



가산리석장승(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3호)
 사천환덕리조씨고가(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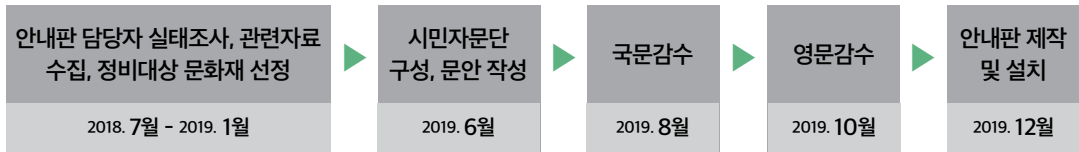
다솔사보안암석굴(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
 사천 와룡동 사지(경상남도 기념물 제179호)
 다솔사응진전(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9호)
 다솔사대양루(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사천 용산리 사지(경상남도 기념물 제178호)



사천읍성(경상남도 기념물 제144호)
 사천 선진리 왜성(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4호)
 사천 성황당산성(경상남도 기념물 제132호)
 사천 안점산 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175호)
 사천 금성리 토성지(경상남도 기념물 제177호)
 사천 우산 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176호)
 대방진굴항(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3호)



사천 늑도 유적(사적 제450호)



3. 핵심 성공요인

-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를 신중하게 선정
- ➔ 시민자문단에는 도 문화재(전문)위원과 지역주민, 공무원 등 적극 참여
- ➔ 정비대상 문화재 유형별 전문분과로 나누어 시민자문단 운영

■■■ 사천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내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내구성이 떨어져 마모되었거나 방식이 불량한 안내판', '문화재의 주변 경관을 저해시키는 안내판' 등을 우선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치시기별로 여러 형태의 문화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안내판 재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 등을 바탕으로 경관에 어울리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돋보이도록 설치하도록 하였다.





■ ■ ■ 사천시의 시민자문단은 도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지역주민 8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쉬우면서 알고 싶은 정보로 안내문안을 집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과 교사 등 지역주민 위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자문단은 2~6월 동안 월 1회 정기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그 외의 자문 내용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 ■ 시민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사적·민속 문화재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분과장**을 두고, 분과위원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문안 **검토를 총괄**하게 하였다. **분과위원**들은 정비대상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내문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많은 정보 교환 및 문안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 시민자문단의 역할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회의는 최소화하고, **온라인 방식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재대관, 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안내문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분	건축문화재	사적문화재	민속문화재
구성	분과장 : 1명 분과위원 : 3명	분과장 : 1명 분과위원 : 3명	분과장 : 1명 분과위원 : 2명
정비안내판	10개	9개	9개
문화재	다솔사 대양루 사천향교 다솔사 보안암석굴 곤양향교 사천 성황당산성 사천읍성 사천 안점산 봉수대 사천 우산 봉수대 사천 환덕리 조씨고가 다솔사 응진전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 산지 사천 늑도 유적 사천 신벽동 지석묘 사천 덕곡리 지석묘군 사천 조명군총 사천 금성리 토성지 사천 와룡동사지 사천 경백사 사천 선진리성	사천 매항비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사천 구산사비 사천 세종대왕 태실지 사천 단종 태실지 사천 가산리 석장승 사천 대방진 굴항 사천 구계서원 사천 용산리사지

■■■ 특히, 각 전문분과에서는 문화재 안내문 작성 포인트와 기존문안 · 개선초안 등의 비교표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자문단 자문노트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시민자문단이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사천 성황당산성의 안내문안은 시민자문단 자문 이전에는 “퇴폐식 산성” 등의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성의 형태를 복잡하게 설명되었으나, 자문노트 작성 이후에는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되거나 대폭 간략화되었다. (141쪽 참조)

■■■ 사천시 담당자는 위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자문위원 선정에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시간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교사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찾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이나 문화재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언급했다.



문화재 안내문 작성 포인트

1.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나. 문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형태나 크기 규모 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라.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풀이하거나 주석을 단다.
마.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넣지 않는다.
(예시)

전남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자문단원을 방문함으로써 다들 한 후 동물세금으로 부처를 새긴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로, 높이는 1.37m이다. 머리의 윤곽만 부각된 이례적으로 2단으로 적힌 소발은 동굴에 이질하게 표현되었다. 수인은 약도를 형상화하는 한여수자관을 맺고 있다. 불복한 행, 고지 같은 조각은 늘 어깨까지 올라온 귀는 부드럽고 거머로 손님을 준다. 어깨는 넓지만 가슴은 두텁지 않다. 불이 앉은 자세는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크게 표현되었다.

현재적인 자세와 얼굴, 법의의 모양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하지만, 법의의 주름살이 사설되어 떨어져 있고 가슴이 평평하다는 점에서 좀더 빠르고 간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 후대의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 목재, 소발, 수관, 항아리처럼 동·일반인 세계 의자를 전통적으로 썼다. 전통유리에 대한 설명도 없다. 불복한 행, 고지 등 어깨까지 올라온 주-고, 같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고 있으며, 석굴암의 주술적인 불에 들어가 있다.

여수 진남관

진남관은 일제강점기 때 이순신에 지휘소로 사용된 전초기지였던 지역에 삼도수군통제사 겸 수군절도사 이시현이 1599년 건립한다. 진남은 '남쪽의 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건물은 숙종 때 화재로 불에 탄 2년 뒤인 1718년 수군절도사 이자현이 이순신 전사120년이 되는 해를 기념 정면 15칸, 측면 5칸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수공포포로 학교 등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1993년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진남관 중간기의 굴뚝은 이례하여 온 것이다.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의 편모가 서려 있는 핵심 유적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붕 관아 건물 중에서 가장 크며 위엄이 넘친다. 진남관 앞에 있는 돌기둥 2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화사로서 있을 때 수군들의 밤 훈련 시 불을 밝히던 시설이다. 4개가 있었으나 2개만 남아 있다.

평가: 학술적인 건축을 설명보다는 진남관의 독특한 특징과 의미, 역할 등 객관적 사실을 충실히 담았다.

2.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가. 설화나 전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나. 재미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추가한다.
(예시)

부여 구드래 일출

구드래는 부소산 서쪽 기슭 백마강가에 있는 나루다. 일대를 일출한다. 청국유사계 백마강이 황룡사와 일 때 지바수 언덕 배위해 흘러 부처님을 향하여 정을 하면 그 바위가 지절로 마중에서서 차운대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구드래라는 지명도 차운대에서 유래한 듯 하다.

왕릉사는 600년(백제 2년)에 세운 대묘의 절로 구드래 나루 건너 울창한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평가: 이야기가 시작에 안내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야기가 속 날선 영정을 마중단에 친절하게 설명했다.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육교와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단풍이 아름답고 병충해가 없어 장지나루 또는 가로수로 많이 심어 지는 나무이다.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나루로 명칭을 맺지 않는게, 비수 오와 무늬는 비 나무에 정체가 내다지 법이 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이 적어 떨어진 열매가 고박한 단풍을 풍기기, 해마를 사서 불렀다나. 그 때부터 이 나무는 은행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중 오래 사는 나무는 대개가 영나루인데,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나루로 장수하고 있어 생물학적 보물창고이다.

평가: 안내문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전설을 자연스럽게 잘 배치했다.

사천 대항비

보물 제614호

기 준

사천 대항비(泗川 堤香碑)

보물 제614호

복을 빌기 위해 바다에 항목을 묻고 그 내력을 기록한 비석이다.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나무를 갈고나 바닷가에 묻으면서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대항(堤香) 또는 집항(沈香)이라 부른다.

이 비석은 1387년에 세워진 것으로 자연석 위에 15줄 202자를 새기고 있다.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읽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정치가 혼란하던 고려시대 말에 승려를 중심으로 4,100명이 계(契)를 조직하여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백성의 안녕을 빌기 위해 대항의식을 행했다는 내용이다. 승려 달공(達公)이 문장을 짓고 수안(守安)이 글씨를 썼으며 김용(金用)이 새겼다.

대항의식과 관련된 비석으로 1335년 세워진 집항석각(沈香石契)이 평안북도 정주(定州)에 남아 있으나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대항비의 건립목적과 건립연대가 확실한 이 비석의 가치는 아주 높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이런이 → 그런이

비문 바꾸기

사천 대항비(泗川 堤香碑)

보물 제614호

복을 빌기 위해 바다에 항목을 묻고 그 내력을 기록한 비석이다.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나무를 갈고나 바닷가에 묻으면서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대항(堤香) 또는 집항(沈香)이라 부른다.

이 비석은 1387년에 세워진 것으로 자연석 위에 15줄 202자를 새기고 있다.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읽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정치가 혼란하던 고려시대 말에 승려를 중심으로 4,100명이 계(契)를 조직하여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백성의 안녕을 빌기 위해 대항의식을 행했다는 내용이다. 승려 달공(達公)이 문장을 짓고 수안(守安)이 글씨를 썼으며 김용(金用)이 새겼다.

대항의식과 관련된 비석으로 1335년 세워진 집항석각(沈香石契)이 평안북도 정주(定州)에 남아 있으나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대항비의 건립목적과 건립연대가 확실한 이 비석의 가치는 아주 높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사천 금성리 토성지

- ※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말
- 산성
산의 모양과 지세
(산양표면이 생긴 모양)
- 테외식 ~~성곽~~
~~성곽~~ 성곽의 종류
- 국성면대
→ 성이 지어진 열시대
- 줄도된
→ 땅에서 발견된
- 공명현
경상남도 사천시 공명면.
공명면 일대의 고려시대
행정구역
- 관아
관이나 벼슬아치가 모여 나뉘어 있는
처마하얏트
- 금동제의 말
금으로 모은 한 자나 금박을 입힌 물건
- 삼정
~~삼정~~
- 국조면대
만들어진 년대

고치기

사천 금성리 토성지 (四川 金成里土城址)

경상남도 기념물 제 177호

현어성은 금성리 뒷산의 산, 땅표면의 모양을 이용하여
정상부분을 흙으로 빙 둘러 쌓은 ~~성곽~~ 테외식(성곽
종류) 산성(山城)이다. 이 성의 지어진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땅에서 발견된 유물 등
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고구려)에 쌓은 것 같다. 그
리고 고려시대에는 ~~성안~~ (경상남도 사천시 공명면.
공명면 일대의 고려시대 행정구역)의 관아[官所]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의 둘레는 2km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흙을 쌓아 올린 흔적만 남았을 뿐 현제는 찾아볼
어렵다. 이곳에서는 금동제의 말[金銅製象馬
銅像] 1점, 길이 1m 가량의 큰칼 1점, 그리고
다수의 민우회토기 조각 및 기와조각이 ~~발견~~
땅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삼정'(三井)이란 문
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조각도 있었는데, 복석경
과 신라 때에 만든 기와임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이성의 국조면대가 삼국시대까지
물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천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향교

소재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시대 조선시대



사천 향교(泗川 鄉校)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② 어려운
용어를 해설
없이 사용

향교는 유교의 옛 성현(聖賢)을 받들면서, 지역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미풍양속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통 시대의 지방 교육 기관이다. 사천 향교는 본래 1421년(세종 3)에 향학당(鄉學堂)으로 ②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등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② 중건과 중수를 거쳤다.

향교의 공간은 교육과 제례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유생(儒生)이 학문을 연마하는 명륜당과 일상생활을 하는 ② 동·서재(東·西齋)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공자와 저명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大成殿) 및 동·서무(東·西廡)는 제례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③ 건물 배치
등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

③ 사천 향교의 건물배치는 교육 공간을 앞쪽에, 제례 공간을 뒤쪽에 두는 ② 전학후묘(前學後廟) 양식이다. 그러나 대성전과 일직선을 이루었어야 할 명륜당이 한쪽으로 비껴 앉았고, 풍화루는 담장으로 막혀 단절되었으며, 동재는 건물이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다른 향교의 대성전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지만, 동·서무가 없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일반적 건물의 정면이 홀수 칸인데 비해 짝수 칸으로 되어있다. 또한 정면에 4분합문을 달고, 벽에는 창도 없어 개방성을 강조하는 명륜당의 일반적 구조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배치와 건축 형식은 현대의 중수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천향교 泗川鄕校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① 주소 삭제 ● → ① (주소 삭제)

향교는 공자, 공자의 제자, 공자의 가르침을 따랐던 뛰어난 학자들을 받들면서 그들이 쓴 책, 말, 행동을 따르도록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지방 교육 기관이다.

사천향교는 세종 3년(1421)에 향학당(鄕學堂)으로 ② 시작하여 임진왜란 등을 겪으면서 여러 번 불에 타 고쳐지었다.

사천향교는 경사진 언덕에 지어졌으며 ③ 향교의 교육 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을 앞쪽에 두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大成殿)을 뒤쪽에 두었다.

③ 전학후묘 등의 어려운 표현 삭제

④ 지금의 사천향교는 다른 지역의 향교와 조금은 다른 모습이다. 향교의 누각인 풍화루(風化樓)는 학생의 휴식 공간이자 출입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담 안에 있다. 또한 대성전과 일직선에 있어야 할 명륜당이 한쪽으로 비켜 있다. ⑤ 대성전은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다른 향교에 비해 규모가 크다.

⑤ 대성전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

⑥ 사천향교는 경사가 큰 장소에 여러 채의 건물을 세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하고 고쳐 지은 점에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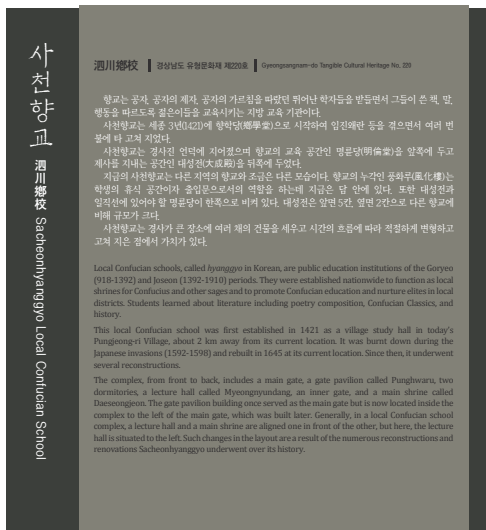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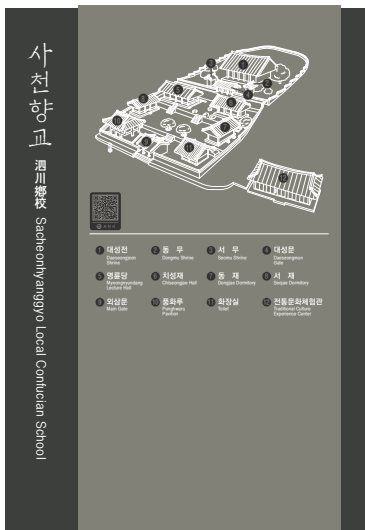
출판사대표

왜 중요하죠? 서술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워요.

②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대체

④ 향교의 건물배치에 특징이 있음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

⑥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함.





사천 녹도 유적

사적 제450호

분류 유적건조물 / 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 / 육상유물산포지 / 선사유물

소재지 경남 사천시 녹도동

시대 신석기~청동기

사천녹도유적 (泗川勒島遺跡)

사적 제450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 ① 경상남도 사천시 녹도동

② 패총(貝塚)이란 수렵·어로·채집에 의하여 살아온 옛 사람들이 조개 등의 패류(貝類)를 먹은 뒤에 버린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등이 함께 쌓여 이루어진 유적으로 '조개무지'라고도 부른다.

사천시 앞바다에 있는 녹도는 섬 전체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으로, 1985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집단적인 ③ 집자리와 돌널무덤(石棺墓), 독무덤(甕棺墓), 널무덤(土壙墓) 및 조개더미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리형 ⑤ 민무늬토기, 민무늬항아리 등의 토기와 숫돌, 사슴뿔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민무늬토기 가운데에는 일본의 ③ 야요이시대[弥生時代]의 토기도 섞여 있어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④ 구명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이곳의 유물은 기원전 1세기 때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 녹도 조개더미 유적은 당시 주거 생활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⑤ 해상활동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② 녹도유적에 패총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첫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③ 어려운 용어를 해설 없이 사용

⑤ 해상활동의 주체가 누군지 알기 어려움



④ 규명을 구명으로 오타



사천 성황당산성

경상남도 기념물 제132호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

소재지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45-1번지 외

시대 고려 말 ~ 조선 초(추측)

사천 성황당산성 (泗川 城隍堂山城)

경상남도 기념물 제132호

① 주소 기입
불필요 → ①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③ 문화재
형태에 대해
관람객에게
와닿지 않는
설명

이 성은 고읍성(古邑城)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옛 사천 고읍의 중심인 읍 소재지가 산성과 가까운 정동면 고읍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은 성황산의 정상부를 흙과 돌로 빙 둘러쌓은 ② 테뫼식 산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성벽의 둘레는 1500여 미터이고, 높이는 약 5미터이며, 성안에 우물 1개와 연못 1개가 있었다고 한다. ③ 이곳 산성은 현재 둘레 1,109m, 높이 3.6m의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남쪽으로 길이 4m, 높이 3m의 ② 석축이 있고, 성안에 우물과 못이 있다. 부근에서 기와조각과 토기조각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② 테뫼식 산성,
석축 등 어려운
용어 사용

④ 성의 축조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수습된 유물 등을 고려하면 신라시대까지 올라간다. 그렇지만 성벽을 쌓은 방법 등으로 볼 때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추측된다. 성안은 북쪽과 서쪽 일부 경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평탄하며, 성 바깥은 급경사이다. 성안에는 성황게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다. 지금은 이곳에 단군상(檀君像)이 안치되어 있다.

④ 추측성
사실 기재

사천 성황당산성 (泗川 城隍堂山城)

경상남도 기념물 제132호

① 주소 삭제

① (주소 삭제)

② 성곽의
형태, 크기,
구성 등은
간략하게
표현

② 사천 성황당산성은 성황산의 맨 꼭대기 부분을 흙과 돌로 둘러쌓은 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성벽의 둘레는 1500m이고, 높이는 약 5m이며, 성안에 우물 1개와 연못 1개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토성과 석축**이 남아 있고, 우물의 흔적이 있다. 성안에는 성황당 터가 남아 있다.

산성을 쌓은 시기는 발굴된 유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하지 않지만 신라시대로 짐작된다. 그러나 성벽을 쌓은 방법 등으로 볼 때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성은 고읍성(古邑城)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옛 사천 고을의 중심인 읍 소재지가 산성과 가까운 정동면 고읍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③ 한편 『고려사절요』에는 왕건의 아들 왕육이 사천에 귀양을 와서 살았는데 그가 이곳에서 죽을 때 성황당 귀룽동에 묻어 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황당이라는 단어가 기록물에 나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③ 문화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추가

④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중종 25년(1530)에 이행 등이 왕명에 따라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고 개정한 인문 지리서

* 석축(石築): 돌로 쌓아 만드는 일

④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주석
추가

전체적으로
퇴폐식
산성과 같은
전문용어
삭제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사찰

소재지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만점안길 217 (무고리)

시대 고려시대(추정)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다솔사 보안암 석굴 (多率寺 普安庵 石窟)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

② 불필요한
주소 기입

②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③ 불필요한
한자 사용

④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외관 설명

이 석굴은 고려 말에 승려들이 수행③(修行)하기 위한 시설이었다고 하나,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다. ④ 석굴은 뒷산의 경사면을 'L'자 모양으로 파내고 다진 터에 널빤지 모양의 돌을 반원형으로 쌓아 올려 만들었다. 석재는 점판암으로 석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다.

⑤ 관람객이
알기 어려운
정보로 흥미를
떨어뜨림

석굴에는 정면 양쪽에 기둥을 세워 현관과 통로를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화강암의 긴 돌로 벽과 천장의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를 널빤지 모양의 점판암으로 메웠다.

⑤ 내부의 폭은 3.6m이고, 길이는 2.5m이며, 높이는 2.8m이다. 석굴 안에는 도깨비의 얼굴이 생동감 있게 조각된 향③(香) 받침대가 있고, 그 뒤로 석가모니불③(釋迦牟尼佛)이 ⑥봉안되어 있다. 불상은 큰 코와 굳게 다문 일자형의 입, 지그시 감은 눈은 인자하기보다 엄격한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몸체의 옷자락③[法衣]과 하체 부분은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석가모니불의 좌우에는 50cm 내외의 ⑥16 나한상(羅漢像)이 안치되어 있다. 나한상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오른쪽의 1구는 사라져 버렸다. 석굴은 규모가 작고 조성 수법도 거칠고 투박하나, 내부 불상의 배치 등은 경주 ⑦ 석굴암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불상의 조성 수법 등에서 볼 때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굴로 추정된다.

⑥ 어려운
용어를 해설
없이 사용

⑦ 관람객을
이해하기
어려운 석굴암
양식을 별도의
언급없이 설명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기재

①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

泗川 多率寺 普安庵 石窟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 삭제)

③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은 뒷산의 경사면을 편평하게 파내고 다진 터에 주변에서 쉽게 구한 널빤지 모양의 돌을 무덤처럼 쌓아 올려 만들었다. 안에는 크기가 큰 화강암으로 벽과 천장의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널빤지 모양의 돌로 메워서 쌓았다. 석굴 출입구는 널빤지 형태의 돌을 내어 쌓고 긴 돌을 기둥처럼 받쳐 비를 막았다.

석굴의 실내는 세로보다 가로가 더 넓은 네모난 모양인데 실내를 꾸민 석재가 거칠고 투박한데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 안쪽에는 도깨비 모습의 향 받침대가 있고 그 뒤로 부처상이 있다.

④ 석굴은 출입구와 실내 공간을 만든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굴로 추정된다. 이 석굴은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기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③ 문화재
구조를 보다
간략하게
설명

④ 근거를
들어 문화재
가치 설명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

泗川 多率寺 普安庵 石窟
Grotto at Boanam Hermitage of Dasotia Temple, Sacheon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

Gyeongsangnam-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9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은 뒷산의 경사면을 편평하게 파내고 다진 터에 주변에서 쉽게 구한 널빤지 모양의 돌을 무덤처럼 쌓아 올려 만들었다. 안에는 크기가 큰 화강암으로 벽과 천장의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널빤지 모양의 돌로 메워서 쌓았다. 석굴 출입구는 널빤지 형태의 돌을 내어 쌓고 긴 돌을 기둥처럼 받쳐 비를 막았다.

석굴의 실내는 세로보다 가로가 더 넓은 네모난 모양인데 실내를 꾸민 석재가 거칠고 투박한데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 안쪽에는 도깨비 모습의 향 받침대가 있고 그 뒤로 부처상이 있다.

석굴은 출입구와 실내 공간을 만든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굴로 추정된다. 이 석굴은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기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This grotto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It is said that Buddhist monks of late Goryeo used it for worship and meditation.

The grotto is made of stacked, natural rocks and has two stone columns supporting the entrance. Although the interior is lined with rough and unrefined stones, it is well designed in such a way that water does not seep inside through the walls. Inside, there is a stone seated Buddha and 16 stone arhats, eight on each side of the Buddha.

In Korea,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grottos hollowed in the rock, but only two are made of artificially stacked rocks: this grotto and Seokguram Grotto in Gyeongju.

1. 개요



■ ■ ■ 경남 산청군은 이번 사업에서 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15건의 경상남도지정문화재 등 19건 문화재에 대해 안내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안내관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들은 주로 건축문화재들이었다. 이에 따라, (사)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안내문안 집필 작업을 진행했다. 시민자문단은 전문가 시민자문단과 지역주민 시민자문단으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였다. 전문가 시민자문단은 용역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역주민 자문단은 초안으로 작성된 문안을 여러 차례 읽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건축이나 불교 등의 문화재 특성상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각주를 최대한 활용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2. 사업대상 문화재



산청 특리 근대 한옥(등록문화재 제148호)
 산청 남사리 이씨고가(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8호)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등록문화재 제281호)

산청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4호)
 덕계선생 문집책판 및 사호집 수오당실기 책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3호)

단성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
 산청 중촌리 안곡서당(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42호)



산청 강누리 인곡서당(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66호)
 신계서원 제기(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용강정사, 임리정(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38호)
 산청 단계리 용담정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58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율곡사 괘불탱(보물 제1316호)
 삼장사지 삼층석탑(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호)
 산청 문수암 석가영산회후불탱(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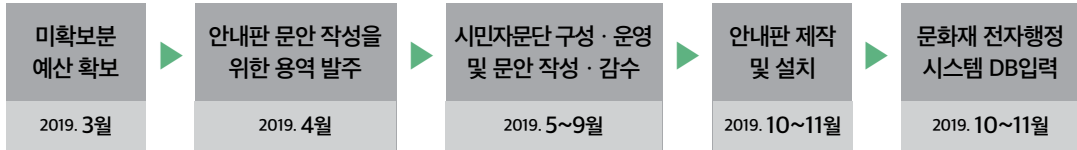
산청 상산김씨 김후묘(경상남도 기념물 제251호)
 문익점 신도비(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3호)



산청 청송사 소나무(경상남도 기념물 제275호)



산청 소남리 선사유적(경상남도 기념물 제216호)



3. 핵심 성공요인

- ➔ 전문가 시민자문단 vs 지역주민 시민자문단 이원적 운영 및 역할분담
- ➔ 무덤 형식이나 불교용어 등 전문용어는 각주를 통해 좀 더 쉽게 해설
- ➔ 건축문화재 중심 안내판 정비사업이므로, 건축문화재 전문기관에게 용역 발주

■■■ 산청군 안내문안의 내용구성과 기술순서는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 문화재 종목의 개괄적 설명 → ② 문화재 개요 및 연혁 → ③ 문화재의 특징 및 가치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산청향교의 경우, 향교의 일반적 설명을 우선했으며 산청향교의 개요 및 연혁, 산청향교의 문화재 특징 및 가치 순으로 기술하였다. (150쪽 참조)

■■■ 산청군의 시민자문단에는 전문가 3명, 지역주민 3명, 공무원 2명을 선임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문안 작성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정비 대상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문안 작성 과정 중에 용역기관이 전문가 자문단에게 직접 자문을 요청**하였다. **지역주민 자문단**은 관광객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정**하여 전문가가 작성한 문안의 난이도를 일반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조절**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교 문화재 관련 스토리텔링이나 배경지식이 풍부한 전통사찰 승려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 ■ ■ 안내문안 작성 시에 전문용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석을 활용하였다. 특히, 무덤형식이나 불교 용어 등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생소한 용어이고 대체할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주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용어나 한자어를 쉽게 풀어쓰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져 오히려 정보 전달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주석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산청군 시민자문단 역할

전문가 시민자문단	지역주민 시민자문단
문안작성을 담당하는 용역기관과 긴밀한 협조	문화관광해설사로 구성. 일반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해설문안으로 수정

■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산청군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번 2019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산청군이 경험한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 선정이 중요. 만약 어렵다면 공신력있는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야

■ ■ ■ 우선, 산청군은 오류 없는 안내문안 작성을 위해 기준이 되는 자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정비 대상 문화재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나 연혁 등이 기존 안내문안과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수록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과 작성 기준을 따르기가 어려웠다. 또한 무덤 형식의 경우 안내판마다 용어가 약간씩 다르게 사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별·유형별로 통일성 있게 안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향후 안내판 사업 추진 시에는 문화재청이나 광역단체 등에서 구성된 공신력 있는 자문단이나 전문용어 사용 기준안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흥미로운 안내문안 작성도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는 안내문안 인용하기 어려워

■ ■ ■ 둘째, 흥미로운 안내문안 작성이 어려웠다. 설화나 구전내용 등은 안내문안에 인용할 경우 재미있는 글쓰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검증이 쉽지 않아 선뜻 안내문안에 인용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모든 문화재가 설화나 전설같은 이야기 자원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최대한 이야기자원을 검증·활용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

안내판 정비대상 문화재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안내문안 집필도 맡겨야

■ ■ ■ 셋째, 용역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청군의 경우에는 안내판 정비사업 대상 19건 중 건축문화재가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기관이 건축문화재 외 다른 유형에 대한 안내문안 기술에서 전문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부족한 부분은 시민자문단 전문위원 및 각계 전문가 의견과 문헌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였고, 문화재 소유(관리)자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에 문화재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재청이나 광역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청군의 의견이다.





산청 율곡사 대웅전

보물 제374호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불전

소재지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곡사길 182(울현리)

시대 조선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율곡사 대웅전 (栗谷寺 大雄殿)

보물 제374호(1963.01.21.)

②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

② 불필요한
주소 기입

율곡사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전하며, 조선 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단성현에 있는 절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대웅전은 조선중기 건물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팔(八)자 모양의 ③ 팔작지붕을 얹었다.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③ 3단의 목조장식은 복잡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졌다.

④ 내부의 천장은 모난 우물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부처의 위에는 지붕 모양의 ③ 단집을 달았다. 기둥 사이에 두 짝씩 달은 문은 여러 문양의 문살로 꾸며 건물의 모양을 다양하게 해 주고 있다.

④ 전문적인
건축 용어가
너무 많고
설명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③ 3단목조
양식,
팔작지붕, 단집
등 어려운
용어를 해설
없이 사용

⑤ 문화재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음

⑤ 지붕을 받치는 목조 장식은 조선 초기와 중기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멋을 갖추고 있다.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시

① 산청 율곡사 대웅전 山淸 栗谷寺 大雄殿

보물 제374호

② 주소 삭제

② (주소 삭제)

④ 문화재
연혁을 추가

③ 대웅은 석가모니불을 가리키며, 위대한 성인을 뜻한다. 대
웅전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좌
우에 모시는 전각이다. ④ 산청 율곡사는 신라 진덕 여왕 5년
(651)에 원효 대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신라 경순왕 4년
(930)에 고쳐 지었다. 대웅전은 조선 숙종 4년(1678)에 수리하
였다.

⑤ 팔작지붕에
대한 설명
추가

산청 율곡사 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 건물이며, ⑤ 옆에
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⑥ 지붕 무
게를 받치는 3단 나무 구조물이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 있
으며, 아름답고 웅장한 멋이 있어 조선 초·중기 사찰 건축 양식
의 특징을 보여 준다. 앞면에 있는 문 두 짝은 문살의 문양이
독특해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⑦ *문수보살(文殊菩薩): 석가모니의 왼쪽에 있는 불교의 지혜를 맡은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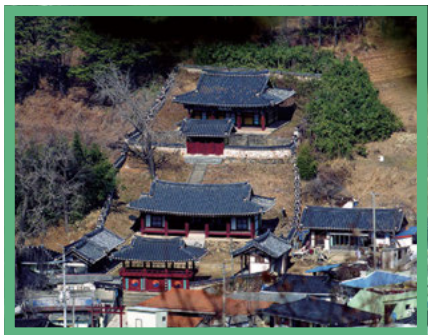
*보현보살(普賢菩薩): 석가모니의 오른쪽에 있는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은 보살



③ 대웅전에
대한 간략한
안내

⑥ 3단
목조장식
설명추가하며
관람포인트
안내

⑦ 불교용어
추가설명



산청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4호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향교

주소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시대 조선시대



산청향교(山淸鄕校)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4호

①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

② 어려운
용어나 전문
용어 사용

③ 동·서무,
전학후묘 등
향교의 배치에
대해 전문적인
건축학적
내용이 너무
많음.

④ 일반향교
설명이 너무
많아 산청향교
특징이 쉽게
인지되지 않음

향교는 옛 성현①(聖賢)을 받들며,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과 ② 미풍양속의 교화를 목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설립되어, 조선시대 말엽까지 이어져 온 지방 교육의 중심 기관이었다. 산청향교는 1440년(세종 22)에 세워진 이래, ② 임진병자 두 전란을 겪으면서 불탄 것을 1755년(영조 31)에 지금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③ 향교는 교육과 제례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일직선을 축으로 앞쪽에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명륜당①(明倫堂)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좌우에 생활공간인 동·서재를 둔다. 뒤쪽에는 중앙에 공자의 위패를 봉안하는 대성전(大成殿)이 있으며, 대성전의 좌우에 공자①(孔子)의 제자 및 우리나라의 이름난 학자들을 받드는 동·서무①(東·西廡)가 있다. 산청향교 역시 이러한 배치법①[前學後廟]을 따르고 있다. ④ 그러나 중수과정에서 변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륜당과 대성전 영역의 중심축이 서로 어긋나 있다. 또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대성전 영역의 동·서무도 없다. 입구에는 정문 역할을 하는 욕기루(浴沂樓)가 서 있는데, 이곳은 유생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손님을 접대하던 곳이다. 일반적으로 누각은 신성한 대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입구에 위치한다. 명륜당의 “명륜”은 “군자의 학문”을 뜻하는 것으로, “학문을 배우고 인간 사회를 널리 밝히다.”는 유교의 이념을 담고 있다.

산청향교 山淸鄕校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4호

① 향교는 국가에서 세운 지방 교육 기관으로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였다. 시나 문장을 짓는 법, 유교의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고, 중국과 조선의 뛰어난 유학자에게 제사를 올렸다.

① 향교에 대해 쉽게 설명

산청향교는 조선 세종 22년(1440)에 세운 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불에 탄 것을 조선 영조 31년(1755)에 지금 위치에 다시 세웠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다.

② 문화재적 가치 설명

② 산청향교에는 여러 제사 기구, 술잔, 선비 옷 등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어 당시 선현(先賢)의 생활양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향교의 앞쪽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당인 명륜당과 생활공간인 동재(東齋)와 서재(書齋)가 있고, 뒤쪽에는 사당인 대성전이 있다. ③ 일반적으로 향교에서는 강당과 사당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나 산청향교에서는 내삼문의 계단이 직선이 아닌 ‘ㄴ’자로 되어 있고, 명륜당 뒤의 대성전도 약간 틀어져 위치하고 있어 특이하다.

일반적인 향교와 이 문화재의 차이점, 이 문화재만의 특징과 가치 등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다만 향교 건물의 구성을 그림으로 설명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③ 일반적인 향교와 산청향교의 차이에 대해 주로 설명

④ 향교와 은행나무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며, 관람객의 흥미 유도

④ 산청향교의 입구 앞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은행나무는 유교를 상징하는 행단*의 의미가 있다. 이 은행나무는 약 500년 동안 향교 앞을 지키며, 산청향교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⑤ *행단(杏壇): 학문을 닦는 곳을 이르는 말. 공자가 은행나무 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

⑤ 어려운 용어는 주석으로 추가설명





산청 김후 묘

경상남도 기념물 제251호

분류 유적건조물/ 무덤/ 무덤/ 봉토묘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신동면 평지리 산39번지

시대 조선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산청 상산김씨 김후묘

(山淸 商山金氏 金後墓)

②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

④ 모두 4단으로 이루어진 이 묘역에는 15~18세기에 걸쳐 상산김씨②(商山金氏) 13대 ③후(後)를 비롯한 모두 6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13대 후와 14대 장 ②(張)의 묘는 ③방형분(方形墳)이고, 19대 경근②(敬謹)과 25대 규한②(奎翰)의 부인 평산신씨②(平山申氏)의 묘는 ③원분②(圓墳)이다.

③ 어려운 용어나 전문용어 사용

가장 상단에 위치한 김후의 묘는 부인 장씨(張氏)와 합장되어 하나의 봉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③갑석의 각 모서리는 끝이 가볍게 들어 올려져 있어 탑의 ③옥개석을 연상케 한다.

④ 묘의 양식이나 구성요소 등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김후는 고려 말의 사람으로 포은 정몽주에게서 ③사사하였고, ③정4품 직제학(直提學)의 벼슬에 올랐으나, 고려가 망하자 벼슬 버리고 두문동②(杜門洞)에 은거한 72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⑤ 문화재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근거 부족

⑤ 6기의 묘 중 15세기의 묘는 ③방형분이고, 16세기 말 이후는 ③원분인데, 이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유행하던 방형분의 종말과 원분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⑥ 묘지, 면석 등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 사용

⑥ 또한 김후의 묘 ③면석②(面石)에 새겨진 명문(銘文)은 ③묘지②(墓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고인②(故人)의 ③생전행적②(生前行蹟)과 이름, 본관②(本貫), 자손관계, 묘의 조성연대와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방형분의 ③면석에 연대나 이름이 새겨진 예가 있지만 대부분 후대에 ③가필한 것 들임에 반해, 이것은 묘를 조성 할 당시 새긴 점과 ③묘지②(墓誌)의 구성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당대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① 문화재
명칭 정확히
표기

① 산청 김후 묘 山淸金後墓

경상남도 기념물 제251호



② 김후는 고려 말 사람으로 정몽주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른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 벼슬길에 올랐으나, 고려가 망하자 고려에 대한 충심과 지조를 지키고자 벼슬을 버리고 두문동에 숨어 산 72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후 처가인 산청으로 내려와서 평생 고려 신하임을 숨기고 살았다. 산청 김후 묘는 6기(基) 묘가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높은 단에 김후와 부인 장씨가 한 무덤에 묻혀 있으며, 아래로 그의 아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다.

② 핵심 인물인 김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벼슬 명칭 등 인적사항을 나열하기보다는 김후라는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

③ 방형분 · 원분 등의 전문용어 사용을 줄이고, 문화재가 지닌 양식적 가치를 간략하게 설명

③ 산청 김후 묘 중 15세기에 만들어진 묘는 평면이 네모 모양이나, 16세기 말 이후에 만들어진 묘는 둥근 모양이다. 이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유행하였던 네모 모양의 묘가 사라지고, 둥근 모양의 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1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④ 대부분의 묘비는 후대에 새로 쓴 경우가 대부분이나 김후 묘비에 새겨진 글은 지금까지 그대로라는 점과 묘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④ 가필 등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고, 묘지 등 필요한 용어는 각주를 이용하여 추가설명

⑤

* 묘지(墓誌): 죽은 사람의 이름, 신분, 행적 따위를 기록한 글

⑤ 어려운 용어는 주석으로 추가설명

1. 개요



■■■ 송파구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시기의 유적지와 유물이 많은 지역이다.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과 보상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송파구 문화재 안내판에는 새롭게 밝혀진 발굴성과를 안내판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내 문안을 쉽고 편안하게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한 듯 보인다.

■■■ 이러한 점에서 송파구는 안내문안을 통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가가 아닌 **방송작가를 집필진으로 선정**하였고, 안내판에 담을 **이미지도 신중하게 선정**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송파구는 **많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시민자문단으로 선정**하였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열정적인 시민자문단의 노력과 의견으로 최신 연구 성과가 안내 문안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며, 전문가를 여러번 찾아가 안내 문안의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2. 사업대상 문화재



서울 몽촌토성(사적 제297호)

서울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서울 방이동고분군(사적 제270호)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8호)

문양군 류희림 묘역(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9호)

서울 송파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절차



3. 핵심 성공요인

- ➔ 다양한 전문가, 집필진, 시민참여단의 참여로 안내문안의 질을 높이자
- ➔ 관람객의 관점에서 안내판을 디자인하자
- ➔ 현장에서 찾아보는 문화재 안내판

■■■ 송파구는 국문집필진을 구성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몽촌토성과 백제 고분, 조선시대 묘역 등과 관련된 전문가는 찾을 수 있었으나, 이들은 초안 작성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했다.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기 어려워지자 송파구 담당자는 생각을 바꾸어 **방송작가 출신을 집필진으로 선정**하였다. 방송작가는 전문가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 관점에서 안내 문안을 쉽고 재밌게 작성**할 수 있었으며, 해당 방송작가는 이전에 문화재 안내문안 작업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문화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도 기대되었다.

■■■ 실제로 방송작가가 작성한 초안에서는 ‘평지성’, ‘성내천’, ‘이수(麟首·용 모양을 새긴 머릿돌)’ 등의 어려운 용어가 개선되었으며, 조선시대 묘역 관련 이야기가 보완되기도 하였다. **다만, 방송작가가 작성한 안내 문안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성은 되었으나 기존 학설만 작성되고 새롭게 사실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몽촌토성·방이동고분군 등 송파구의 문화재는 지금도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역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愼先庚과 柳仁濠 墓域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8호

Tombs of Sin Seon-gyeong and Ryu In-ho

愼先庚和柳仁濠墓區 | シン・ソンギョン(愼先庚)とリュ・インホ(柳仁濠)墓域

조선 전기 문신 신선경과 류인호의 묘역이다. 신선경은 세조 대 원종공신 2등으로 사헌부 장령, 성종 대 동지중추부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덕종(德宗: 의경세자)의 후궁 숙의 신씨의 아버지이다. 류인호는 신선경의 사위로 성종 대에서 중종 대에 걸쳐 사헌부 장령, 공조참의 등을 지냈다.

신선경과 부인 청주 한씨의 쌍분묘 옆에 사위인 류인호와 거창 신씨의 합장묘가 나란히 조성돼 있고, 그 앞에는 후손인 수사공 류정구의 묘소가 있다. 신선경 부부 묘에는 묘표*와 상석*, 문인석*을 세웠고, 류인호 부부 묘에는 묘표와 상석, 망주석*을 세웠다.

신선경과 류인호 묘는 조선 전기의 묘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거창 신씨 묘역에는 사위와 외손자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처가살이를 비롯하여 아들,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던 조선 전기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묘 표: 죽은 사람의 이름,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표석

*상 석: 봉분 앞에 놓는 커다란 돌상

*문인석: 문관 형상으로 만들어진 돌

*망주석: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사적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음에도, 비전문가 집필진으로는 그러한 발굴성고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는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하였다.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과 ‘문양군 류희림 묘역’ 등 조선시대 묘역은 초안의 내용이 부실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전문가를 섭외하여 내용을 다수 보완할 수 있었다.

송파구는 2020년 사업 추진 시에는 **전문가와 방송작가 2인을 합동 집필진으로 선정**하여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일반 관람객이 알기 쉬운 안내 문안을 작성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 ■ ■ 또한, 시민자문단의 도움으로 최신 연구결과를 안내 문안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송파구는 시민자문단을 11명(지역주민 6, 전문가 5)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어문안 자문 · 문화재 정보 자문 · 설치 위치 자문**으로 자문범위를 구분하고 별도로 자문을 받았다.

송파구의 자문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연간 100차시 이상 풍부한 현장해설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고유 스토리텔링을 담은 안내판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현직 중학교 교사는 청소년 눈높이에서 쉬운 용어의 사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한, 시민자문단은 최근 실시한 방이동고분군 발굴조사 결과를 공부하여 안내 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최신 발굴성고가 안내판에 반영될 수 있었다. 시민자문단으로 참여한 서울디자인재단 청년인턴은 일러스트 제작에 도움을 주는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시민자문단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송파구 전문가 · 지역주민의 사업단계별 참여현황

단 계	역할		참 여 자
집필	국어문안 초안 집필		• 방송작가, 안내문안 집필자
문안 감수	국어문안 자문 (시민자문단)		• 문화관광해설사, 송파구 주민 • 문화관광해설사, 송파구 주민 • 배재중학교 국사 교사 • 삼전도비 안내문 오류 제보자
	대상별 전문가 자문단	삼전도비	• 국사학과 교수 • 동양사학과 교수 • 상지대 명예교수
		방이동고분군	• 국사학과 교수
		몽촌토성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 한국사학과 교수
		문양군 류희림 묘역	
안내판 디자인 설계	설치위치 자문		• 문화관광해설사, 송파구 주민 • 문화관광해설사, 송파구 주민 • 서울디자인재단 청년인턴, 송파구 주민 • 안내문안 집필자, 방송작가
	굴식돌방무덤 일러스트 제작		• 서울디자인재단 청년인턴

■■■ 이번 송파구 문화재안내관 정비사업의 핵심 성공요인 중 하나는 구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송파구는 현재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동고분군·방이동고분군 등을 백제관련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인 역사문화재과는 송파구청의 연수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박 5일 동안 나주, 익산, 서산, 공주, 부여 등 백제유적지를 탐방하였다.



■■■ 송파구 담당자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안내관을 유심히 보고, 이를 올해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주 복암리고분군에서 고분 모형을 본뜨는 것을 보고, 송파구 방이동 고분군에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안내관 디자인이 통일된 것을 보면서, 송파구의 안내관 디자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익산 왕궁리유적 안내판



공주 공산성 안내판



부여 능산리고분군 안내판



나주 복암리고분전시관(2019.10.)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2019.10.)



서산 보원사지(2019.10.)



서울 몽촌토성

사적 제297호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지

소재지 서울 송파구 방이2동 88-3번지

시대 백제시대

서울 몽촌토성

지정번호 : 사적 제270호

시대 : 백제

① 주소기입
불필요

①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3

현재는 평지성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남한산에서
뺀어 내려온 낮은 자연 구릉의 끝 부분에 쌓은 일
종의 산성이다. ③ 성벽의 전체 길이는 2.285m

이고, 높이는 6~40m로 지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성벽 바깥쪽에 ②목책이 있으며,
동쪽, 북쪽, 서쪽으로는 성내천이 토성을 감싸고 돌아 성 주위를 둘러싼 ②해자 역
할을 한다. 성벽 바깥 동북쪽 작은 구릉에는 둘레 270m 정도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무로 세운 보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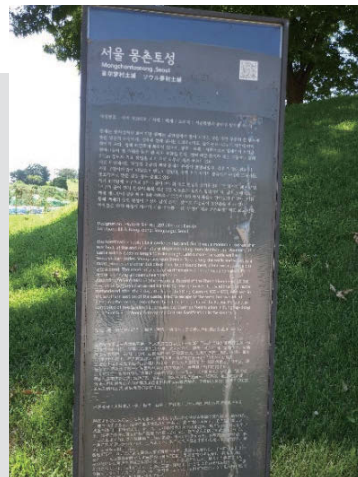
② 어려운
용어를
해설없이 사용

③ 관람객에게
와닿지 않은
구조, 규모
설명

이곳 토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백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각종 집터와 건물
터, 저장 구덩이가 많이 나왔으며 연못이 있었다. 수천 점의 토기와 중국에서 수입
한 도자기들, 뿔조각으로 만든 갑옷 등도 출토되었다.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3만 대군이 백제의 왕도 한성을 공격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군이 먼저 한성의 북쪽 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해 함락시키자, 남
쪽 성에 있던 백제 개로왕이 성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도망치다가 잡혀 죽음을 향하
였다’고 한다. ④ 이를 통해 백제의 왕도 한성이 북성과 남성 2개의 성으로 구성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대개 북성이 지금의 서울 풍납동 토성, 남성이 서
울 몽촌토성이라고 보고 있다.

④ 문화재 가치
설명 부족



몽촌토성은 자연 구릉에 쌓은 토성으로 성벽의 길이는 2,383m이고 내부 면적은 224,840㎡이다.

토성 안에서는 1만여 점 넘는 유물이 출토됐는데 대부분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대 유물로 알려지면서 몽촌토성은 4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475년에 고구려군이 먼저 한성의 북쪽 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해 성이 함락하자 남쪽 성에 있던 백제 개로왕이 성을 빠져 나와 서쪽으로 도망치다가 잡혀 죽음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북쪽 성을 지금의 풍납토성, 남쪽 성을 몽촌토성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시행한 발굴에서는 조선시대 문화층,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이 차례로 발견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30기 이상의 통일신라시대 집 자리와 우물 등 마을 흔적을 발견하였다.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고구려 도로와 백제 도로를 연속하여 발굴하였고 집수 시설도 발견하였다. 계속된 발굴로 천오백 년 전에 사라진 몽촌토성의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 몽촌토성 서울 夢村土城

사적 제297호

① 주소삭제 → ① (주소 삭제)

② 문화재
구조, 규모
설명 단순화

몽촌토성은 자연 구릉에 쌓은 토성으로 ② 성벽의 길이는 2,383m이고 내부 면적은 224,840㎡이다. 토성 안에서는 1만여 점 넘는 유물이 출토됐는데 대부분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대 유물로 알려지면서 몽촌토성은 4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③ 삼국사기에는 475년에 고구려군이 먼저 한성의 북쪽 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해 성이 함락하자 남쪽 성에 있던 백제 개로왕이 성을 빠져 나와 서쪽으로 도망치다가 잡혀 죽음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북쪽 성을 지금의 풍납토성, 남쪽 성을 몽촌토성으로 보고 있다.

④ 최근의
발굴성과
인용

④ 최근에 시행한 발굴에서는 조선시대 문화층,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이 차례로 발견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30기 이상의 통일신라시대 집 자리와 우물 등 마을 흔적을 발견하였다.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고구려 도로와 백제 도로를 연속하여 발굴하였고 집수 시설도 발견하였다. 계속된 발굴로 천오백 년 전에 사라진 몽촌토성의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⑤ 사진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전체 모습을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게 함

③ 삼국사기의
기록과 학계의
연구성과
적절히
인용하여
문화재 가치
설명



서울 방이동 고분군

사적 제270호

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고분군

소재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산47-4번지

시대 삼국시대

서울 방이동 고분군 서울 芳蔦洞 古墳群

지정번호 : 사적 제270호

시대 : 백제

① 주소기입
불필요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25

② 관람객에게
와닿지 않은
구조, 규모
설명

방이동 일대의 낮은 능선을 따라 준비하게 있던 무덤 일부를 1975년에 발굴 조사한 뒤 1983년에 정비하였다. ② 현재 남아 있는 무덤은 8기로 서쪽 높은 지대의 4기와 동쪽 낮은 지대의 4기이다.

③ 어려운
용어를
해설없이 사용
(‘궁륭식’ 용어
해설이 있지만
각주의 기능이
약함)

제1호분과 제6호분, 그리고 도시 개발로 사라진 제4호분 등은 ③ 갠돌로 쌓은 궁륭식*천장의 굴식돌방무덤으로 백제 전기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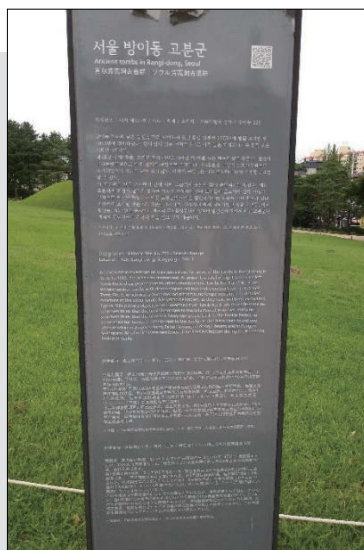
제5호분은 ③구덩식 돌덧널무덤으로 조사되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머지 무덤들은 아직 조사하지 않아 자세한 구조를 알 수 없다.

④ 이 고분군은 발굴 조사하기 전에 이미 도굴되어 유물이 많이 출토되지는 않았다. 제6호분에 회청색 ③굽다리 접시를 비롯한 전형적인 신라 토기들이 출토되어 신라 시대의 무덤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곳 고분군의 국적을 판단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④ 발굴성과
부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내판에
기술함으로써,
문안의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짐.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8기 가운데 4기이고, 한성시대 백제 지역이었던 서울 우면동, 하남 광암동, 성남 판교 등지에서 백제의 굴식돌방무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이곳 고분군이 백제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궁륭식: 내 벽을 모두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쌓아 폭을 좁힌 다음 맨 위에 큰 돌을 올려 천장으로 만든 방식



서울 방이동 고분군

서울 芳蔦洞 古墳群 사적 제270호

Ancient Tombs in Bangi-dong, Seoul

首尔芳蔦洞古坟群 | ソウルバンイドン(芳蔦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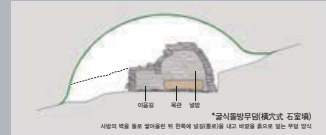
방이동에는 삼국시대의 무덤들이 낮은 능선을 따라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무덤은 모두 8기이다.

발굴한 결과 1·3·4·6호분은 굴식돌방무덤*으로 밝혀졌고, 1·4·6호분에서는 신라 토기의 전형적 형식을 보이는 회청색 굽다리접시*가 발견되었다.

이 무덤군의 축조 시기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처음에 백제인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신라인이 다시 묻힌 무덤과 신라가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만들어진 무덤이 함께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하남, 성남 등에서 백제의 굴식돌방무덤을 여럿 발굴하면서 방이동 고분군은 백제 왕실 묘역이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방이동 고분군은 백제 때 만들어진 이후 신라 무덤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백제와 신라 간의 교류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을 증명하는 유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방이동 고분군 서울 芳蔦洞 古墳群

사적 제270호

① 주소삭제 → ① (주소 삭제)

② 문화재
구조, 규모
설명 단순화

② 방이동에는 삼국시대의 무덤들이 낮은 능선을 따라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무덤은 모두 8기이다.

③ 발굴성과를
기초로 하여
문화재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신뢰도
있게 기술함.

③ 발굴한 결과 1·3·4·6호분은 굴식돌방무덤*으로 밝혀졌고, 1·4·6호분에서는 신라 토기의 전형적 형식을 보이는 회청색 굽다리접시*가 발견되었다.

이 무덤군의 축조 시기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처음에 백제인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신라인이 다시 묻힌 무덤과 신라가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만들어진 무덤이 함께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하남, 성남 등에서 백제의 굴식돌방무덤을 여럿 발굴하면서 방이동 고분군은 백제 왕실 묘역이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④ 이처럼 방이동 고분군은 백제 때 만들어진 이후 신라 무덤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백제와 신라 간의 교류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을 증명하는 유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⑤ 그림, 사진을
이용하여 어려운
용어(굴식돌방 무덤,
굽다리접시)를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게 함



고건축전문가



그림을
활용하여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요.

④ 문화재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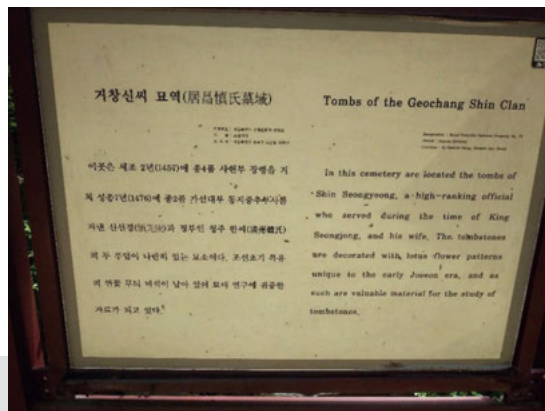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8호

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기타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63

시대 조선시대



① 문화재
명칭 오류

① 거창신씨 묘역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8호

시대 : 조선시대

② 주소 기입
불필요

②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이곳은 세조 2년(1457)에 종4품 사헌부 장령을 거쳐 성종7년(1476)에 종2품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신선경과 정부인 청주 한씨의 두 무덤이 나란히 있는 묘소이다. 조선 초기 특유의 ③ 연꽃 무늬 비석이 남아 있어 묘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③ 문화재
가치를
설명했으나,
근거 부족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형태, 규모,
구조, 가치
설명이 부족.
무덤 주인인
인물에 대한
설명도 부족함.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慎先庚과 柳仁濠 墓域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8호

Tombs of Sin Seon-gyeong and Ryu In-ho

慎先庚和柳仁濠墓域 | シン・ソンギョン(慎先庚)とリュ・インホ(柳仁濠)墓域

조선 전기 문신 신선경과 류인호의 묘역이다. 신선경은 세조 대 원종공신 2등으로 사헌부 장령, 성종 대 동지중추부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덕종(德宗: 의경세자)의 후궁 숙의 신씨의 아버지이다. 류인호는 신선경의 사위로 성종 대에서 중종 대에 걸쳐 사헌부 장령, 공조참의 등을 지냈다.

신선경과 부인 청주 한씨의 쌍분묘 옆에 사위인 류인호와 거창 신씨의 합장묘가 나란히 조성돼 있고, 그 앞에는 후손인 수사공 류정구의 묘소가 있다. 신선경 부부 묘에는 묘표*와 상석*, 문인석*을 세웠고, 류인호 부부 묘에는 묘표와 상석, 망주석*을 세웠다.

신선경과 류인호 묘는 조선 전기의 묘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거창 신씨 묘역에는 사위와 외손자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처가살이를 비롯하여 아들,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던 조선 전기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묘 표: 죽은 사람의 이름,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표석

*상 석: 봉분 앞에 놓는 커다란 돌상

*문인석: 문관 형상으로 만들어진 돌

*망주석: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① 문화재
명칭 수정

①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慎先庚과 柳仁濠 墓域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8호

② 주소삭제

② 주소 삭제

조선 전기 문신 신선경과 류인호의 묘역이

다. ③ 신선경은 세조 대 원종공신 2등으로

사헌부 장령, 성종 대 동지중추부사 등을 두

루 거쳤으며, 덕종(德宗: 의경세자)의 후궁 숙의 신씨의 아버

지이다. 류인호는 신선경의 사위로 성종 대에서 중종 대에 걸

쳐 사헌부 장령, 공조참의 등을 지냈다.

④ 신선경과 부인 청주 한씨의 쌍분묘 옆에 사위인 류인호와

거창 신씨의 합장묘가 나란히 조성돼 있고, 그 앞에는 후손인

수사공 류정구의 묘소가 있다. 신선경 부부 묘에는 묘표*와

상석*, 문인석*을 세웠고, 류인호 부부 묘에는 묘표와 상석, 망

주석*을 세웠다.

⑤ 신선경과 류인호 묘는 조선 전기의 묘제를 잘 보여주는 중

요한 사례이다. 거창 신씨 묘역에는 사위와 외손자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처가살이를 비롯하여 아들, 딸에게 재산

을 고르게 나누어 주던 조선 전기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⑥ *묘 표: 죽은 사람의 이름,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표석

*상 석: 봉분 앞에 놓는 커다란 돌상

*문인석: 문관 형상으로 만들어진 돌

*망주석: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③ 문화재
관련 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관람객에게
기본 정보
제공

④ 문화재
구조 설명

⑤ 문화재
가치를
근거를 들어
설명. 기존
문안보다
명확해짐.

⑥ 각주를
활용해
어려운 말은
풀어서 설명

외국인도 읽기 쉬운 안내판

영어 안내문안 작성 및 감수 절차 ... 166

영어 안내문안 작성 기본 원칙 ... 167

한국문화에 낯선 외국인을 위해 건축물의 기능을 설명하자 / 건조물 ... 168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특정 전투나 성곽을 만든 배경을 설명해보자 / 성곽시설 ... 172



두릉산성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이는 비석의 특징을 뽑아내자 / 비석류 ... 176



타루비

향교와 서원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자 / 향교 및 서원 ... 180



고성 갈천서원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설하자 / 불교문화재 ... 184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 1 **작업 대상 분석 및 자료 조사**
 - 대상 문화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탐색
 - 종합 안내판, 권역 안내판, 개별 안내판 등 안내판 특성에 따른 서술 전략 수립
- 2 **영문 해설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 외국인 독자를 고려하여 추가로 설명할 내용, 생략할 내용, 서술 순서 등을 결정
- 3 **영문 원고 작성**
 - 원어민 또는 전문 번역 인력 활용
- 4 **원어민 감수 (1차 감수)**
 - 작성된 영문 원고가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등을 검토
 -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
 - 자료 조사, 번역, 감수 등 전 과정의 인력이 참여
- 5 **영문 원고 검수 회의 (2차 감수)**
 - 1차 감수 결과물에 대해 정확성, 가독성 등을 점검
 - 원어민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참여하여, 실제 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6 **최종 감수 및 교열 (3차 감수)**
 - 문장 표현, 문법, 오타자, 기호의 사용 등을 최종 점검
- 7 **제출 및 피드백**
 - 작성된 영문 문안을 발주기관에 송부
 - 발주기관의 피드백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수정안 제출
 - 안내판 제작용 시안을 토대로 오타자, 줄바꿈, 문단 구분 등 최종 점검
- 8 **시안 검토**
 - 필요한 경우, 문안의 분량 조정
 - 폰트의 종류, 크기, 문안 배치 등 점검

1 국문 안내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제대로 된 영문 안내문이 될 수 없다.

1. 외국인 독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이나 관심의 초점이 한국인과 다르다.
2. 과다한 정보는 생략하고, 대상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배경지식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독자를 고려한 별도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영문 안내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기본적인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한다.

1. 문화재 명칭에 사용된 국문 용어의 간략한 정의, 대상 문화재의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적절히 보완하여 제공해야 한다.

3 국내외 관련 요소와 연계하여 맥락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

1. 문화재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상호 연관되는 문화재,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설명한다.
2. 외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세계사 또는 아시아의 역사와 연계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4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1. 영어 안내문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어를 모르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3.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길이로 단락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

5 공식 기준에 맞는 표기를 사용한다.

1. 음역이 필요한 경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2. 문화재 명칭은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을 따른다.

1. 건조물 문화재 안내판 일반사항

■ ■ ■ 건조물을 설명하는 안내문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안내문안을 영문으로 직역하기보다 외국인 관람객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영문으로 집필할 것을 권한다.

- 건축물 전체의 구조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 해당 문화재만의 특징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드러나기 어렵다.
-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학적 전문용어가 남용된다.
- 특정 가문 또는 인물과 관련된 건축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건조물 문화재 안내문안 예시]

괴산 김항목 고택

Gim Hang-muk's Historic House, Goesan

① This house is located on a sunny, good land with a low hill at the back. The anchae (women's quarters) was built during the early 1800s, but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jungmunchae (middle gate wing), daemunchae (main gate quarters) were constructed later. ② The anchae is arranged in the typical southern style. ③ Around the daecheong (main wooden floor) are the anbang (main room) and a kitchen with a pantry on the left and a room across from the anbang on the right. The sarangchae consists of a kitchen and a small room, with a large room at a bent corner, the daecheong (main wooden floor), and a room across from the large room. The rest of the buildings were buil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outer haengnangchae measures 11 kan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and consists of storage room, rooms, and barn. The gwangchae measures 6 kan with an underfloor heating system installed on each end. ④ This house for the nobility was built in the typical traditional construction method. It has a very practical structure consisting of big and small spaces,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valuable asset in studying upper-class traditional houses.



- ① 김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음
- ② 남도식 배치방법 등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건축학적 전문용어 사용
- ③ 각 건물의 크기나 배치, 구조 등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
- ④ 상류주택연구에 왜 좋은 자료가 되는 건물인지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음

영천 정용준씨 가옥

House of Youngcheon Jong Yongjun

① The residential building was built in the 1st year of King Youngjo of Chosun Dynasty(A.D. 1725)by the 8th ancestor of the current owner, Mr. Jeong, Yong Joon and consists of the main building and a pavilion. The main building has a living room and the room beside the gate forming a straight horizontal line, and on entering the gate, there are an inner building and a store room forming 'ㄱ' letter shape of flat plane, plus there is an outer-wing building; thus the general appearance of the buildings is arranged in plane shape of 'ㄷ' letter.



② The inner building is a type of Sorosoojang Moolikgong house with three-ridge-beam structure being tied up by square pillars and square beams. The pavilion located at the riverside some 50m apart from the main building is a type of Choik Gong house with name of lotus pavilion on the account that immediately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avilion on the account that immediately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avilion the lotus flowers were bloomed in the lotus pond near the pavilion.

① 정용준씨의 8대조가 어떠한 인물인지 잘 나타나지 않음.

② 한국인도 알기 힘든 소로수장 물익공 · 초익공 등의 건축 용어를 음역하여 사용하였고, 문화재의 가치도 파악하기 어려움

2. 건조물 관련 문화재 영문 안내문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꿀팁

-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 독자들을 위해 ‘종택(宗宅)’, ‘재사(齋舍)’, ‘재실(齋室)’, ‘정사(精舍)’ 등 해당 건축물의 기능적인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
- 최근에 보수 또는 복원이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면 해당 연혁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문안 이 될 수 있다.
- 전체 구조는 텍스트로 설명하기보다는 배치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관련 인물의 생애 또는 업적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해당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건축물의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나 유래를 설명한다.

3. 영문 안내문안 개선사례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주거건축 / 가옥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시대 조선시대

[기존 안내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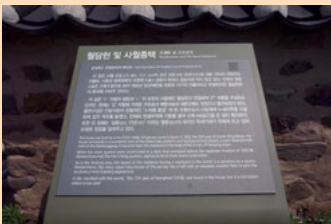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205-1

이 집은 사월(沙月) 조임(趙任)이 조선 선조(宣祖) 35년(1602)에 세운 것이라 전해지는 건물로,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半邊川) 상류의 뛰어난 경승지에 자리 잡고 있다. 안채의 정침(正寢)은 건축수법으로 보아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건물이라고 추정되지만 월담헌은 더 후대에 지어진 것이다.

이 집은 ‘ㄷ’자형의 정침과 ‘ㄴ’자모양의 사랑채인 월담헌이 연결되어 ‘尸’자형을 구성하고 있지만, 원래는 ‘日’자형에 가까운 구조로서 제청(祭廳)과 대문간채도 있었으나 철거되었다 한다. 평면구성은 안동지방의 전형적인 “ㄱ자형 뜰집”의 한 유형으로서 사랑채에 누(樓)마루를 시설하여 집의 격조를 높였고, 안채와 연결부위에 기둥을 쌓아 신축(伸縮)공간을 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이 집에는 ‘성화(成化) 17년(1481)’이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막새기와가 전해져 오고 있어 오래된 집임을 알려주고 있다.



Woldamheon and The Sawol Residence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294

Location : 205-1, Hawon-ri, Yeongyang-eup,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This house was built by Jo Im (1573~1644), whose pen name is Sawol, in 1602, the 35th year of Joseon King Seonjo. The house commands in a wonderful view of the Okseondae platform and Banbyeoncheon stream, a main stream(branch river) of the Nakdonggang. It has since been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Jo clan of Hanyang origin.

While the inner quarters were constructed in a style that prevaile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98, Woldamheon hall, the men's living quarters, appears to be of more recent construction.

As in the Andong area, the layout of the residence having a courtyard in the center is a variation on a square. Woldamheon, like many upper-class houses of the period, has a hall with an elevated wooden floor to give the structure a more imposing appearance.

A tile, inscribed with the words, “the 17th year of Seonghwa”(1418), was found in the house, but it is not known where it was used.

Sawol Head House of the Hanyang Jo Clan, Yeongyang

❶ This is the head house of the family of Jo Im (1573-1644, pen name: Sawol), a scholar of the Joseon period. ❷ A head house is a residence passed down among the male successors of a family lineage.

❸ Jo Im was a grandson of Jo Won (1511-?), the first person of the Hanyang Jo Clan to settle in the Yeongyang area. With the outbreak of the Japanese invasions in 1592, Jo Im and his elder brother joined a civilian army. After the war, he devoted himself to scholastic activities instead of pursuing an official career. During the Manchu invasions of 1627, he donated his private food resources to support the government army. In the second Manchu invasions of 1636-1637, he and his elder brother Jo Geom (1570-1644)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war due to old age, and so instead, they built an altar to pray for a victory and the king's safety.

❹ This house,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1602, consists of a women's quarters, mill house, men's quarters, and a shrine. There were also once a ritual house and a gate quarters behind the men's quarters, but they were dismantled at some point.

❺ In this village there is a pavilion called Sugunjeong also built by Jo Im.

❶ 문화재 지정명칭에 언급된 이 집의 성격과 관련 인물을 가장 먼저 제시

❷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종택'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

❸ 인한양조씨가 이 마을에 살게 된 역사와 이 집을 지은 조임이라는 인물의 생애, 업적을 소개

❹ 건축적 특징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제시

❺ 인근에 위치한 조임과 관련된 다른 문화재도 함께 소개

【영문 해설 내용】

이 집은 조선 후기 학자인 조임(1573~1644, 호: 사월)의 종택이다. 종택이란 한 집안의 종가가 대대로 사는 집이다.

조임은 한양조씨 영양 입향조인 조원(1511~?)의 손자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과 함께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사재를 털어 군량미를 지원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형인 조검(1570~1644)과 함께 노령으로 전쟁에 직접 나서지 못함을 한탄하며, 집 뒤에 단을 쌓고 전쟁에서 이기고 임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축원하였다.

이 집은 1602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침, 방앗간채,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제청과 대문간채도 있었지만 철거되었다.

이 마을에는 조임이 지은 숙운정이라는 정자가 남아있다.

1. 성곽시설 문화재 안내판 일반사항

■■■ 성곽시설을 설명하는 안내문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안내문안을 영문으로 직역하기보다 외국인 관람객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영문으로 집필할 것을 권한다.

- 축성방식이나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남용된다.
- 축성 시기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조사 또는 연구 경과를 나열해서 내용이 어렵거나 재미가 없다.

【성곽시설 문화재 안내문안 예시】

망이산성

Mangyi-sanseong Fortress in Eunseong

Mangyi-sanseong Fortress surrounds the summit of Mangyisan Mountain(Maisan Mountain, 472.5m), which borders Samseong-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Iljuk-myeon, Anseong Gyeonggi-do; and Yul-myeon, Icheon, Gyeonggido.

① The fortress is composed of an earthen inner section that surrounds the summit, with a beacon station located in the center, and a 2,080m-long stone-built outer section that extends along the ridge of the valley on Mangyisan Mountain(Maisan Mountain), with a passage running through its interior. ② It is presumed that the inner section was built during the Hanseong Baekje Period and the outer section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hat the fortress was repaired on two or three occasions during the Goryeo Period; and that part of the castle walls were repair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③ The beacon station at the top of Mangyisan Mountain was part of the signaling system linking Gaseopsan Mountain in Eumseong and Soeulsan Mountain in Jincheon with Geonjisan Mountain, Juksan, and then with Hanyang(present-day Seoul).



- ① 축성방식이나 구조 설명에서 전문용어가 남발
- ② 조사 또는 연구경과가 나열
- ③ 축성 시기나 목적이 잘 나타나지 않음

고현성 Gohyeonseong

① This fortress began to have been built in 1451 and was completed in 1453. At the same year, the government offices of Geoje which had been located in the Sadeung-seong was moves to this fortress. Until 1663 when these government offices were moved once more to Goeje-myeon, this fortress served as the fortress-town of Geoje.

The Gohyeon fortress was constructed in the from of a ship that stood on the eastern slope of Gyeryeongsan.

According to the Dongguk yeojiseungnam, this fortress was ② once 3,038 cheek(1 cheek equal to 30.3m)in circumference and 13 cheek in height which was reported to be mid-sized compared to those fortres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peninsula.

Three gates face the north, south, and cast, above each of which a low wall protected people as they fought off enemy attacks. A separate ‘ㄱ’ shaped fortification completely concealed the entrances from the outside.

Defensive moats around the fortress obstructed anyone from approaching. The structure of this fortress is characteristic of town-fortress from the Joseon dynasty.

This fortress deteriorated after government offices were moved to Geoje. However, even until 1950, most of its original appearance was preserved intact. Than,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U.N. forces used it as a POW camp which accelerated the deterioration of the fortress. only about 800m of the fortress remain today and its interior is used mainly for agricultural and residential purposes.

① 축성 목적이 잘 나타나지 않음

② 성곽의 형태에 대한 묘사가 너무 상세하고, 척(尺) 등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를 제시

2. 성곽시설 관련 문화재 영문 안내문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꿀팁

- 해당 성곽시설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 축성 당시의 주변 상황 또는 인근의 다른 유적과의 관계를 통해 해당 성곽의 기능이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 특정 전투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하면 좀 더 흥미로운 설명이 될 수 있으며, 독자는 이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성곽 내의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발굴된 유적 또는 유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래 시설의 규모를 알 수 있다.
- 단, 발굴 또는 연구 연혁이나 경과가 너무 길게 나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영문 안내문안 개선사례



두릉산성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56호

분류 유적건조물/ 정치국방/ 성/ 성곽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산면 백곡리 산18번지

시대 백제

[기존 안내문안]

두릉산성 (豆陵山城)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에 쌓은 누에고치식 산성으로, '두릉윤성(王陵尹城)' 또는 '계봉산성(鷄鳳山城)'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 정상에 성벽이 자연 지형을 근거로 굽이굽이 둘러싸여 있는 돌로 쌓은 산성이다. 성의 둘레는 560m, 동서와 남북의 너비는 130~40m, 높이가 4~5m이고, 성벽 안쪽에는 너비 10m의 도랑이 있다. 네 성벽 중 남쪽 벽의 길이는 정도로 가장 길고, 동쪽 벽은 95m 정도로 가장 짧다. 남쪽 벽에는 폭이 4m인 1개뿐인 문(門)의 터가 있다.

성의 서남부에는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높은 대(臺)가 있고, 동쪽 벽 가까이에는 우물이 있다.

백제시대의 토기와 기와조각이 상당수 발견되어 백제 시대에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泗池城) 북쪽의 방비에 중요한 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DUREUNGSANSEONG

Dureungsanseong is a fortress built on Gyebongsan. It's also called Dureungyunseong or Gyebongsanseong.

The fortress was made by heaping up stones, using the configuration of the ground. The wall of the fortress is about 560 meters long and about 4 to 5 meters high. The width of the fortress is about 130 to 140 meters. Around Inside of the wall is a trench of about 10 meters in width. 200m The length of the southern part of it is about 200 meters, more longer than the other parts. And the eastern part is about 95 meters long, the shortest. In the southern part there is a 4-meter-wide gate site. In the southwestern fortress there is a high stand with a view, and near the eastern wall there is a well. Many fragments of earthen ware and roof tiles were found here. This means that the fortress was made in the Baekje period. It is presumed that the fortress had a important role in defending Sabiseong against invasion from the north.

Dureungsanseong Fortress

❶ Dureungsanseong is a stone fortress encircling the two peaks of Gyeongsan Mountain (210 m above sea level). ❷ It was built by the Baekje kingdom (18 BCE–660 CE) to protect its capital in Sabi (today's Buyeo area) which was located about 15 km to the south. This fortress also served as a local government office.

❸ In 660, a huge joint army of 180,000 soldiers from the Silla kingdom (57 BCE–935 CE) and Tang China (618–907) invaded Baekje's capital, and the Baekje king was forced to surrender only a few days after the invasion. Some of Baekje's aristocrats and military units refused to surrender and continued a fierce resistance in several local fortresses for nearly three years in an effort to restore their kingdom. During this time, Dureungsanseong was used as one of the important bases for the restoration movement.

❹ Through an excavation conducted in 2019, various remains were found inside the fortress walls, including six building sites, two gate sites, three well sites, one observatory site, and one commander post site.

❺ The fortress walls measure 540 m in perimeter and 4–6 m in width.

❶ 두릉산성의 기본적인 형태를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함.

❷ 축성 주체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❸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두릉산성과의 관계를 설명함.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 역사의 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음.

❹ 가장 최근 이루어진 발굴 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성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소개함. 이를 통해 산성의 규모나 구성 등을 이해할 수 있음.

❺ 성벽의 길이나 너비 등의 수치는 간략하게 제시함.

【영문 해설 내용】

두릉산성은 계봉산(해발 210m)의 2개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석성이다. 백제시대에 이곳에서 약 15km 남쪽에 있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졌다.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치소로도 쓰였다.

660년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18만 대군이 백제의 도성을 침공하여, 불과 며칠 만에 백제의 왕이 항복하고 말았다. 백제의 일부 귀족과 군사들은 항복하지 않고 지방의 성에 머물면서, 약 3년 동안 저항하며 백제의 부흥을 도모했다. 두릉산성도 이때 부흥운동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용되었다.

산성 내부에서는 건물터 6개소, 문터 2개소, 우물터 3개소, 망루 터와 장대 터 등이 발견되었다.

산성의 둘레는 594m이고 성벽의 너비는 약 4~6m이다.

1. 비석류 문화재 안내판 일반사항

■■■ 비석류 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문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안내문안을 영문으로 직역하기보다 외국인 관람객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영문으로 집필할 것을 권한다.

- 비석의 건립 경위나 의미보다 비석 자체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 비석에 새겨진 글자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음역만 하여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 비각 안에 여러 개의 비석이 있는 경우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존 비석류 문화재 안내문안 예시]

상주 사서 전식 신도비 Memorial Stone for Jeon Sik of Sangju

This memorial stone was erected in honor of Jeon Sik ① (pen-name: Saseo; also known as Chunggan-gong, 1563~1642), who was one of the leading men of letters in Sangju in the mid Joseon perio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he accomplished many exploits as a supply officer and was thus appointed as a logistics superintendent. In 1603, he passed the triennial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gradually scaled the bureaucratic ladder to become ① Jwachanseong(Fourth State Councilor).

② The memorial stone, built in 1700(26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features the realistic dragon-shaped patterns on the roof and the distinctively sculpted patterns of the tortoise-shaped platform. Legend has it that those who succeed in placing a stone or a coin on the capstone by throwing it from a distance will have children. A shrine for paying homage to him is located in the nearby village of Gwandong-ri, Oeseo-myeon.

① 글자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 음역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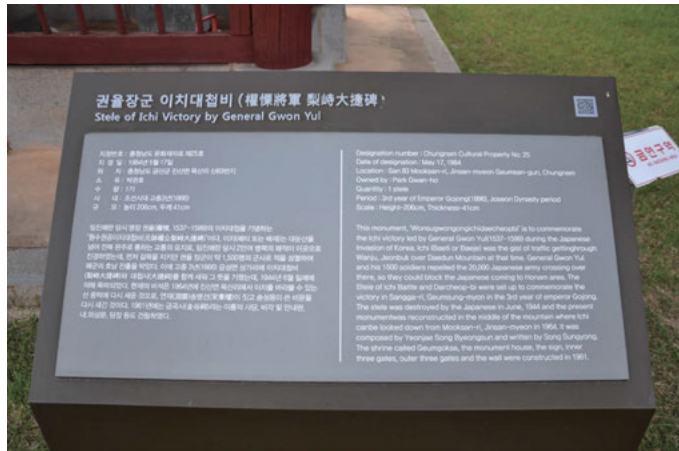
② 신도비의 의미와 건립 경위보다 비석 자체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



권율장군 이치대첩비

Stele of Ichi Victory by General Gwon Yul

① This monument, 'Won-sugwongongichidaeche-opbi' is to commemorate the Ichi victory led by General Gwon Yul(1537-1599)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chi (Baeti or Baeje) was the gist of traffic getting through Wanju, Jeonbuk over Daedun Mountain at that time. General Gwon



Yul and his 1500 soldiers repelled the 20,000 Japanese army crossing over there, so they could block the Japanese coming to Honam area. The Stele of Ichi Battle and Daecheop-bi were set up to commemorate the victory in Sangga-ri, Geumsung-myon in the 3rd year of emperor Gojong. The stele was destroyed by the Japanese in June, 1944 and the present monument was reconstructed in the middle of the mountain where Ichi can be looked down from Mooksan-ri, Jinsan-myeon in 1964. ② It was composed by Yeonjae Song Byeongsun and written by Song Sungyong. The shrine called Geumgoksa, the monument house, the sign, inner three gates, outer three gates and the wall were constructed in 1961.

① '원수권공이치대첩비' 글자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 음역만 실시하여 의미 전달이 어려움

② 송성용, 송병선 등 외국인이 알기 어려운 인물의 이름이 추가설명없이 제시

2. 비석류 문화재 영문 안내문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꿀팁

- 비석의 건립 경위나 관련된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문화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장에서 비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석 전체를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특징적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비석에 새겨진 글자나 비문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요약해서 제시한다.
- 비각 안에 여러 개의 비석이 있는 경우,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3. 영문 안내문안 개선사례



타루비

전라북도 시도기념물 제83호

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소재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46번지

시대 조선

관리자 장수군청

[기존 영문 안내문안]

타루비 (墮淚碑)

전라북도 기념물 제83호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장척 마을의 산 기슭 도로가에 자리하고 있는 비로, 현감을 따라 순찰한 통인(通引:관아에 딸려 잔심부름을 하던 벼슬아치)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조선시대 숙종 4년(1678) 당시 장수현감을 지내던 조종면은 민정시찰을 나섰다가 이곳 산비탈길을 지나게 되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에 놀라 숲 속에 있던 쾅이 소리치며 날아오르고, 이로인해 현감의 말이 덩달아 놀라 한쪽 발을 잘못 디디게 되어 결국 벼랑 밑으로 떨어져 말과 함께 현감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현감을 뒤따르던 통인이 이 광경을 보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현감이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며 손가락을 깨물어 벼랑 위에 쾅과 말의 그림을 그리고 '타루(墮淚:눈물을 흘리다)'라는 두 글자를 쓴 후 스스로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장수현감으로 부임해온 최수형이 이 사연을 전해듣고, 주인을 따라 죽은 그 충성스런 의리를 널리 알리고자 비를 세워 '타루비'라 이름짓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비각 안에 모셔둔 이 비는 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운 간결한 구조이며, 비몸의 윗면 양 모서리를 비스듬히 잘라 다듬었다. 순조 2년(1802)에 세운 비로, 받침부분이 부러져 다시 보수하였으나 역시 볼품이 없어 1881년에 지방민들의 뜻을 모아 '장수 순의리비'를 다시 세워 옆에 함께 모셔두었다.

성이 백씨라고만 전하는 이 통인은 논개, 정경손과 함께 장수지역의 3절(三節:절개를 지킨 3인)로 추대되고 있다. 비각 옆 바위 윗면에는 같은 날 생을 마친 조종면 현감을 기리는 '불망비(不忘碑)'라는 글귀가 남아 있어 더욱 깊은 감회를 가져다 준다.

Tarubi

Jeolabuk-do Monument No.83

Tarubi was erected by subordinates of Admiral Yi Sun-sin in 1603 in tribute to him. Taru meaning 'shedding tears' was taken from an old Chinese saying, "He who does not shed tears after reading this stele is not loyal enough." The loyalty of Admiral Yi's men is almost palpable in the name of the stele.

Built in 1698, Dongnyeongsogalbi bears an inscription

stating the reasons for erection of the Stele to Victories of Admiral Yi Sun-sin in 1615, names of the people who joined in the erection of the stele, an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the process, which were recorded by Sim In-jo, a magistrate of Jinan.



Tarubi Stele

❶ This stele was erected in 1802 to honor the loyal devotion of a local clerk allegedly named Baek.

❷ In 1678, a local magistrate of Jangsu rode a horse through a mountainous area. The clatter of horse hoofs surprised a pheasant hiding in the nearby shrubs. When the pheasant flew out of the shrubs, the magistrate's horse was startled and tripped and fell off a cliff. The magistrate was killed in this accident. The local clerk, who was in the magistrate's entourage, blamed himself for the accident and committed suicide.

❸ Among the two steles housed in the protective pavilion, the smaller one on the right is carved with the inscription "Tarubi," meaning "a stele of shedding tears." The other one on the left was erected in 1881, and its inscription means "a stele of a loyal local clerk of Jangsu."

❶ 언제 누구를 위해 세워진 비석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제시함.

❷ 비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함.

❸ 비각 안의 두 비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석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함.

【영문 해설 내용】

이 비석은 백씨라고 알려진 한 아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802년에 세워졌다.

1678년 장수 현감이 말을 타고 산비탈 길을 지나게 되었다. 말발굽 소리에 놀란 꿩이 숲에서 날아오르자, 이에 놀란 말이 발을 헛디뎈 버랑 밑으로 떨어졌고, 장수 현감도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를 뒤따르던 아전은 이 사고가 자신의 탓이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각 안에 모셔진 2개의 비 중 오른쪽의 작은 것이 타루비이며, 비의 이름은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 왼쪽의 다른 비는 1881년에 세운 것이고, 전면에는 '장수의 충성스러운 아전을 기리는 비'라고 새겨져 있다.



1. 향교 · 서원 문화재 안내판 일반사항

- ■ ■ 향교와 서원을 설명하는 안내문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안내문안을 영문으로 직역하되, 기보다 외국인 관람객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영문으로 집필할 것을 권한다.
- 건립 취지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 독자들이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 특정 인물을 모신 서원의 경우, 해당 인물의 생애나 업적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건물의 배치나 건축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 최근에 보수 또는 복원된 경우, 최초 건립 시기만 제시하여 눈에 보이는 모습과 정보 사이의 괴리가 있다.

[기존 향교 및 서원 안내문안 예시]

의령 미연서원

Miyeonseowon Confucian Academy of Jungchon-ri, Uiryeong



Miyeonseowon is a private Confucian shrine- academy that was established in 1825 in honor of a renowned Neo-Confucian scholar-statesman of the ① mid-Joseon period named ② Heo Mok (pen-name: Misu, 1595-1682) and renovated in 1901. ③ The academy consists of a group of buildings including luijeong Hall at the center, a shrine at the back, a depository for woodblocks (Jangpangak) and a dormitory at the front, and a caretaker's lodge (Gojiksa) to the left of the main hall.

The main building with a hip-and-gable roof is a traditional structure measuring five kan by on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The building is notable for its fine woodworking techniques and comparatively well preserved original features. Previously stored in the woodblock depository was a collection of woodblocks engraved with the writings by Heo Mok, which is now kept in the nearby Uiryeong Museum.

- ① 조선 중기 등 한국사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
- ② 허목의 생애나 업적 등이 없이 유명한 학자라고만 언급
- ③ 건물의 배치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송곡서원 Songgokseowon

① Songgokseowon Shrine was built in 1753 (29th year of King Yeonjo's reign). It was closed in 1871 (8th year of King Gojong) by Daewongun, father of King Gojong, who ordered the closure of shrine and seowon, the Confucian private academies. The Shrine was rebuilt in 1910. Songgoksa Shrine includes the Dongjae and Seojae for study, and Sawu dedicated to worthies of an earlier period. Personages from the past who came from Seosan or were related with Seosan are honored here. Confucian scholars perform rituals in spring and autumn.

Enshrined here are tables of nine worthies. Jeong Sin-bo, the founder of the Seosan Jeong family clan, served as a high official for Song China. He crossed the sea to Ganwol-do Islet of Seosan from China when Sung China collapsed. He refused to serve the new Yuan Dynasty. Yang Yeol-gong Jeong In-gyeong, son of Jeong Sin-bo, fought against the Mongols and was assigned an important position for his success in battle in Sinchang. ② He was also promoted to the rank of today's minister, byeoksang samhan-samjungdaewang -chu-seong-jeongchaekansa-gongsingwa-cheomuibu, Jeong In-gyeong had the Seosan area, which did not have the status of gun (county) from 1182 to 1284, be incorporated into Seosu. Geumheon Yu Bang-taek, the sixth generation of Yu Seong-gan, served in the high government office of Seoryeong-buwongun.

①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없어 한국사에 대한 배경이 없는 외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움

② 한국인도 알기 어려운 “삼한-삼중대광-추성-정책안사-공신과-첨의부” 등의 용어가 그대로 음역되어 있어 외국인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2. 향교 및 서원 문화재 영문 안내문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꿀팁

-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 독자들이 서원이나 향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정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서원에 모셔진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려운 관직명 등을 나열하기보다는,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나 업적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 최근에 보수 또는 복원이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면 해당 연혁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문안이 될 수 있다.
- 서원이나 향교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의 건축적 특징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상의 특징이나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특히 전체 구조는 텍스트로 설명하기보다는 배치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건축물의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나 유래를 설명한다.

3. 영문 안내문안 개선사례



고성 갈천서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호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1146

시대 조선

[기존 안내문안]

고성 갈천서원 (固城, 葛川書院)

이 서원은 행촌(杏村) 이암(李崐)의 향사(享祀)를 받들던 회화면(會華面)의 금봉서원(金鳳書院)을 옮겨 지은 것이다. 이암 [1297~1364]의 본관은 고성으로, 공민왕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다. 1712년[숙종 38]에 금봉서원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갈천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암과 함께 어득강(魚得江), 노필(盧驥), 이교(李齊) 등을 모셨다.

대원군 때 헐렸으나 광복 후에 다시 지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와집인 강당은 가운데 1칸을 대청으로 하고 좌우에 방 1칸씩을 두고 있으며, 오른쪽 방 앞에는 누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강당 뒤쪽 높은 지대 위에 묘우(廟宇)가 있다. 정문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솟을대문으로, 가운데 1칸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양쪽 2칸은 방과 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Galcheon Confucian Academy, Goseong

Gyeongsangnam-do Cultural Material No.36
Gyeongsangnam-do Goseong-gun Daega-myeon
Galcheon-ri

This private school was previously known as Geumbungseowon in Hoehwa-myeon where memorial services for Yi Am [1297~1364, pen name: Haengchon] was held. It was moved, rebuilt, and renamed, enshrining the memorial tablets for Eo Deuk-Gang, No Pil, Yi Gyo along with his. It was demolished by Daewongun, but rebuilt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It has three compartments in front and two on the side with a hip-and-gable roof. The main hall, used as a lecture hall, is flanked by rooms, the right one having a loft floor. Behind the hall up above is there a shrine. The lofty gate has five compartments in front and one on the side with a gabled roof: the middle one is used as an entrance and two on each side as rooms and storage, respectively.

[영문 해설 내용]

서원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갈천서원은 고려시대의 문신인 이암(1297~1364)을 모신 서원이다. 이암은 1313년 17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재위 1351~1374)이 안동으로 피난할 때 호종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신으로 기록되었다. 서화가로도 명성이 높았다.

이 서원은 14세기 후반 금봉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712년 지금 위치에 다시 세우면서 갈천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세기 말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1945년 광복 이후 다시 세웠다.

Galcheonseowon Confucian Academy, Goseong

❶ Confucian academies, called seowon in Korean, ar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which usually combined the functions of a Confucian shrine and a lecture hall.

❶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가장 먼저 제시함.

❷ Galcheonseowon is dedicated to Yi Am (1297-1364), a civil official of the Goryeo period. H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313 at the age of 17 and served various official posts. He escorted King Gongmin (r. 1351-1374) when the king briefly retreated from the Goryeo capital to the Andong area during the Red Turban invasions (1359-1362) and was bestowed the title of meritorious subject. He was also a renowned calligrapher and painter.

❷ 갈천서원에 모셔진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함.

❸ This Confucian academy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late 14th century under the name Geumbongseowon. After being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it was rebuilt in 1712 at the current location and was renamed Galcheonseowon. It was once demo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most shrines and Confucian academies were shut down by a nationwide decree. It was reconstructed after 1945.

❸ 서원의 건립과 그 이후의 연혁을 간략하게 설명함.

❹ Currently, Galcheonseowon also honors Yi Gyo (?-1361), a civil official of the Goryeo period and a younger brother of Yi Am, and two civil officials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namely No Pil (1464-1532) and Eo Deuk-gang (1470-1550).

❹ 추가로 배향된 인물을 제시함.

❺ The complex includes a main gate, lecture hall, inner gate, and shrine. Its layout, placing the lecture hall area in the front and the shrine area in the back, is typical of Confucian academies. The lecture hall consists of a wooden-floored hall at the center and an underfloor-heated room on the either side. The room on the right features an elevated wooden-floored porch. The shrine is called "Sahyeonsa (四賢祠)," meaning "a shrine for four worthies."

❺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을 소개하고, 전체적인 배치의 특징을 설명함. 서원에 모셔진 인물들과 사당의 이름을 연계해서 설명함.

지금은 이암의 동생이자 고려시대의 문신인 이교(?~1361)와 조선시대의 문신인 노필(1464~1532), 어득강(1470~1550)을 함께 모시고 있다.

갈천서원은 정문, 강당, 내삼문,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것은 서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배치이다. 강당은 중앙에 마루를 두고 마루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으며, 오른쪽 방 앞에는 누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사당의 이름은 '사현사(四賢祠)'로 '4명의 현인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다.

1. 불교문화재 안내판 일반사항

■■■ 불교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문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안내문안을 영문으로 직역하기보다 외국인 관람객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영문으로 집필할 것을 권한다.

- 불교 문화재의 특성상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오역이나 용어 표기의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독자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눈에 보이는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기만 하고, 그 모습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전달하지 못한다.

【기존 불교문화재 문화재 안내문안 예시】

화순 쌍봉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상 일괄

Mokjo Jijangbosal sang (Wooden Statues of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he others in Jijang-jeon (the hall for Ksitigarbha Bodhisattva) at Hwasun Ssangbongsa Temple



Jijang-jeon is the hall for ① Ksitigarbha Bodhisattva(Bodhisattva of hell), who resolved not to go to Nirvana till she relieve all the people. In Jijang-jeon at Ssangbongsa Tempel, Jijangbosal's sedentary statue stands surrounded by 21 pieces of wooden statues for Domyeongjonja, Mudokgwiwang, Siwang who judges the dead, Pangwan, Gwiwang, Dongja, Siwang and so on. Jijangbosal(Height 104cm) shaved her hair and has hair band on her forehead. The dharma suit and its pleats are similar to the ones of Amitayeorae sedentary statue in Geukrak-jeon and Sakyamuni sedentary statue in the main hall. It is presumed that the same sculptor or others in the same school judging from these styles.

② Domyeongjonja(Height 146cm) who has a bold head, is standing beside Jijangbosal in the left and joining his hands with veneration and Mudokgwiwang(Height 148cm) in the right puts on jewelry crowns. By both side of these three statues, Siwang(Height 156cm) sits on the chair.

This statue has the most unique sculpture style among the Siwang statues in Joseon Dynasty. All the statues of Siwang have crowns on their head and wear flannelet suit and special suit embroidered dragons on. Two vivid dragons who are holding jade beads are carved on each side of chair. 6 pieces of statues for Pangwan, Gwiwang, Dongja and Sija who assist Siw

① Ksitigarbha(지장보살), Nirvana(열반) 등 어려운 불교용어가 별도의 설명 없이 기재

② 외관모습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

청도 덕사 영산전 석조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Stone Sakyamuni Triad and 16 Arhats(nahan) in the Hall of Mt. Grdhrakuta, Duksa

① The Hall here shows the Buddha Triad, Sakyamuni, flanked by two attendants, Dipamkara Bodhisattva (Past Buddha) and Maitreya Bodhisattva (Future Buddha). ② Among 16 arhats 2 standing and 14 seated in various positions placed both sides of Buddha, 2 standing figures in the end are guardians of this hall. Historical Buddha Sakyamuni is seated cross-legged on a lotus throne, wearing a robe with hands of bhumisparsha mudra, or earth-touching, gesture Ananda and Kasyapa, the two greatest disciples of the Buddha. Both with stood pose showing the contrast between other 14 arhats are depicted in natural poses, each given a specific attribute such as a smiling face, flower tray, staff, lotus flower, tiger, etc.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placed with the votive offerings inside the Sakyamuni image, the sculpture was made on June 5, 1678, together with other figures, at the Cheongjusa temple on Mount Hwaak in western district of Cheongdo. It is not certain how these images were moved from there to here, Duksa.

① 불교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음.

② 눈에 보이는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기만 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으며, 불교용어를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움.

2. 불교문화재 영문 안내문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꿀팁

- 불전의 경우, 해당 전각이 사찰 내에서 어떤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전각 내에 모신 부처나 보살 등의 대상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다.
- 불상의 경우, 해당 불상이 나타내고 있는 부처 또는 보살의 이름과 의미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불상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만 하기보다는 그 모습이 상징하는 의미를 함께 설명한다.
- 불탑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전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특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한다.
- 탑비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대상 승려가 명확히 밝혀진 탑비라면 해당 승려의 생애와 업적을 함께 설명한다.
- 승탑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대상 승려가 명확히 밝혀진 승탑이라면 해당 승려의 생애와 업적을 함께 설명한다.
- 불화의 경우, 어떤 대상 또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지 설명하고, 각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설명한다.

3. 영문 안내문안 개선사례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분류 유물 / 불교조각 / 목조 / 불상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476

시대 조선시대

[기존 안내문안]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抱川東和寺木造佛坐像)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목조불좌상은 동화사 대웅전 내 봉안되어 있으며 금도금이 되어 있다. 불상의 머리에는 소라 모양의 머리 카락인 나발(螺髮)과 지혜를 상징하는 흑과 같은 연꽃 봉우리 형태의 육계(肉髻)가 있다. 이마에는 광명의 빛으로 온 세상을 두루 비춘다는 뜻의 백호(白毫)가 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쳐지면서 밑으로 무겁게 흘러 내려 왼쪽 어깨 위로 넘어간 변형 편단우견이다. 불상의 손 모양인 수인(手印)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무릎위에 올려 손가락을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고, 왼손은 무릎 위에 수평으로 놓아 가운데 두 손가락을 구부린 전형적인 조선 후기 석가불의 수인이다. 동화사 목조 불상은 발원문을 통하여 제작연대와 제작자 등을 알 수 있고,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 조선 후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불상의 전체 높이는 101.5cm, 머리 높이는 31cm, 머리 너비는 24cm, 어깨 너비는 50cm, 가슴너비는 22cm, 무릎 너비는 62cm, 무릎 높이는 16cm다.

Seated Wooden Buddha of Donghwasa Temple in Pocheon

Gyeonggi-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220

This wooden, gold-gilded Buddha statue is kept in Daeungjeon Hall of Donghwasa Temple. It has turban shell-shaped hairs and a lotus bud-shaped piece, which symbolizes wisdom, on its head. Other features included a lock of white hair on the forehead, which is supposed to illuminate the entire world, and a clerical robe covering both shoulders. The Buddha is sitting in a lotus position, with his clothes spread downward in a handheld-fan shape over his lap. It is presumed that the statue was made in the late Joseon Period, given the impression of imbalance in the entire figure.



Wooden Seated Buddha of Donghwasa Temple, Pocheon

❶ This statue of Sakyamuni, the Buddha, is the main object of worship of Daeungjeon Hall.

❷ This statue was carved in 1649 by monk sculptors Sain and Sangnim. It was carved as part of a larger set which included the statues of various disciples and deities. These statues were all enshrined together at Manilsa Temple in today's Sunchang, Jeollabuk-do Province. In 1957, when Donghwasa Temple was established, the statue of Sakyamuni was transferred here without the rest of the set.

❸ The statue is carved from ginkgo and pine wood and is gilded. The long earlobes are disproportionally large compared to the face. The corners of the Buddha's mouth are slightly lifted as if he was faintly smiling. The statue has curly hair and a large protuberance on the top of the head, which is a symbol of the Buddha's wisdom. The jewel-like spot carved between the Buddha's eyebrows is a tuft of white hair which symbolizes his mercy shining out to the world. His right hand reaches down toward the ground, and his left hand rests on his lap, indicating his defeat of worldly desires and attainment of spiritual enlightenment.

❹ The statue measures 90 cm in height and 67 cm in width between the knees. It was last gilded in 1972.

❶ 불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함. 특히 어떤 부처를 나타낸 것인지를 설명함.

❷ 불상의 조성 경위 및 그 이후의 연혁을 간략하게 제시함.

❸ 불상의 모습을 설명함. 특히 수인(손의 모양)은 부처 또는 보살을 특정하는 단서가 되므로, 그 의미를 함께 설명함. 육계, 백호, 삼도와 같은 불상의 특징은 전문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되, 독자가 해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각각의 모습이 상징하는 내용을 함께 설명함.

❹ 불상의 치수는 간략하게 제시함.

【영문 해설 내용】

이 불상은 석가모니불로서 대웅전의 주존불이다.

1649년 사인과 상림이라는 조각승이 석가와 제자, 16나한 등을 조성하여 전북 순창 회문산 만일사에 봉안한 불상으로 1957년 동화사가 창건된 후 본존 석가불만 이곳에 옮겨 안치되었다.

불상은 은행나무와 소나무로 만든 후 금으로 도금하였다. 얼굴에 비해 두 귀는 크고 귓볼은 두툼하다. 입은 끝이 살짝 올라가 미소를 머금은 듯하다. 머리는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덮여있고, 정수리에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흑과 같은 형상이 높이 솟아 있다. 이마와 눈썹 사이에 구슬 모양으로 새겨진 부분은 부처의 양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빛나는 털을 나타낸 것이며, 부처의 자비가 온 세계에 비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처의 오른손은 땅을 향하고 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상징한다.

불상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90cm, 무릎 너비는 67cm이다. 1972년에 금칠을 새로 하였다.

부록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 안내판 편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 안내문안 편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 | 안내판 편

문화재 안내판 우수 정비사례 |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개인약수 편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 안내판 편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안내판의 기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안내판은 문화재의 규모가 크고 다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해당 문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안의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을 제작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문화재안내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규모와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을 정밀 분석하여 적절한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하나의 문화재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권역 중심의 안내판을 도입,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합하여 안내판 수량을 줄인다.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면단위문화재 안에 안내판이 다수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하여,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성격이 비슷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스펙트럼을 분석해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명도 ·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위주의 자극적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붉은색, 노란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가지 색상 이내로 색을 최소한만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의 기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안내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오른쪽 아래 또는 옆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정리 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문화재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 안내문안 편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1. 안내문안 기본원칙

구분	기준내용																										
안내문안 작성 기본 원칙	•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첨가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및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안내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등 문화재가 지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 안내문안 안에서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한다.																										
	•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안내문안 번역	• 외국어 병기는 영문으로 한정하고, 기타 언어는 안내책자 등으로 보완한다.																										
	•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 필요할 경우 영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 외국인 처지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 국문 작성자와 영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하여 의역상 오류를 최소화한다.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배열 구성	•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단위: 포인트)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종합안내판</th><th colspan="2">권역안내판</th><th colspan="2">개별안내판</th><th colspan="2">길찾기안내판</th></tr><tr><th>제목</th><th>본문</th><th>제목</th><th>본문</th><th>제목</th><th>본문</th><th>제목</th><th>본문</th></tr><tr><td>서체 급수 (최소한)</td><td>100</td><td>50</td><td>80</td><td>40</td><td>70</td><td>35</td><td>150</td><td>110</td></tr></table>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한다. ※ 추천 서체: 제목(윤고딕 패밀리) / 본문(윤명조 패밀리)																										

2.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종합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체 번역
권역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의 특징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체 번역
개별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체 번역

3. 안내 문안 구성 요소별 세부 기준

구분	세부내용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인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 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문화재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국문 명칭과 같은 줄이나 국문 명칭 다음 줄에 표기한다. 다만, 글자 크기는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이 변동하는 우리말은 변환하지 않고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 안내판 제목에 두 개 개체가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로 이어진 경우, 한자 표기에서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를 침표(.)로 바꾼다. 이때 가운뎃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 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같은 줄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크기는 영문이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권역(영문)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영역)의 이름으로 한다. • 개별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되,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을 따로 세운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한다. • 유적지 안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와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을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 •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문안의 첫머리에서 풀이하여 설명한다.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에는 문화재의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표시하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문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때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영문 번역 표기만 한다. 이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규모와 건립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물,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한다. 지정 종별, 번호와 줄을 같이하거나 아랫줄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 연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한자 표기 없이 영문 번역 표기만 하며, 이때 해당 영문 번역의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언어(국어, 영어)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문안 본문은 두 개 언어(국문/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과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킨다. • 문화재 명칭과 용어의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에 따른다. • 안내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국문, 영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 없다. • 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은 안내문 아래에 각주로 표기하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 • 영문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한자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국문 문안 본문에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소괄호(()) 안에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모든 한자는 같은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 안내 문안에서 한문을 풀어 주는 경우는 한자를 사용한다. 다만, 안내판 제목과 중복되면 1회 표기 원칙에 따라 한자 표기를 생략한다. •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한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 물량은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문화재 명칭의 숫자와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수령이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목을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을 표기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연대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연도를 대략 아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무렵’, ‘즈음’, ‘경’ 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 있다.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한 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로 없이 작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연도 뒤에 ‘재위’라고 쓴다. 문화재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생물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한자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도량형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한 문장(복문, 중문 포함)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되,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다른 단위로 적는다. 서화는 가로,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문안에서 고어가 고유명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되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꾼다.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의 방향 기준은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이며,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과 판단에 문제를 불러오므로 안내 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학설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화재가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 | 안내판 편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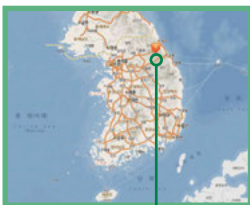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 ○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규모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 ○ ×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형태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 ○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 ○ ×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재료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를 하였는가?		△ ○ ×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색채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 ○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기타	문화재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출처: 인제군청

1.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開仁藥水)
- 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번호 : 제531호
- 지정일 : 2011.1.13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 1번지
- 지정구역 : 400㎡
- 지정사유

산 경사면에 흡수된 빗물이 암설을 통과하며 철분 등 무기물을 녹인 후 계곡 옆틈으로 솟아나고 있는데, 탄산뿐 아니라 철분의 함량이 높아 특유의 비린맛과 톡 쏘는 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등 수질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1891년 함경북도 출신의 '지덕삼' 포수가 백두대간에서 수렵을 하다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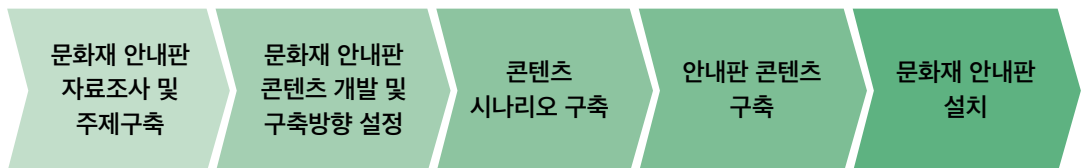


2. 사업 추진 내용

1) 문화재 안내판 설치 개요

- **사업근거** : 2012년 총액계상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사업지침** :
 -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로 안내판을 설치한다.
 - 자연문화 유산의 공개에 적절한 활용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약수터 주변 붕괴된 석축을 원형대로 보수한다.
 - 주변 붕괴된 석축을 원형대로 보수한다.
- **사업기간** : 2012. 11월 ~ 2014. 12월
- **사업비** : 85,045천원
 - ※ 콘텐츠 구축용역 20,230천원, 안내판 설치공사 55,315천원, 설계용역 9,500천원
- **설계방향**
 - 문화재 안내판의 활용성, 현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콘텐츠 구축을 선행한다.
(약수신앙, 설화, 지형, 마을이야기 기타)
 - 자연유산에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재의 활용 및 보존가치를 높인다.
 - 문화재 안내판의 주제, 형태, 규격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문화재 안내판 콘텐츠 개발과정



3) 문화재 안내판 자료조사 및 주제내용 정리

※ 자료조사 및 주제내용을 위한 꿀팁

1. 현지조사와 문헌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콘텐츠 소스를 정리
2.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방향을 결정하고 콘텐츠를 제작
3. 디자인 · 소재 등을 고려하여 안내판 모델을 제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개인약수 관련 콘텐츠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한국의 약수신앙, 개인약수 관련 설화, 개인약수의 지질적 특징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의 미산리 마을주민이 전하는 개인약수 이야기를 취재하여 정리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내판 콘텐츠 제작방향을 결정하였다. 현지조사로 탐방동선 분석, 안내판 설치위치 등을 도출하였고, 안내 콘텐츠 컨셉, 안내 주제 · 소재 등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정보전달형, 스토리텔링형, 퀴즈 · 미션수행형의 안내판 콘텐츠 컨셉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11개의 장소(Spot) 콘텐츠를 제작했다.

형태 · 크기 · 색채 · 레이아웃 등의 안내판 디자인과 소재를 고려하여 향후 개인약수 정비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판 모델을 제시했다.

4) 문화재 안내판 콘텐츠 개발 방향

※ 안내판 콘텐츠 개발을 위한 꿀팁

1. 개인약수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전시형콘텐츠를 개발
2. 11개 장소(Spot)의 콘텐츠를 기승전결에 입각한 시나리오 형태로 구성
3. 수요자 중심에서 탐방객이 얻고 싶은 정보와 콘텐츠를 구성

개인약수 문화재 안내판 콘텐츠 개발방향은 우선 개인약수입구에서 약수터까지의 숲길을 자연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전시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탐방객이 마치 전시관에 온 것처럼 하나의 안내판을 보고, 다음 안내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11개 장소(Spot)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승전결에 입각한 시나리오식 구성하였다. 탐방객들이 한국의 약수와 '개인약수'에 대한 한권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인약수를 찾는 탐방객들이 얻고 싶은 정보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안내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텍스트와 과도한 정보 전달,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쉬운 문장·압축 문장 사용을 지향하였다. 문안의 수준은 12세 이상의 눈높이로 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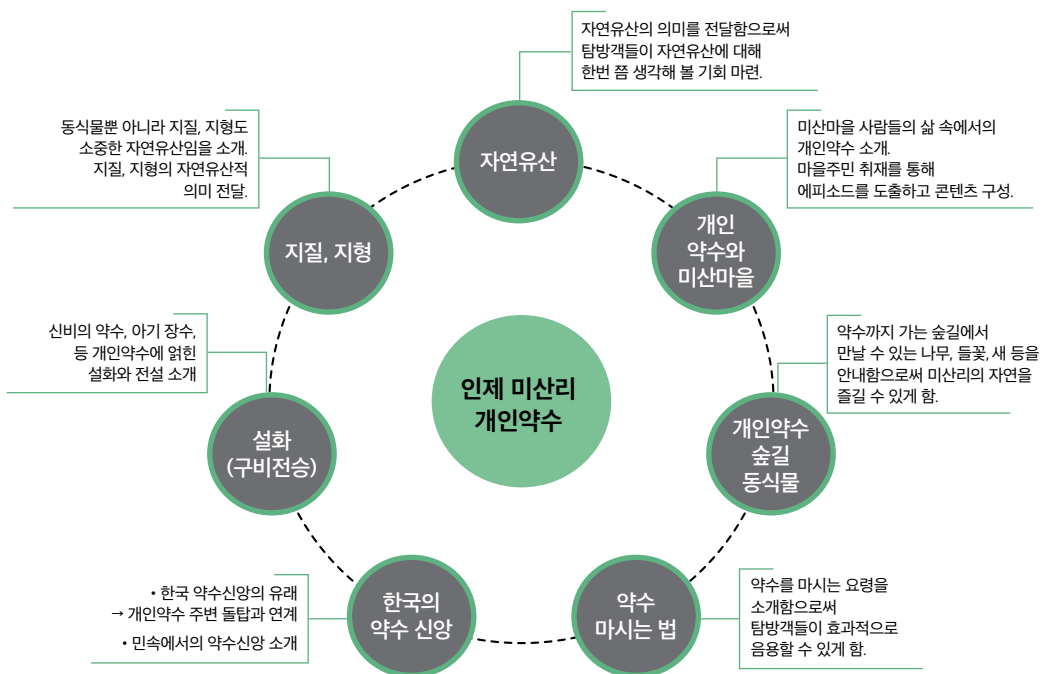
5) 문화재 안내판 콘텐츠 구체화

※ 안내판 콘텐츠 구체화를 위한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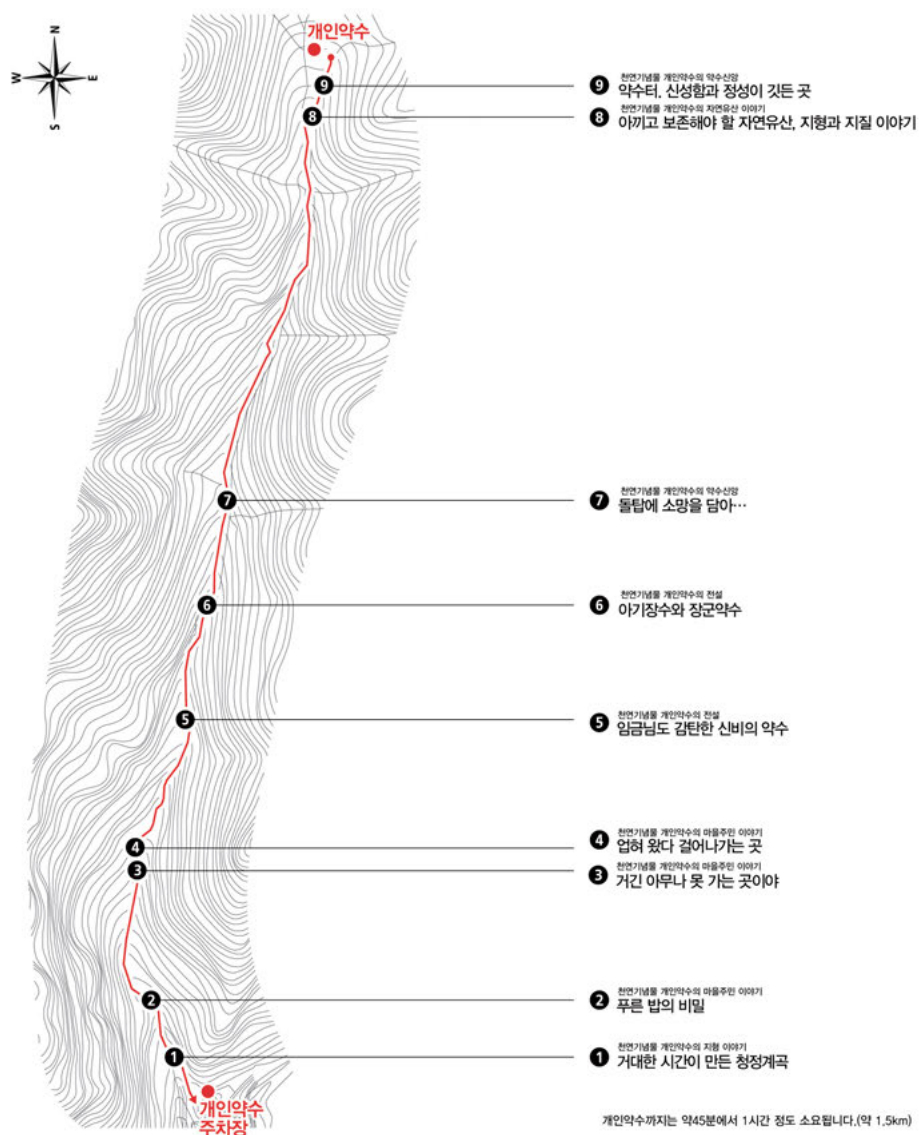
1. 10여 개 주제의 다양한 콘텐츠 구축
2. 기승전결의 4단계 스토리 구조로 설계

탐방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자연유산·개인약수와 미산마을·동식물·약수신앙·약수마시는 법 등 개인약수와 관련된 1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다음 주제가 궁금하도록 스토리 구조는 4단계로 설계하여 기승전결의 시나리오 형태로 콘텐츠를 구축했다. 안내판 간의 거리는 주차장에서 개인약수터까지의 거리(1.5km)를 고려하여, 개인약수터까지 60분 정도 소요될 시 평균적으로 5~6분마다 안내판 1개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6) 문화재 안내판 콘텐츠 구축방향(1)



자연이 빚어낸 보물, 개인약수 자연·문화유산 이야기



이렇게 총 11개의 장소(Spot)에 2개의 종합안내판과 9개의 개별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SPOT	주제	안내판 제목	선정 요인
도입부	종합정보	자연이 빚어낸 보물 개인약수 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약수 출발지 천연기념물 위치 지형, 지정사유 등 1차 정보 전달 9개의 콘텐츠 위치 및 설명
1	지형	거대한 시간이 만든 청정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약수 지질기반 및 생성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탐방객들의 일차적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줌
2	마을주민 이야기1	푸른 밥의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인 탐방과 더불어 개인약수 및 주변 자연유산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여, 자연유산 관한 인식을 제고함
3	마을주민 이야기2	거긴 아무나 못 가는 곳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장감의 완화 및 산행의 흥미 유발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를 배치
4	마을주민 이야기3	업혀 왔다 걸어 나가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산리 원주민 3인의 경험담 인터뷰를 스토리텔링하여, 개인약수의 특성 이해를 돕고 관심을 고조시킴
5	전설1	임금님도 감탄한 신비의 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약수의 신비감을 고조하기 위해 약수 터 도착 직전에서 주요 구전설화를 전달함
6	전설2	아기장수와 장군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약수의 천연기념물 지정요인 중 역사 문화적 요소를 부각시킴
7	약수신앙1	돌탑에 소망을 담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수터 초입에서 약수신앙의 의의 전달개인약수에 내재된 민간신앙을 언급하며, 개인약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달
8	지질	아끼고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 지형과 지질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질지형 자연유산의 가치를 언급하며, 이후 소개할 동식물과의 밀접한 관계를 안내하는 매개적 콘텐츠 배치
9	약수신앙2	약수터. 신성함과 정성이 깃든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수터 초입에서 약수신앙의 의의 전달개인약수에 내재된 민간신앙을 언급하며, 개인약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달
종점부	종합정보	자연이 빚어낸 보물 개인약수 자연·문화유산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약수 도착지 천연기념물 위치 지형, 지정사유 등 1차 정보 전달 9개의 콘텐츠 위치 및 설명

●●● 안내판 설치사례

(종합안내판) 도입부(출발지) · 종점부(도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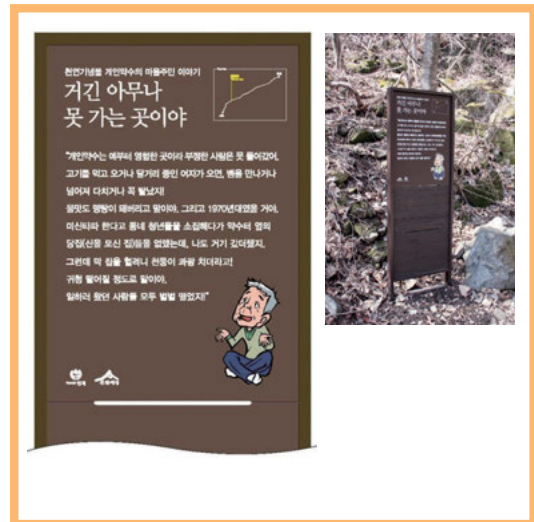
spot 1 (개별안내판) 거대한 시간이 만든 청정계곡



spot 2 (개별안내판) 푸른 밤의 비밀



spot 3 (개별안내판) 거긴 아무나 못 가는 곳이야



spot 8 (개별안내판) 아끼고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
지형과 지질 이야기



spot 9 (개별안내판) 약수터, 신성함과 정성이 깃든 곳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문화재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 042) 481-4744, 4742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기획 및 편집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디자인/제작 보임디자인(주)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880-01

ISBN 978-89-299-1745-6 93600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ISBN 978-89-299-1745-6 93600